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EU, NAFTA 등 지역주의가 출현하면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시아에 있어서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결성, ASEAN + 3, 혹은 ASEAN + 1 등 동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본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체를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내의 교역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지역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에서의 우위 확보가 이 지역 국가의 흥망성쇠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21세기를 동아시아의 세기라고도 한다. 서구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껏 세계의 주변부로 홀대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강국 일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선두 주자로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한국, 아세안 협력체제로 다자간 협력구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및 문화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서구와 미주의 변방이 아니다. 동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아시아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동아시아가 한국과 인접 지역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청소년들의 삶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는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곧 이웃이 될 것이다. 세계는 공존과 상생의 세상을 지향한다. 물론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상호 비방과 반목, 갈등으로 점철되기도 했지만, 탈냉전의 다원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이웃과의 반목과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

어나야 한다. 이웃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에 대한 상대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청소년의 국제화 수준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단일민족, 단일 언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에 대한 관심도 서구사회(유럽이나 미국)나 일본 등 선진국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아시아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지만 우리사회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친밀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외국친구의 국적이나 지역을 보면 일본 20.5%, 미국 19.1%, 유럽 14.5%, 호주 13.2% 등 유럽 등 선진국에 치우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북한 8.4%, 중국 6.7% 등에 친밀도를 갖고 있다. 인도·동남아에 대한 선호도는 1.3%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있다(임성택, 2002: 69).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동남아지역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과소하다. 중·고등학교 사회, 역사 교과서에서 동남아지역에 대해 다루는 내용은 식민지 지배와 이에 대한 저항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국가의 학교교과서도 유사하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를 다루는 내용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한국관련 기술내용이 적다. 한국에 대해서는 신흥공업국의 사례정도로만 다루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정연순, 2001: 37-57).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체 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고려할 때 한국청소년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대, 동아시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는 이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이다. 오늘날의 유럽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의 특수성을 뛰

어념은 유럽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하며, 미래 유럽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 왔다.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조약을 통해 유럽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YOUTH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청소년교류와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은 청소년들의 유럽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인권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연대의식 등을 개발하고 있다. 회원 국가를 비롯한 참가대상 국가에는 YOUTH programme을 위한 국가대행기관(National Agency)이 설립되어 있다. 이 기관이 EC와 국가, 지역, 지방단위의 프로젝트 추진자와 청소년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유럽연합의 청소년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호적대적인 역사적 배경, 이념적 차이,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 갈등 등 여러 가지 교류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 3국이 지니고 있는 폐쇄적 민족주의는 3국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아세안을 선점하려는 경쟁적 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상대국 사회,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가로 막을 수 있으며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교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가 다루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아시아지역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역사와 현황 분석을 토대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한다. 또한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역사학, 문화인류학, 정치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교류에 필요한 이념을 도출해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동아시아지역과의 청소년교류 현황을 분석한다. 국가간 교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청소년단체와 기타 비영리단체의 청소년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교류현황을 진단한다.

제4장에서는 먼저 동남아국가의 청소년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동남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의 국제기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청소년관련 부처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살펴본다. 그 외 유럽연합과 북미지역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지역 청소년교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고찰을 토대로 청소년교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관계, 동아시아지역 사회상황의 역사학적, 문화인류학적, 정치학적 분석,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실태, 외국의 청소년 교류사례 등에 대해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자료, 인터넷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2) 현지방문 면접조사

동남아국가연합의 청소년 교류체계 및 교류 현황, 교류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2004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접하였다.

<표 1-1> 동남아시아 청소년 교류관련 방문기관

구 분	기 관 명
동남아시아 청소년교류관련 국제기구	아세안 사무국
	아세안 기금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
	아시아-유럽 기금, 아시아-유럽청소년 협력체
	유네스코 방콕
싱가폴의 청소년교류관련 기관	싱가폴 청소년청
	싱가폴 국제교류기금
	싱가폴 청소년운동 국민협의회
	Youth Challenge
인도네시아 청소년교류기관	교육부 청소년국

3) 전문가 워크숍

2004년 10월 11일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이념을 모색하기 위

해 역사학, 정치학, 문화인류학적 관점을 가진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에 의한 다학문적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교류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는 <표 I-2>과 같다.

<표 I-2> 워크숍 참석자 명단

성 명	소 속
조흥국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홍석준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염진수	국제워크캠프기구 소장
김판준	동북아 평화연대 부장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
지세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장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II.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관계 및 청소년 교류의 이념 정립

1.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관계
2.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의 이념

II.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관계 및 청소년 교류의 이념 정립

1. 동아시아지역의 교류협력 관계¹⁾

1) 동아시아지역의 개념

(1)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흔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그것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정체성의 논의가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즉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개념인 동아시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그동안 흔히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자세는 보다 유연하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동아시아 정체성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동아시아 내부적 협력관계의 긴밀한 구축 등 보다 실용적인 측면이다. 그들의 이러한 시각과 자세는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세계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슬람, 상좌불교, 대승불교, 힌두교, 유교, 카톨릭, 개신교 등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1)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홍국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임.

있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구조가 존 엠브리에 의해 “느슨한 사회적 구조”(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로 표현된 보다 수용적인,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John F. Embree, 1980: 164-165).

동남아시아에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종종 정치적 혹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 3,000만 명의 화교·화인들이 있다. 이들은 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시대에 중화주의를 내세웠을 뿐, 오늘날에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사회에 동화 혹은 통합되어 그 세계의 일부로 살아오고 있다. 2천년 이상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베트남도 강력한 유교정책을 추진하던 19세기 전반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동북아시아 지향적인 문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정체성이란 어디까지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이중적 혹은 다중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심점이 있더라도 구심점을 중심으로 여러 정체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고, 그것도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화교·화인들이 보여주는 정체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동아시아 정체성을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자세는 동아시아 세계 내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동아시아를 이처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내 교류의 역사가 대부분의 경우 두 지역 전체에 걸쳐 일어났으며, 오늘날의 교류도 양 지역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다.

2)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

(1) 근대 이전 동아시아 내 교류

대략 18세기까지의 근대 이전 동아시아 내 교류 역사를 보면,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 관계가 지배적이었다. 예컨대 무력적 정벌과 정복 혹은 조공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중심 국가적 위상을 항상 추구한 중국의 중화주의, 왜구의 침략과 임진왜란으로 대표되는 한국과 일본간 관계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간 교류를 한국-동남아시아, 중국-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① 한국-동남아시아 교류

우선 한국과 동남아시아간 관계를 보면, 베트남의 리(李) 왕조(1009-1225)의 한 왕자인 리룡뜨엉(李龍祥)이란 자가 베트남에서의 내란을 피해 1226년경 고려로 망명했다. 그는 황해도 웅진현(甕津縣)에 정착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화산(花山) 이씨(李氏)의 시조가 되었다(金永鍵, 1943: 293-309).

『高麗史』의 기록에 의하면, 1391년에 태국의 사신을 자처하는 상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공양왕(재위 1389-1392)의 고려 조정에 선물을 바치고 돌아갔다(高麗史, 1981: 897). 『朝鮮王朝實錄』에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사이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역시 사신을 자처하는 상인들이 태조(재위 1392-1398)와 태종(재위 1400-1418)의 조선 조정에 선물을 바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朝鮮王朝實錄 1, 1986: 45, 65-66, 94, 105, 369, 375-376, 632). 그들은 태국의 아유타야(Ayutthaya) 왕국(1351-1767)과 인도네시아의 마자빠히트(Majapahit) 왕국(1292-1527)의 왕실무역을 수행하는 상인 혹은 선장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무역을 추구하는 사상인(私商人)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1394년 조선을 방문한 태국의 장스다오(張思道)나 1398년의

린더장(林得章), 그리고 1395년에 장스다오와 함께 조선에 온 자바의 천옌샹(陳彦祥) 등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모두 중국인들이며, 당시 태국 혹은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무역 활동을 한 화상(華商)들이었다.²⁾

그들이 한국을 찾아온 목적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섬기는 아유타야 왕국과 마자빠히트 왕국의 당대 국왕을 위해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인 무역상인이기도 한 그들이 자신들의 무역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태조 정부는 일본에서 왜구를 만나 모든 화물을 잃고 1395년에 조선에 다시 돌아온 장스다오에게 당시 외국으로부터의 방문객을 담당하는 예빈사(禮賓寺)에서 최고로 높은 예빈경(禮賓卿)이란 관직을,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천옌샹에게는 당시 천문, 역학, 풍수음양 등을 관장한 서운관(書雲觀)의 한 관직인 서운부정(書雲副正)이란 벼슬을 하사했다. 태조는 또한 태국으로부터의 “사신” 내방에 대한 답례로 1394년에 장스다오의 선편으로 조선 사신 일행을 태국에 파견했다. 이상의 사실들은 조선 정부가 적어도 왕조 초기에는 남양(南洋)의 희귀한 물품을 생산하는 태국과 자바와 교역관계를 맺는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1394년 조선의 사신 파견은 그러나 그들이 타고 간 배가 일본에서

2) 자바 지역과 중국간의 무역은 적어도 13세기부터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13세기말 원의 대규모 해상 공격 이후 자바에 머물러 정착한 중국인들이 많았다. 14세기 중엽에는 사무역 상인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를 조공무역 체제에만 국한시킨 명(明)의 해금(海禁)정책으로 자바에서 활동하던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바에 정착했다. 마자빠히트 왕국은 명의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자바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던 화상들을 기용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선의 선장 및 왕실무역상인으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Anthony Reid, “The Rise and Fall of Sino-Javanese Shipping,” in *Looking in Odd Mirrors: The Java Sea*, ed. V. J. H. Houben, H. M. J. Maier and W. van der Molen, 181-186 (Leiden: Vakgroep Talen en Culturen van Zuidoost- 1992).

왜구의 습격을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1395년 말에서 1396년 초 사이에 재차 파견된 사신 일행도 불행하게도 태국 방문의 초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조흥국, 1999: 32). 1399년 이후 태국과 한국간 접촉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자바와 한국간 관계도 1406년을 끝으로 그 후 단절되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 교역이 단절된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뱃길에서 태국과 자바의 상선들을 습격, 약탈하고 선원들을 종종 살해하기까지 한 왜구의 위협이었다. 둘째는 접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화상들이 조선의 시장을 뱃길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계속 교역을 추진할 만큼 매력 있는 곳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17세기에 조선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간의 만남에 대한 두 개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첫 번째는 17세기 초의 것으로, 1611년경 베트남 상인들과 난징(南京)의 중국 상인들이 화물을 한 배에 싣고 출범했다가 표류하여 제주도에서 오게 되었다. 당시 제주의 목사(牧使) 이기빈(李箕賓)과 판관(判官) 문희현(文希賢) 등은 며칠 동안 이들을 잘 접대하다가 열 개 이상의 뚝을 세울 정도로 규모가 큰 상선에 화물이 그득함을 보고 탐이나 곧 그 재물을 다 빼앗고 그들을 모두 살해한 다음 자신들의 만행의 자취를 은폐하기 위해 그 배까지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는 왜구들을 잡았다는 장계를 올려 나라로부터 포상까지 받았다.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자는 이들이 “나라의 중국 및 주위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공로와 재화를 탐하여 자의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장래의 화를 예측할 수 없으리라”고 탄식하고 있다(朝鮮王朝實錄, 32: 10).

두 번째 이야기는 17세기 말에 일어난 것으로, 1687년 경 제주도 주민 24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표류한 지 한 달 만에 베트남 중부의 항구 호이안(Hoi An)에 도달했다. 세 명은 상륙하자마자 얻은 물을 마시고 죽고 말았다. 배가 파손되어 돌아갈 방도마저 막막한 생존자들

은 그 지역 고관 부인의 호의로 거처를 마련하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끼니를 이을 수 있었다. 수개월 뒤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된 베트남 조정은 마침 베트남에 와 있던 중국 상선에게 그들을 조선으로 데려다주도록 부탁하면서 그 운반비로 600량을 주었다. 베트남 조정은 또한 그들을 중국 상선 편으로 조선에 회송한다는 것을 알리고 조선 당국이 중국 상선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써주었다. 그리고 중국 상인들에게 조선 당국으로부터 신병 인도의 확인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다시 후한 상급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 조선의 표류민들을 고향에 확실히 데려다주도록 하기 위한 깊은 배려였던 것이다.

제주도 표류민들을 태운 중국 상선이 1688년 겨울에 제주도에 도착한 후, 조선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다. 조선 정부는 베트남 조정의 서신은 완전히 무시하고는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으로 표류해오면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배 안의 중국인들을 모두 붙잡아 육로를 통해 북경으로 보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중국 상인들을 하필이면 압송했느냐고 오히려 조선 정부를 비난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그들을 바다로 놓아 보내라고 명하기에 이른다(朝鮮王朝實錄, 39: 158. 최상수, 1966: 103-110).

당시 조선은 대외관계의 초점을 중국에 두고 있었으며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과도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 훨씬 '세계화'되어 있던 베트남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인 조선에서 표류해온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보여주었다. 당시 호이안을 끼고 있던 베트남은 남부의 응우옌(Nguyen) 가문이 지배하던 나라였다. 1688년경 응우옌 정부가 일본의 막부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베트남은 대외무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³⁾ 여기서 우리는 응우옌 정부의 배

트남이 조선의 표류민들에 대한 호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선과 교역관계를 수립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조선 정부의 행동은 그러한 결과로 이끌 상호 접근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② 중국-동남아시아 교류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제·지배의 자세로 임해왔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우월의식은 한국, 일본 등을 ‘동이’(東夷)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남만’(南蠻) 혹은 ‘남번’(南蕃)으로 칭함으로써 표현되었다. 통제·지배의 자세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공체제의 강요와 종종 군사적 정벌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그러한 자세는 있었지만, 동북아시아에 비해 그 강도가 훨씬 약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공체제의 강요는 원(元) 왕조 시기부터 시작되어, 조공관계는 명과 청 시대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14세기 중엽에 건설된 명은 왕조 초기에 중국의 동남부 연안과 남중국해를 무대로 장사하는 중국인들의 무역활동과 왜구들의 활동이 새로운 왕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체의 사무역(私貿易)을 금하는 소위 ‘해금’(海禁)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는 중국과 남양(南洋) 즉 동남아시아와의 모든 교역관계를 공식적인 조공무역 채널에 국한시켰다(조흥국a, 1998: 300-301).

동남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중국과의 공식적인 조공관계가 종종 동남아시아 내 상호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그 왕조의 정치적 권위

3) Kuniye Kawamoto, “The International Outlook of the Quang Nam (Nguyen) Regime as Revealed in Gaiban Tsuusho,” in *Ancient Town of Hoi An*, ed.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ncient Town of Hoi An, 115-116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91).

와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강화하는 한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게다가 14세기 동남아시아에 해외무역의 붐이 불기 시작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그것이 사무역이든 조공무역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간주한 동남아시아의 여러 정부들은 특히 관세 면제의 특혜를 받았던 조공무역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노력했다(조흥국, 2001: 39-40). 중국의 조공체제 정책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무역에 대한 관심의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했기 때문에 조공체제에 깔린 중국의 중화주의적 자세는 동남아시아의 왕국들에 무리없이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측면은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조공관계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통제·지배의 자세는 종종 물리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다. 15세기 전반 명 정부가 환관 정허(鄭和)를 내세워 실시한 7차례의 대규모 해외원정은 비록 군사적인 정복을 목표로 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중국의 강력한 힘을 ‘남만’의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시위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Lynn Pan, 1998: 48-49).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은 13세기 원의 미얀마 정벌과 베트남 및 참파(Champa) 공격,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바에 대한 해상원정 등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 중 베트남과 참파에 대한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자바 원정도 실제적인 전투를 동반하지 않은 무력시위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로써 자바에서의 한 중요한 왕조 교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에 비해 미얀마 원정은 버강(Bagan)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이후 미얀마가 수백년간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17세기 명-청 왕조 교체기에 명에 충성하던 군대의 일부가 만주족 군대에 쫓겨 미얀마로 도피했을 때, 만주족 군대가 이를 소탕하기 위해 미얀마를 압박함으로써 또 다시 일어났다(D. R. SarDesai, 1997: 40-56).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지배의 노력은 베트남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에 한무제(漢武帝)의 중국에 의해 정복당한 후 1050년간 중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 식민지배 기간 중 중국의 행정체제, 법, 문학, 종교들이 베트남 사회에 깊이 스며들었다. 중국의 영향은 베트남이 939년에 독립을 획득한 후에도 중국과의 조공관계를 통해 지속되었다.

베트남은 중국을 그 민족적 독립에 위협적인 위험한 이웃국가로 항상 간주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베트남 역사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말해지며, 중국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했던 자들은 베트남의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된다.

938년 응오 퀴엔(Ngo Quyen)이 바익 당(Bach Dang)강 전투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베트남 민족을 중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뒤에도 중국의 위협은 종종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베트남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킨 훌륭한 군사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 981년 레 호안(Le Hoan)은 송의 원정군을 물리쳤고, 1285년에서 1288년 사이에는 쩌 꾸억 뚜언(Tran Quoc Tuan)이 당시 수도인 탕롱(Thang Long)까지 쳐들어온 원의 대군을 격파하여 나라와 민족을 심각한 위기로부터 구했다.

15세기 초에는 동남아시아로 팽창정책을 추구하던 명 군대가 1407년 베트남을 정복하여 다시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 때 레 러이(Le Loi)란 탁월한 군사전략가가 1418년부터 저항운동을 일으켜 1427년에는 중국 군대를 베트남에서 몰아내고 그 이듬해에 1788년까지 지속한 레(Le) 왕조를 세웠다. 10년간에 걸친 투쟁에서 특히 성공적인 게릴라전을 전개한 레 러이는 20세기 북베트남의 지도자들에 의해 게릴라전의 우상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1789년 초에는 떠이선(Tayson) 운동의 세 형제 중 한 명인 응우옌 반 후에(Nguyen Van Hue)가 탕롱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 군대를 몰아내어 베트남이 다시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것을 막았다(조흥국, 1995: 40-42).

(2) 근대이후

동아시아의 19세기 이후 근대사는 상당 부분 서양 식민지배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20세기 중엽까지 지속된 식민 시대 동안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민족들간 관계는 대부분 서양인 식민지 주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한 몇 안 되는 나라들에 속하는 태국과 중국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①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이주

식민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어난 동아시아 내 교류의 한 대표적 예로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이주를 들 수 있다. 중국인들의 상업적 활동은 유럽인들의 뒤를 따라 다니며 이루어졌다. 영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구축한 19세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인도양과 중국해에서 영국인들의 무역중심지로 1819년부터 건설된 싱가포르를 위시하여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그리고 그 일대의 상업중심지와 주석광산 및 플랜테이션들에 술한 화인들이 몰려들었다. 19세기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미얀마에서도 중국인들의 유입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영국인들은 의도적으로 중국인들을 영국의 식민지들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당시 중국인들의 해외이주를 불법화하고 있었던 청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 그것은 1860년 북경조약(北京條約) 이후 1893년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금지를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890년대 이후 특히 광둥성의 칸톤(Canton) 즉 오늘날 광저우(廣州)를 통해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영령 식민지들로 흘러 들어갔다. 비록 영국 식민지들에서와 같은 대규모 이주는 아니었지만,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식민지인 인도차이나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서양 식민지 사회로 이주, 정착한 중국인들은 대부분의 경

우 식민정부의 법적인 보호를 등에 업고 ‘쿨리’라고 불린 계약노동자, 상인, 사업가로서 돈벌이를 했다. 그들의 경제적 활동은 그러나 중국 고향으로의 송금 등의 행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현지 사회 지향적인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들의 정치적 활동 또한 특히 20세기 전반 민족주의 시대에 중국에서의 상황에 집중되는 등, 중국 민족주의적(Chinese nationalist)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그들은 비록 현지사회에서 오래 살아도 언어, 신앙, 가족관계, 의식주 생활, 관습 등 중국 문화의 요소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로써 현지사회로의 동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가진 화교들과 이들을 경원시하는 현지 사회간의 갈등의 장이 형성되었다. 중국인들의 이주는 식민 시대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과 동남아시아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본의 동아시아 팽창주의

식민 시대 동아시아 내 교류의 이러한 성격에 있어서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의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접근과 관계 형성은 분명 예외에 속한다. 일본은 주지하다시피 19세기 후반부터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방향으로의 세력 확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남진”(南進)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로의 팽창을 추구해왔다.

일본의 동아시아 팽창에 대한 야욕은 이미 16세기 말부터 확인된다. 중국 및 류큐(琉球)를 통해 이루어졌던 일본과 동남아시아간의 간접적인 접촉은 16세기 후반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무역적 관심으로 발전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해외무역에 대해 갈수록 팽배해진 관심의 결과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580년대 말 일본을 평정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의 영향력을 해외로 팽창하고 이와 함께 일본인들의 해외무역 활동을 남양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郡司喜一, 1938: 15-16). 1589년 류큐 정부는 1587년

큐슈 지방을 평정한 히데요시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조공을 바치려 하고 있었고, 1590년에는 히데요시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실제로 1591년 7월 히데요시는 고아(Goa)의 포르투갈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이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는 인도도 정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같은 해 필리핀의 스페인 총독에게도 사신을 보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의 근대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은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점령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고노에(近衛) 내각은 1940년 미국과 영국에 대해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군사기지화하며 그 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남태평양의 독일령 및 프랑스령 지역들을 점령하는 등 적극적인 남방진출을 결정했다.

일본이 태평양 및 동남아시아로의 전쟁 확대를 통해 노린 것은 아시아의 해계모니를 장악하겠다는 거시적인 의도 외에 쌀, 고무, 설탕, 담배, 커피, 옥수수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과 수산자원 그리고 석유, 주석, 망간, 아연, 크롬, 텅스텐 등 지하자원과 수력발전 전력자원의 확보라는 구체적인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1940년 7월 베트남 북부에 대한 공격과 8월 하노이의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소위 ‘남방 진출’은 1941년 중엽에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대한 통제권 장악과 그 이듬해 필리핀의 완전한 정복, 1941년 12월 태국과의 공수동맹 체결과 말라야에 대한 침공 개시와 1942년 2월 싱가포르 함락, 그 해 3월의 자바 정복과 인도네시아의 접수, 그리고 1942년 7월 미얀마의 점령으로 완성되었다.

1945년 8월의 패전까지 지속된 일본의 동남아시아 점령이 이 지역 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일반적인 견해는 일본의 점령이 수십년간 혹은 지역에 따라서 수백년간 지속된 백인 식

민통치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었고, 이로써 동남아시아를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점령기를 동남아시아 현대사의 흐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하나의 분수령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은, 비록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의 도움을 통해 독립의 획득을 기대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될 수 없다. 오히려 일제 점령기 이전부터 있었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일본 군대가 물러간 이후 대부분 다시 그 역사적 에너지를 발휘했다는 점에서, 일제 점령기를 동남아시아 현대사의 변화라는 측면보다는 연속의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독립법’에 따라 미국이 이미 1930년대 중엽에 필리핀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가 있었고, 일본의 역할과는 상관없이 위의 약속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후 필리핀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경우 1930년대 중엽부터 버마인들이 국내정치적 자율권을 획득했으며, 당시부터 활동하던 미얀마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전쟁 중과 전쟁 후에도 그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군이 물러간 뒤 프랑스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 다시 들어와 이 지역들을 재식민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동남아시아 점령 후 그 지역의 정치를 통제하고 경제적 자원을 수탈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식민지 주인으로서 등장했다. 말라야와 싱가포르에서 현지 중국인들을 잔혹하게 대했으며, 미얀마에서는 전쟁을 통한 경제의 파괴 외에도 미얀마인들에게 심한 민족적 모욕감을 주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반일(反日) 인사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을 행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청년들을 일본군대의 총알받이로 징발해 갔으며, 많은 여자들을 정신대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동남아시아 도처에서 반일무장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말라야에서는 말라야공산당(MCP: Malayan Communist Party)을 중심으로 말라야항일인민군(MPAJA:

Malayan People's Anti-Japanese Army)이 결성되어 일본 군대에 대한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필리핀에서는 공산주의적인 농민운동인 항일 인민군(Hukbalahap: Hukbo ng Bayan laban sa Hapon)이 조직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비록 그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소했으나 항일 무장투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특히 베트민(Vietminh 越盟)이 일본 군대를 게릴라전을 통해 괴롭혔다. 끝으로 지적할 점은 비록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정치엘리트들과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종용하여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로 '독립'이 선포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중심에 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내에서의 독립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조흥국b, 1998: 60-62).

이상 살펴본 근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동남아시아 관계도 앞에서 고찰한 근대 이전 한국-동남아시아와 중국-동남아시아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호 협력적인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팽창주의와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것으로 일어났다.

3) 동아시아지역 교류협력관계 현황

독립 후 냉전체제의 시대에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수립, 경제발전,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안보 등 네 가지로 집약된다(박사명, 2004: 27-36). 그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첫째는 1949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등장과 '도미노 이론'에 입각한 이들의 위협,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베트남전쟁 등으로 인한 안보문제였고, 둘째는 경제발전이었다. 경제발전은 어떻게 하면 식민 시대부터 소수의 서양인들과 화인, 인도인 등 매환적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에게 놓여 있는 자본을 현지인들에게 돌리고 국민경제를 건설하느냐의 문제였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후 상호 협력을 모색해 왔다. 그러한 모색의 예로 다음에서 살펴볼 메콩(Mekong) 유역 국가들간의 협력관계를 위한 노력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간의 ‘아세안’ 결성이 있다. 그 중 전자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성공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에 비해 후자는 이질적 요소를 갖는 국가들간 상호 협력관계의 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1) 메콩 유역 국가들의 협력관계

지리적 환경의 공통된 요소들이 경제적 활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그 요소의 조작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모든 활동 측면에 파급적인 효과를 미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그러한 요소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중국 운남성을 통과하여 흐르는 메콩강을 들 수 있다. 총 약 4,800km의 길이에 힘찬 물살과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는 메콩강은 전력생산과 농업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메콩강개발계획(Mekong River Development Project)은 메콩 유역 주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1957년경 메콩위원회(Mekong Committee)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메콩강의 개발계획은 단순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메콩강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환경적 요소의 조작 즉 개발은 메콩강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메콩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척된 상황은 메콩 유역 국가들간의 국제적 협력을 그 전제조건으로 둔 것이다. 그러나 유역 국가들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화 및 협력보다는 불화 및 분쟁이 더욱 빈번했다. 사실 대륙동남아의 역사는 메콩 유역 국가들간의 알력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므로 1957년 메콩강개발계획의 출범은 그 이전 메콩 유역 국가들간의 상호 분쟁관계가 협력관계로 변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1960년대~70년대 전반 베트남전쟁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그리고 같은 해에 일어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공산화로 인도차이나의 세 나라들과 태국 및 미얀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1979년 초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함으로써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심각한 적대관계에 빠지게 되었다(조흥국 외, 2002: 11-12).

메콩강개발계획이 다시 진지한 논의대상이 된 것은 탈냉전의 기류와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유역 국가들간의 협력체제가 새롭게 검토됨으로써 가능해졌다. 특히 1990년대 유역 국가들에서의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추진 배경이 된다. 그리하여 유역 국가들간에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과 도로건설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계획되었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사업들이 메콩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메콩강 주변의 소수민족들의 생활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초기의 협력관계에 대한 취지와 기대와는 달리 유역 국가들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운남성에서의 댐 건설이 문제시된다. 운남성에 현재 가동 중이거나 조만간 완공될 메콩강 댐들이 5개 있는데, 이 댐들은 중·하류쪽 메콩강의 흐름을 둔화시켜 이 지역의 관개농사와 수력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운남성에서의 댐건설로 영향을 받는 메콩강 중·하류의 국가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중국에 의해 지배되어 있거나 그 경제가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드러내놓고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지도 못한다. 설령 국제적 이슈가 된다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지난 십수년 동안 국제사회가 경험한 것처럼,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외

적 비판을 대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1: 4-6).

(2) 아세안의 형성과 발전

동아시아 내 교류협력 관계의 가능성과 전망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의 한 성공적인 상호협력 조직인 아세안(ASEAN)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특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용어는 ‘다양성’이다. 동남아시아는 상좌불교와 대승불교, 힌두교와 이슬람, 가톨릭과 개신교, 유교와 도교 등 거의 모든 세계종교가 들어와 있으며, 이들 외에 나라마다 여러 형태의 민간신앙이 발달해 있다. 또한 민족적으로도 다양하며, 특히 나라마다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 사용되는 언어들도 민족들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복잡하다. 이러한 동남아시아는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처럼 종교적이나 민족적으로 상당한 공통성을 가진 지역과는 달리 하나의 지역으로 보기에는 무리이다.

심지어 같은 인도차이나반도에 속해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라 할 지라도 그 민족적 및 문화적 차이는 너무도 뚜렷하여 서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우기마다 북부의 홍하(紅河) 델타 지역에서 홍수의 피해를 겪어온 베트남은 중국식 치수(治水)의 전통이 오래 전부터 발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집단적인 협동의 사회구조와 민족성이 형성되어 왔다. 베트남 사회의 집단성은 무엇보다도 마을의 성격에서 드러난다. 베트남의 마을은 울창한 대나무 혹은 선인장의 담으로 둘러싸여 하나의 폐쇄된 세계를 이루며, 국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자치적인 관계에 있어 왔다. 그리하여 “마을 전통이 왕권을 능가한다” 혹은 “관리들은 오고 가도, 마을 사람들은 남는다” 등의 베트남 속담이 만들어졌다. 그에 비해 캄보디아의 하천들은 심각한 홍수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전통적으로 집단적인 협동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천은 오히려 논과 밭에 물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민물고기의 어장이 되기

도 한다. 생계활동은 대개 개인적으로 혹은 기껏해야 가족 단위로 행해져도 충분하다. 그리하여 캄보디아 사회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며, 국가와 사회는 강한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다. 생산방식의 차이와 그로 인한 사회 및 국가의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는 베트남에서는 보다 집단성과 인간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대승불교와 유교가 발전한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개인의 카르마(karma) 즉 업(業)과 개인주의적 수도를 중시하는 상좌불교가 뿌리를 내렸다는 종교적 차이로 연결된다(조흥국, 2003: 62-63).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은 이 지역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구인들이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하기 위한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인위적인 ‘동남아시아’ 개념은 식민주의의 한 소산으로 간주된다(조흥국b, 2000: 50-51). 다시 말하면 ‘동남아시아’는 이 지역 사람들의 내부적 관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 어디까지나 외부적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서 이 지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란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⁴⁾ 그것은 특히 ‘아세안’이라는 조직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주의’(Southeast Asian Regionalism)라고 일컬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를 띤다. 예컨대 1987년 아세안의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지역주의’는 동남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극히 중요하다. [중략] 아세안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역내 단결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한다(<http://www.aseansec.org/>).

위에서 언급한 다양성을 지닌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민주의 시대까

4) Amitav Acharya and Ananda Rajah, “Introduction: Reconceptualizing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7, no. 1 (1999); Joel S. Kahn, ed., *Southeast Asian Identities: Cul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ailan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지는 상호 교류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협력관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지 않았다.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는 식민 세력이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의 시도들은 생명이 짧거나 실효성이 없었다. 예컨대 1955년에 냉전체제의 배경 아래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이 가입하여 결성된 SEATO(동남아조약기구 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는 내부에서의 이해관계 알력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했고 이윽고 1977년에 해체되었다.

1961년에는 필리핀, 태국, 말라야연방 등이 가입하여 ASA(동남아시아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이 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SEATO에서의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ASA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간의 영토 분쟁으로 상호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는 처음부터 어려웠다.

동남아시아에서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협력 조직으로서의 아세안은 1967년 8월에 방콕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역내와 역외의 여러 요인들이 있었다. 우선 역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서방세계에 대해 비판적이고 비동맹운동을 주도하는 등 자신을 제3세계의 대변자로 간주한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 체제가 끝나고, 1966년에 수하르토(Suharto)의 이른 바 신질서(New Order) 체제가 수립되어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역외에서는 무엇보다도 베트남전쟁의 발발로 인한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제럴드 탄, 1997: 17-22).

아세안 결성의 목적은,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에 따르면, 역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력관계이지만, 실제로는 냉전체제와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역내의 불안한 상황에서 역내의 안보정치적 안정을 위한 협력관계였다. 후자의 측면은 특히 1968년과

1969년에 영국과 미국이 각각 닉슨의 궤도 독트린 선언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후 가시화되었다. 역내의 변화된 안보정치적 상황에 대해 아세안은 1971년 쿼라룸푸르 선언(Kuala Lumpur Declaration)을 통하여 ZOPFAN(평화·자유·중립 지대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이라는 안보협력 체제를 결성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Andreas Ufen, 2004: 73).

베트남과 라오스가 공산화되고 캄보디아에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이 증대된 1975년 이후 아세안의 관심은 이전보다 더욱 역내 안보와 안정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TAC(우호협력조약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을 선포하여 회원국들 상호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의 포기를 촉구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TAC이 역내의 비아세안 국가들에게도 개방되었다는 점이다. 자체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없는 아세안은 이미 그때부터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여, 문제의 해결을 동남아시아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색하려고 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자세는 아세안의 단결과 협력을 재차 강조한 1987년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나, 비아세안 국가들에게 대화를 재촉했다.

198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1991년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도 냉전이 종식되었다.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을 묶는 중요한 원동력이었던 역내 안보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아세안의 존재 의미가 퇴색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아세안은 수 년 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신의 위상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강력한 부상과 역내에서의 테러, 마약, 에이즈, 인신매매, 노동력 이주 등을 통한 불안, 그리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유럽연합) 등 무역 블록들의 강력한 대두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마지막 요인과 관련하여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를 2008년(나중에 2002년)까지 설립한다는 데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의 후속 미팅인 장관급 회의에서 아세안의 공식 대화파트너들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94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인 ARF(아세안지역포럼: ASEAN Regional Forum)가 탄생했다.

또한 1994년부터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은 역시 아세안 정상회담의 후속 미팅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동아시아 내 안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아세안 + 3’이라는 동아시아 대화기구가 발족된다. ‘아세안 + 3’은 특히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큰 타격을 준 1997년 경제위기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후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세안 + 3’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세계에서의 경제 블록 형성의 추세와 APEC 역할에 대한 회의 등과 맞물려, 동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Andreas Ufen, 2004: 75).

이 시기에 그 사이 브루나이가 가입하여 6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기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1995년에, 미얀마와 라오스가 1997년에, 캄보디아 1999년에 가입했다. 아세안은 이제 공히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연합체가 되었다.⁵⁾

아세안은 21세기에 들어와 역내 협력관계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2003년 10월 발리 회담에서는 아세안 안보공동체(ASEAN Security Community)와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al and Cultural

5) 200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한 동티모르는 아직 아세안 회원국이 아님.

Community)의 결성이 결의되었다. 안보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의 건설 계획은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것임에 비해, 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들간에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래되는 공동의 시장을 2020년까지 실현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4) 동아시아지역 내 교류협력 전망

이상 살펴본 것처럼, 최근까지 동아시아 내에서 상호 교류협력의 전통은 미약했거나 결여되어 있었다. 그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으나,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적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경주되었더라도 그것은 상호 적대적인 역사적 배경, 이념적 차이,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 경제적 격차, 문화적 차이와 갈등 등 때문에 종종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위에서 본 아세안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98년 경제위기를 겪음으로써 상호 의존의 필요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정하고 있다(안청시, 2002: 19). 그러나 상호 의존과 협력은 경제 부문 외에도 사회 및 문화의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 문제만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어느 한 나라 혹은 동북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예컨대 황사(黃沙) 문제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다. 동남아시아에서의 밀림의 파괴 및 삼림 면적의 감소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환경 파괴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준다.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황금의 삼각지대’ 일명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약의 생산과 유통 역시 동남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이것으로 아편을 만들어 생산되는 헤로인과 최근

그 제조가 급증하고 있는 암페타민류 각성제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남쪽으로는 태국을 거쳐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과 홍콩, 한국, 일본, 미대륙, 유럽 등으로, 동쪽으로는 라오스 북부를 거쳐 베트남으로, 서쪽으로는 인도로, 북쪽으로는 운남성을 경유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으로 퍼진다.

또한 이슬람 테러조직의 위협은 특히 알 카에다에 연결된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가 동남아시아에서도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 등의 경우와 같이 광범위한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동남아선교뉴스레터, 2002: 15-19). 그밖에 미성년 인신매매, 매춘, 에이즈, 난민 등의 문제 등도 국경을 초월한 지 오래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그 해결을 위해서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지역 내 교류협력 관계가 발전할 토양은 이미 다져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의 인적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에 가서 유학을 하며, 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다. 유학생과 관광객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동아시아 내에서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의 노동력이 일본이나 아시아 신흥공업국들(NICs)에서의 노동 시장의 수요를 채우고 있다. 한편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들의 기업들은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로 자본과 산업시설을 이전한다. 이러한 노동력과 산업시설 및 자본의 이동은 종종 충돌을 일으켜 상호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예컨대 최근 한국에 오거나 자국에 진출한 한국 회사에 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해의 장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동아시아 내 협력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대중문화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내 문화적 다양성과 그 문화들의 비소통(非疏通)적 관계는 대개 무엇보다도 유교와 상좌불교, 유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이슬람, 이슬람과 상좌불교 등 세계종교간 대립과 갈등에 바탕으로 둔 전통문화 차원에서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있어 왔다. 그에 비해 대중문화는 그러한 종교적 및 정치적 이념의 벽을 뛰어넘는다. 중국과 홍콩의 영화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영화, TV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한 때 많은 팬을 갖고 있었다. 수년 전부터는 한국의 대중문화인 ‘한류’(韓流)가 중국, 타이완, 몽골, 홍콩, 베트남 등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 태국, 그리고 최근 일본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내 교류협력 관계가 문화 분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2.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의 이념

동아시아 청소년교류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간 상호이해와 존중,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청소년은 이를 추진해 낼 미래의 세대이다. 동아시아 청소년교류는 동아시아지역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차세대를 육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지역 청소년이 공동으로 발전시켜나갈 이념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협력을 통해 공유해야할 이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동아시아지역의 역사화해⁶⁾

(1) 21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현황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었고, 이는 동북아시아의 기존 국제질서를 급격하게 변모시켰다. 냉전의 해체에 따라 일본과 중국은 ‘자국중심주의’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유동적인 동북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⁷⁾.

일본의 경우 냉전체제의 구축에 기대어 살아남은 군국주의자들이 정치·군사대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그에 따른 정부당국의 태도는 19세기까지 동북아시아를 식민했던 ‘중화제국’을 연상시키고 있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21세기를 규율할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탈냉전 후 동북아시아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내셔널리즘이 충돌하고 있으며 역사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①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전쟁

냉전체제의 해체를 맞이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전폭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공백을 극복하는 동시에 21세기 일본의 국가발전의 틀을 정립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외교관계의 변화에서 나타났다. 즉 1980년대 나카소네(中曾根) 정권 이후 구상·시도되었던 아시아 ‘중시’의 방침을 철회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21세기적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모색한다는 전략이 세워졌다.

1995년 이후 일본의 보수정치는 미국 일변도로 급속히 재편되어

- 6)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발전방향’워크숍에서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하중문 교수가 발표내용을 수정한 것임.
- 7)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는, 특히 ASEAN을 주축으로 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기술했다. 배궁찬,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2004년 8월, 3쪽.

갔다. 이러한 전환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나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내셔널리즘의 고양 및 대립의 증폭(대만 사태,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스로의 군사력과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55년 체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와중에서 취약해진 자민당의 정권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국익·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에의 호소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1999년의 국기·국가법 및 유사법제의 제정, 자위대의 위상 강화, 평화헌법 9조와 교육기본법의 개정등이 시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유엔 안보리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런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정황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국가(warfare state)’화의 길이며, 동아시아 공동체형성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인식된다.

패전이후 일본 우파의 일관된 염원이었던 전쟁국가로의 재편이 성사되게 된 데에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발족과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라는 새로운 선전물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96년 12월에 발표된 새역모 취지문의 일부이다.

주지하다시피 냉전 종결 후의 아시아 상황은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이든 독자적인 역사상이 있고, 각각 다른 역사의식이 있고, 타국과의 안이한 역사인식의 공유란 있을 수 없다. 특히 미숙한 내셔널리즘을 졸업한 우리나라와, 지금 막 초기 내셔널리즘의 폭발기를 맞고 있는 근린 아시아 제국이 역사인식을 서로 접근시킨다면, 필시 우리나라의 굴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이 파악하기에 냉전이 종결된 후의 아시아는 “유예를 허용치 않는” 위기 상황이며 위기의 실체는 다름 아닌 내셔널리즘의 충돌이

다. 이들에게는 내셔널리즘의 충동이 곧 일본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근린 아시아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궤기를 위해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새역모의 출현과 활동은 나카소네 식 아시아 중시 전략을 폐기하고 미국의 우산 하에 정치·군사대국화를 모색하려는 일본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 보수 진영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갈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사 전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새역모는 고립주의에 호소하고 있다. 즉 내셔널리즘의 고양기를 맞고 있는 근린 제국과 역사인식을 맞춰가다 보면 일본의 ‘굴복’을 초래한다는 취지문의 내용, “타국과의 건전한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자국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이 국체에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역설 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새역모의 고립주의에의 호소는 향후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② 중국의 ‘신패권주의’와 역사문제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개혁·개방을 통한 ‘붉은 자본주의’의 건설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세기말과 금세기 초에 걸쳐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중국 경제의 부침은 이제 세계경제의 동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대외 관계의 측면에서 달라진 국가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양안 관계의 긴장과 미국과의 국지적인 충돌까지 불사할 정도로 적극적 행보를 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중국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중국사회의 변화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잠재해 있다. ‘동북공정’이 그 대표적인 양상으로 중국의 ‘신패권주의’의 부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패권주의의 징후로서 최근의 외교정책 기조가 소극적인 도광양晦(韜光養晦)에서 적극적인 화평굴기(和平崛起)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탈냉전 후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중국은 분명 경제적으로는 20세기의 낙후성을 극복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파가 도발하는 역사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처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자극을 자국의 신패권주의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역사를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의 역사적 정당성은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제국주의의 흔적을 중국 대륙에서 일소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역사적 사실과 반일 의식이 결합된 국민적 공감대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결속하는 중요한 기제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국교 회복 시 일본의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과거사 갈등이 반복될 때 마다 선연적인 정치적 압박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1980년대까지라면 열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차관 지속을 고려한 현실적 타협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⁸⁾, 높아진 경제력을 겸비한 지금도 그리 변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코이즈미(小泉)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거듭했지만, 현실적인 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정상회담의 유보와 같은 외교관계의 경색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의 외교적 제후를 통해 일본을 압박·견제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역사전

8) 참고로 지적하자면 현 아키히토 천황은 1992년 10월 23일 중국 땅을 밟았다. 그 배경으로는 중일 우호의 증거로 중국 측이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若宮啓文, 『일본 정치의 아시아관』, 동아일보사, 1996, 240~264쪽 참조.

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수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중국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세기 전반의 침략전쟁에서 당한 역사적 경험은 중국 민중의 의식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일 충돌은 앞으로 더욱 속출할 것이며 그 파장도 증폭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의 반일감정은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격렬하고 통제도 불가능하나 적절한 해소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의 중국 정부이다. 동북공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중국’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지도 모른다.

(2) 동아시아에서의 역사화해와 한국의 역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한국·중국·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20세기에 벌어진 침략과 억압이라는 과거사의 흔적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는 20세기 전반에 일본제국 주위가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이 엄존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커밍아웃과 사죄·배상의 외침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태평양전쟁 말기에 중국 동북 지방에 유기한 세균무기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냉전 시대는 이런 일본제국주위가 남긴 역사적 과오를 직시하고 그 치유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시아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방해하고 지체시키고 말았다. 한반도 남쪽의 경우 친일파 청산 작업이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정권의 냉전 논리에 밀려 좌초되고 말았던 것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 과정과 맞물려 ‘과거사 청산’의 구호가 분출한 것은 냉전체제의 와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갈 한국의 국가적 목표는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공영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냉전 시대의 대립과 갈등이 남북 간의 경색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었

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탈냉전의 시대적 추세에 걸맞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안정화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급무이며, 이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은 시급한 시대적 화두가 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흔히 동북아 ‘중심국가’의 개념으로 구체화되며, 그 핵심은 중일 양대 세력의 ‘균형추’ 혹은 ‘연결고리’로 요약되곤 한다. 하지만 이 중심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중일 간의 마찰이 커지면 커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유럽 통합에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보여준 대타협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취약한 연결고리는 중국에 양쪽의 자장을 견뎌내지 못하고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은 이미 100년 전에 발생했다.

경제력의 성장에 힘입은 국력의 신장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의견도 많다. 국력의 신장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너무나 요원한 과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국력에 어울리는 국가의 ‘품격’을 추구하는 것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⁹⁾.

여기서 중일의 자국중심주의를 역으로 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패권 경쟁이 첨예화하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20세기 과거사청산의 연착륙에서 찾을 수 있다. 요컨대 동북아시아에서의 신파권주의의 저지는 지난 세기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적 과오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상호존중과 평화의 이념을 그 교훈으로 공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역사공동체의 중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9) 주일 대사와 외무차관을 역임한 스노베 료조(須之部量三)는 일본의 전후보상이 행해져야 할 이유로 “일본의 품격, ‘국가적 도덕’ 같은 것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와다 하루키 외편,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오름, 2001, 189쪽.

(3)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의 사례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 캠프는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역사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청소년들의 과거사 공유와 화해의 초석을 놓기 위한 출발선이다.

이 캠프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제1회 캠프는 한국에서 제2회 캠프는 일본에서 각각 한국과 일본의 중고생이 참가하여 개최되었고, 2004년의 제3회 캠프는 한국에서 새로 중국이 가세했다.

먼저 일본 관서 지역을 이동하며 열린 제2회 캠프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나라에서는 역사 속의 한일 문화교류에 대해 생각하고, 교토에서는 강제징용의 흔적이 있는 망간 기념관과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의 평화박물관을 견학하며 학생들이 준비한 평화포럼을 열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상기시키는 ‘귀무덤’과 윤동주 시비가 있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을 방문했다. 이어 조선통신사와 관련이 깊은 지역을 들렀고, 히로시마에서는 평화공원과 한국인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올해 8월에 열린 제3회 캠프는 1945년 8월 15일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을 전체 주제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나눔의 집’ 방문과 ‘수요시위’ 참가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제 강점기의 역사 체험, 도라산 전망대 관람과 같은 냉전 및 한반도 분단의 현장 체험, 그리고 참가자의 열띤 토론이 주된 프로그램이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의 문화체험을 가미하는 프로그램이 준비·실행되기도 했다.

이 캠프의 의의는 일차적으로 20세기 역사를 놓고 서로 얘기하고 같이 체험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역사인식의 공유에 있지만, 역사인식의 성급한 일치를 강박하려는 ‘유흥’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출발은 오히려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타자’를 확인하는 데서 있다 즉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사고영역 내지 관심 대상으로 들어와야 할 ‘타자’를 발견하는 일이며, 그런 타자와의 공존이 요구된다는 현실을 자각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만남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나타나는 동북아시아는 분명한 실체와 객관적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일단은 다음의 제2회 캠프 주최자의 인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오사카와 나라, 교토를 다니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만남과 갈등의 흔적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원폭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서 우리는 전쟁이 얼마만큼 인간을 폐해시키는지 그 실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을 규정했던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더 나아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의 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것입니다.¹⁰⁾

그리고 한중일 역사체험 캠프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대안 만들기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성사되었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 역학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과 계기, 인적 네트워크의 창출·확대를 목표로 하며, 한중일 시민사회 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 차례의 캠프는 한국의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더불어 개최되는 지역의 시민단체(교직원조합, 역사교사모임)가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적극 협력하는 형태가 취해졌다.

향후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 및 시민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 기금(이하 기금)’의 설립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시민사회 영역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이 조성된다면,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화해를 위한 민간교류를 진작시킬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각국의 시민운동의

10) 캠프에 관한 자료는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교과서운동본부)의 홈페이지 www.japantext.net 참조.

육성과 교류를 촉진하는 시민운동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교사, 연구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 간의 교류를 통해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토론과 연구, 교류를 진행하며, 역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갈등 해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여 과거사 청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청소년, 시민 간의 교류를 성사시킴으로써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물꼬를 터는 주도적인 역할을 짊어져야 한다.

2)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이해¹¹⁾

(1) 동아시아 문화의 개념

‘아시아 문화’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는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범위를 좁혀 동아시아로 이 개념을 국한시켜 규정한다면, 이 지역(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는 언어의 다양성과 민족적 복합성, 제설혼합주의(syncretism)에 바탕을 둔 다종교성 등의 특징과 의미를 지닌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식민주의 및 자생적이든지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든지 간에 내부에서 형성된 민족주의 등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상황과 긴밀한 관련 속에서 파생되었다.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식민주의(서구와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의 역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경험을 상기시킨다. 그로 인한 유산과 잔재 역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세기 중반

11)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워크숍에서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홍 석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에 피식민지의 광복과 독립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식민주의로부터의 독립은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겨 주었고, 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각 국가와 민족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회와 문화를 형성해 왔다. 식민주의로부터의 독립은 어떤 나라에서는 독자적 개발노선으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인근 국가와의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출해 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던 동아시아 지역을 문화적으로 한 데 묶는 접착제 역할을 담당했다.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던 특정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하나의 개념이나 범주로 통합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탄생한 것이 ‘동아시아의 문화’라는 개념이다. 동아시아 문화는 아시아적 가치와는 일면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동아시아를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일련의 가치, 예컨대 연장자 공경의 정신, 자아가 아닌 공동체 지향성,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이나 정서에 의존하는 태도 등과 동아시아의 문화적 성격이 동일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면 이들 내부에도 상당한 균열과 차이가 존재하며,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동아시아 문화란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성, 수많은 인구, 오래된 역사,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족 구성 등의 문화적 특징을 지닌 어떤 실체로 언급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정체성’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① 동아시아의 정체성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동아시아 정

체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될 수 있다(김광익 1998b: 3-6).

첫째로, 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 차원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실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때 동아시아에는 중국(홍콩과 대만까지 포함), 한국, 일본을 대표적인 국가로 하여 이들이 세계사 흐름의 주축이며 또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이들 국가 또는 지역 간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립과 확산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구도 내의 다자간 협력관계의 구축이나 경제 블록(economic bloc)과 같은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로, 동아시아에 대한 문학, 철학, 예술 그리고 역사해석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논의로서, 이것은 서구발명의 지식과 논리의 틀, 문학과 언어 및 사상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제기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을 상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동아시아의 전통을 망각하고서는 세계적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으며 서구 철학의 번역만으로는 위대한 철학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서구사회가 포기, 망각, 상실했던 동양의 것을 다시 찾는 길 모색하는 것으로, 서구식 근대화 및 발전주의 모델에 대한 학구적 반성일 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성 또는 자기 성찰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어 온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담론이다(진덕규, 1999 참조). 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실체와 본질의 규명이 핵심적 과제가 된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적 관심과 인문학적 추구가 모두 문화적 동질성 혹은 문화적

장치를 통하여 연결되고 가능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 또는 문화와 관련된 가족과 친족, 사회조직위 원리, 민족성 등의 문화적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 자아의 확립, 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문화의 동질성과 공통성의 개발을 추구한다.

최근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서구인의 시각 또는 서구인의 시각에 비친 이미지, 즉 오리엔탈리즘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제를 동아시아인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각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은 동아시아 지역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스스로의 생활, 즉 삶의 끈적끈적한 밀도와 의미를 포착할 때 비로소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②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에 대한 비판

‘동아시아 정체성’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하고 있다.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실제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요체는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필연성,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당위성으로 수렴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개 유교전통,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한자, 자연과 인간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자연관, 세계에 대한 유기체론적 시각, 개인주의에 우선되는 공동체 윤리, 선형적 사고방식 대신에 나선형 혹은 순환식 사고방식, 모순과 상극의 짝으로부터 상생을 실천하는 원리 등이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것들은 흔히 서구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들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요소로 간주된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 어떠한다는 것이 그대로 동아시아의 나라나 민족 사이에 그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

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현재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경제발전 위주의 근대화 속에서 문화적 통합에서는 중무장된 중화사상과 화이구도(華夷構圖)를 내세운다. 각종 중국 영화들은 은연중에 서양에게 빼앗긴 중화 정체성 또는 중국 및 중국문화의 자부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작, 배포되고 있다. 그 한 예로, <음식남녀2>라는 영화는 대만과 홍콩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의 중국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소위 총화적 단결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중국음식을 통해 상징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중국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사상의 강한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근대화 전략과 이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범주 안에서만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동의하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이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를 자기 국익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고려하고 있을 뿐 다른 아시아 국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면서도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과 국가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이질적인 문화 상호간의 혼성성(cultural hybridity)이 아니라 상호간의 배타적 경쟁심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독 국익의 문제를 가장 우선시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기 문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보이고 역할도 제대로 해 낼

수 없다”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문화적 범주를 설정할 때 주요 국가로 거명되어 온 한국과 중국, 일본은 그 동안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는 훈련을 쌓기보다는 각자 자기나라에만 충실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었다. 발전을 위한 경험을 서구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만 치중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각자의 벽을 굳건히 쌓고 수성에 충실한 것이 세 나라가 주축이 된 동아시아의 문화적 현실인 것이다.

(3)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동아시아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문화인류학자들은 이것이 세계를 너무 단순히 동아시아와 서구로 나누고 모든 문화적 요소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내적 다양성과 그 자체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직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동양의 문화적 원리에 대해 긍정 일변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정체성을 둘러싼 논의들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문화적 이질성이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될 뿐만 아니라 삼국의 공통성이 지나치게 쉽게 확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기를 거쳐 서로 접촉을 유지해온 지역이고, 특히 문화적으로는 주요한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 중국문화권, 한자문화권, 또는 유교문화권으로도 일컬어 온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이 지역이 지녀온 통합성은 역사상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그 문화권으로서의 장구성과 계속성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졌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통합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나 쉽게 동아시아의 세 나라가 역사상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와 접촉을 유지하고 문화적으로 밀접한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식으

로 너무 쉽게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관념성을 벗어나 구체적 실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아시아의 각 지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소규모 공동체운동이나 풀뿌리 운동(grass-root movement)과 같은 NGO를 통한 시민운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타문화(other culture)로서의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사회운동의 성격을 갖는다. 범세계적으로 세계 각지의 부족들간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새로운 부족주의를 고취하고 있는 이 운동은 세계 각지의 소수 민족간 연대라는 점에서 민족주의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운동은 중심의 논리를 강조하는 세계화의 논리와 전략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주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청소년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예술이 상호 교류되고 창출되는 현장을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동아시아 문화의 다원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국제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컨대 한국의 민주화, 인권, 평화운동의 경험을 동아시아 각국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시키고, 개방적 문화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동아시아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과 관점을 소지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3)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¹²⁾

(1)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발전: ‘아시아적 가치’의 변형

‘아시아적 가치’는 1960년대~80년대에 일본을 필두로 하여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고속성장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논의이다. 당시 이들 국가들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평등을 동반한 성장’, ‘압축성장’에 성공한 예외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구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호랑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까지 하였으며 적어도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있기 전까지 ‘아시아적 방식’(Asian way)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시아적 가치’란 아시아의 문화, 특히 유교문화를 개인보다는 집단, 변화보다는 안정, 그리고 경쟁보다는 합의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문화를 그 속성으로 한다고 본다. ‘권력교환 없는 민주주의’로서 후원-수혜(patron-client)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아시아적 민주주의’도 공동체의 한 표현으로서 정당화된다. 아시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비교적 성공한 일본의 경우도 관료-자민당-기업 이들 3자간의 동맹으로 이루어지는 ‘온건한 권위주의’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 사회에서 가산제(patrimonialism)¹³⁾는 이미 내면화된 실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아시아의 리완유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수상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소극적 방어를 넘어서서 이를 서구의 규범보다 더 우월한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치이

12)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박 은홍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요약, 정리한 것임.

13) 막스 베버(Max Weber)에 의해 정교화된 개념이다. 통치자가 국가를 사적인 가산(家産)인 것인양 지배하는 지배유형을 지칭한다. 베버는 지배형태를 합법적 지배,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가산제는 전통적 지배유형에 해당한다.

자 대안적 가치로 주장하면서 서구 가치, 서구 민주주의가 세계표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는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산제적 국가권력의 변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산제적 국가권력이 위기를 맞게 된 계기는 ‘성공의 위기’(crisis of success)와 ‘실패의 위기’(crisis of failure)로 나뉘어진다. ‘성공의 위기’란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가산제적 국가권력이 위기를 맞았던 예이다. 가산제적 국가권력이 이른바 ‘업적에 의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비교적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로에 몰린 정치현상을 가리킨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타이이 이에 속한다. ‘실패의 위기’(crisis of failure)란 사회경제적 침체를 배경으로 가산제적 국가권력이 변형을 겪은 예이다. 이는 국가권력이 ‘업적에 의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관리하는데 실패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업적에 의한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을 잘 관리한 결과 시민사회가 가산제적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있는 예도 있다.

(2) 동남아시아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변화는 민주화의 기초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현재까지는 경제발전 → 교육기회의 증대·매스 미디어의 활성화 → 사회의 복잡화 → 중간계층의 규모화 → 정치적 민주주의 추구라는 근대화의 인과적 경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사례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타이는 일단 민주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국가권력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에 인색하거나 때로는 가산제적 국가권력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①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의 놀라운 경제적 업적은 시민사회에 대한 강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우선 국가는 노동자들의 조직화 능력을 무력화시켰다. 사회주의 계열의 싱가포르노조협회(SATU) 간부들을 체포하고 친정부계 노조연맹인 국가노조회의(NTUC)의 독점적 지위를 제도화시켰다. 또한 정치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해 시의회와 지방정부를 해체시켰다. 그리고 1968년과 1969년에 걸쳐 외국인자본 유치를 목표로 경제 개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조의 교섭력과 행동반경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법과 산업관계법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1972년 국가임금위원회(NWC)가 설치되면서 공고화되었다.

그 결과 경제발전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노조조직율은 극히 낮았다.¹⁴⁾ 얼마 안되는 노조원들의 대부분도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가노조회의(NTUC) 산하 조합원이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시각에서 볼 때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준 ‘선물’이다. 국가에 의한 복지 공급은 당연히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충성의 대가이다. 국가는 시민사회가 넘어서는 안되는 참여의 범위를 제시한다. 또한 국가는 국내 언론과 매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국가보안법(ISA)을 적용하여 재판없이 구금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지식인, 정치인들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파산에 이르게 하는 소송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시민영역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공공주택 공급, 사회보험의 강화 등과 같은 시민사회의 동의를 확대하기 위한 복지정책과 병행되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 업적 중 가장 괄목할만한 분야가 주택공급정책이다. 1959년 인민행동당이 집권한 이래 공공주택 공급률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신장을 보였다. 이러한

14) 연도별 노조조직율을 보자면 1989년 16.20%, 1996년 14.15%, 1997년 13.87%, 1998년 14.12%, 1999년 14.66%이다(Sing 2002, 21).

배경하에서 ‘싱가포르 드림’(Singapore Dream)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은 시민사회의 확장과 참여보다는 소비, 승진, 안락한 경제적 삶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0년에 리관유에 이어 고척동이 수상직에 리관유의 장남 리셴룽(李顯龍)이 부수상직에 각각 오르면서 제한적이거나 시민영역의 자유화 조짐이 보였다. 1997년 6월 고척동 수상은 의회 연설에서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와 국가적 사안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였다. 그의 언급에 따라 21세기 싱가포르의 비전을 기획할 목적으로 ‘싱가포르 21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5개의 중심 이념이 설정되었다. 이 중에 ‘적극적인 시민권’(active citizenship)이 포함됨으로써¹⁵⁾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사가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5개의 중심 이념 중에 종족 정체성의 차이를 뛰어넘는 기회균등이 강조되고 있듯이 인민행동당 정부의 종족균형 정책은 비교적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다종족주의’(multi-racialism)는 국가에 대한 시민영역의 불만을 어느 정도 흡수하였다.

②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종종 있었다. 비대해진 국가부문의 재정악화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내경제가 추락 상태에 있던 1987년 11월 마하티르 정부는 국가보안법(ISA)을 적용하여 야당정치인과 비판적인 사회세력을 체포하였다.

국가보안법, 폭동교사법(1948), 인쇄 및 출판법(1948), 대외기밀법(1972), 계엄령 선포를 허용하고 있는 헌법 150조를 비롯해서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 독극물법, 노동조합령, 경찰법(1967) 등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15) 다른 4개의 중요 이념은 “Every Singaporean Matters”, “Strong Families”, “Opportunities for All” “The Singapore Heartbeat” 등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법적 장치로 인해 노동자 조직의 활동이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사회단체(NGOs), 정당, 상조회, 클럽 등은 모두 사회단체법(1966)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하에 있다. 국가가 사회에 대한 가부장적 개입방식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환경, 소비자 보호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특정 종족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인권문제를 이슈화시켰으나 언론의 관심을 얻지도 못하였다.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사회단체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하향식 의사결정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의 신질서(Orde Baru) 시기에 대중매체와 문헌들은 뻥짜 실라(pancasila)의 이름으로 정부의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었다. 30년 동안 신질서 정부가 취한 개입과 억압, 그리고 포섭은 인도네시아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독자적 능력을 철저하게 훼손하였다. 정당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조직, 조직노동자, NGO, 그리고 여타 사회세력들의 자율적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 단지 학생들만이 정치적 공백에 개입하여 개혁(reformasi)을 압박하였다.

1998년 5월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수하르토의 신질서체제는 극적으로 무너졌다. 이어 등장한 와히드 정권에서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가 절정에 이르렀다. 와히드는 ‘사회적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였다. 적극적 노동정책도 시행하였다.

와히드 정권 출범 이듬해 2000년에 들어와 폭탄테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와히드의 뒤를 이어 집권한 메가와티는 군부의 지지 하에 ‘인도네시아 단일국가주의’(NKRI)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효과는 일차적으로 주요 도시에 빈발하였던 폭탄테러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그러나 폰뜨라스와 도시빈민연대(UPC) 등과 같은 인권단

체들에 대한 정체불명의 민간인들의 습격은 계속되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실직자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4천만에 이르고 있다. 5세 이하의 절대빈곤인구가 4백50만, 그리고 1천8백만 유아의 25%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침체 일로의 사회적 상황속에서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군과 경찰의 노골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화 이행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세력이 민간정부를 통제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개혁을 명분으로 민주화 이후 적잖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이 국민협의회(MPR)이나 정당에 들어갔으나 기대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국가와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상당부분을 포섭해냄으로써 시민사회 스스로의 정체성과 투쟁의 방향성이 흔들리게 되었다.

포스트 수하르토 신생민주주의는 과거 군부권위주의 하에서 양성된 반(反)자유주적 이익집단들에 의해 포획되었다. 새로이 동맹을 맺은 정치 관료와 자본은 이슬람의 평등주의적 상징과 국가주의를 동원한다. 이른바 군부에 의존한 신생민주주의, 즉 군부후견주형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기관과 자원은 신질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약탈적 통제의 대상이다.

④ 타이

1980년대부터 타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빠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의 변화의 결실은 1997년 새헌법 제정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다. 새헌법은 행정의 안정성과 정책적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정치권력 상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리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견제장치로서 선거관리위원회,

16) 자카르타 소재 인권단체 임파르시알(Imparsial) 소속 오토(Otto)와의 면담 (2004/2/11).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에 보수적 혹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재계가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보수 정치체제가 보다 개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새 헌법하에서 처음 치루어진 2001년 1월 총선에서 통신사업분야의 최대 재벌인 탁신 친나왓의 타이사랑당이 신생정당으로서 유례없는 압도적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다. 출범한지 일년 이내에 탁신내각은 2백40만 농민들에게 채무지불 유예를 보장해주었다. 탁신정권의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1998년 중반부터 두드러진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위기에 놓인 농촌경제를 회복시키고 동시에 국내경제와 세계경제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복합노선’(dual track)을 반영한 것이다.

탁신의 사회정책의 목표는 기업가 주도의 성장을 방해하는 정치적으로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탁신내각이 추진한 농촌지역에 대한 연성 대부(soft loan), ‘한 마을 한 특산품’ 등은 타이인들이 보다 기업가적인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사회정책이었다. 탁신이 개발한 ‘CEO식 국가경영’ 이념은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방해하는 빈곤, 불평등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경로로 기대되었다. 탁신의 민주주의 노선은 사회자본 축적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는 탁신내각의 지지도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탁신내각과 타이사랑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국가를 교사(schoolmasters)로 만들었다. 탁신은 권위주의적 국가 통치하에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발전방식의 미덕을 공공연히 칭찬하였다. 탁신은 ‘법과 질서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탁신의 국가주도 시민사회(state-led civil society) 패러다임은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문제를 야기하였다.

‘민중헌법’이라고 칭한 새헌법 제정 이후 군경에 의한 고문이 확대

되었고, 2003년에 들어와 정부가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2,500명 이상이 법정 선고 없이 살해되는 등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¹⁷⁾.

‘아시아적 가치’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압축성장을 과시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의해 제기된 반(反) 서방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지구화(globalization)를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확산, 경제적으로는 시장중심의 영미형 자본주의의 지배를 각각 추동하는 전환의 물결이다. 이 때 ‘아시아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만 적대적일 뿐 시장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

자유시장의 반응에 매우 민감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억압은 이른바 시장자본주의에 우호적인 질서확보의 논리에 서있으면서도 국가권력은 반(反)서방의 논리로 ‘가산제’의 지속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를 불온시하고 있다. 가산제의 유산은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법치’(rule of law)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NGO)들은 이러한 가산제의 청산과 사회적 신뢰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억압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운동’(advocacy role)으로, 국가의 무능력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service provision)으로 각각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적 가치’가 정당화했던 가산제의 제도적, 문화적 기제가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 담론에 의해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들도 국제연대 차원에서 이러한 동남아시아 시민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시민사회와 일정 정도 친화력을 갖게 된 우리의 정부기구(GO) 역시 아시아지역협력을 위해 패러

17) 타이경찰청 대변인의 보고에 따를 것 같으면, 2003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개된 마약과의 전쟁 기간 동안 2,245명이 살해되었다.

다임을 전환하고 그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심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이러한 정치적 지형을 고려할 때 한국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의 하나는 우리가 성취해낸 시민 사회운동모델을 통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성취라 할 수 있다.

III.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현황과 문제

1. 국가간 교류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
3.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현황

III.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현황과 문제

1. 국가간 교류현황

국가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청소년 담당부처 간 약정이나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단체·시설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며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주관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외교부와 교육부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문화관광부, 2003 : 623-630).

1) 양국 정부간 교류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시작한 이래 2003년까지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청소년 교류사업을 시행해왔다.

정부간의 청소년 교류는 호혜평등 부담원칙(파견국:왕복항공료, 초청국:체재비부담)을 따르지만 일본과의 교류시는 초청국에서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고, 베트남교류단 방문시는 한국측이 왕복항공료를 특별 추가지원을 한다.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는 매년 초에 공개모집하고 대략 만 15-24세의 청소년 중 인품, 참가동기,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경력, 해외여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선발한다.

<표 III-1> 국가간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 및 교류현황

지역 구분	교류국가명 (주관기관)	최초 시행 연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3년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동북 아 국	일 본 (내각부)	1987	40명 15일간 (03년부터 30명)	483	576	1,059
	중 국 (중화전국 청년연합회)	19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333	358	691
	러시아 (교육부)	1994	30명씩 기간 미명시	55	59	114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2000	10명 10일간	44	45	89
동남 아 국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1979	15명 10일간	350	361	711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1996	24명 10일간	103	110	213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1999	20명 10일간	130	98	228
구 주 국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1993	15명 10일간	25	57	82
	핀란드 (교육부)	1996	3명,7명 격년 6일간	40	42	82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2003	10~20명 10일간	-	-	-
중 동 국	사우디아라비아 (청소년 복지처)	1981	10명 10일간	195	198	393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2002	10명~20명 10일간	15	17	32
중 남 미 국	칠 레 (청소년처)	1998	20명 10일간	1	17	18
	멕시코 (청소년원)	2001	10~20명 10일간	30	30	60
아프 리카 국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1996	15명 2주간 격년제	25	37	62
합계	15개국			1,829	2,005	3,834

출처: 문화관광부, 2003, pp.618~620.

위의 <표 III-1>에서 국가간 청소년 교류약정 체결시기 및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국가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① 한·일본 청소년 교류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일본의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명으로 총 1059명이다.

② 한·중국 청소년 교류

1992년 8월 한·중 양국간 정식 수교 후, 양국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 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간 청소년 교류양해각서 체결(1998년 11월)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중이다. 2004년 5월 중국주재 한국대사와 중화 전국청년연합회 상무부주석이 만나 두 나라 청소년 교류를 크게 확대하는 ‘한-중 청소년 교류약정’을 맺었다. 이는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 때 약속한 “두 나라의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위한 청소년 교류확대”차원에서 추진되었고, 이제까지 40명이 교환 방문해 온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한국이 매년 500명의 중국 청소년을 초청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기로 했다(www.mofat.go.kr/ko/info).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③ 한·러시아 청소년 교류

러시아와는 1994년 양국 정상간에 청소년 교류 실시를 합의하였으며, 1995년에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1994, 1995년에 교

류가 실시된 후 러시아의 경제사정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개되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55명, 파견 59명으로 총 114명이다.

④ 한·몽골 청소년 교류

2000년 2월 몽골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한하여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장과 2000년도 양국간 청소년교류를 합의하였다. 7. 24~7. 31 7박 8일간 한국청소년 대표단 15명을 몽골에 파견하였으며, 8. 31~9. 7 7박 8일간 몽골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졌고, 2001년 2월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4명, 파견 45명으로 총 89명이다.

둘째로, 동남아국가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① 한·말레이시아 청소년지도자 교류

1965년 한·말레이시아 문화교류협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주관으로 2002년부터 15명씩 10일간씩 7회에 걸쳐 사업을 확대하여 상호초청·파견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50명, 파견 361명으로 총 711명이다.

② 한·필리핀 청소년 교류

1995년 4월 한·필리핀 양국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 협력계획서를 체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필리핀의 교육문화체육부 주관으로 1996년부터 매년 10~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다. 1998, 1999년도에는 필리핀 측의 경제사정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교류가 재개되어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

은 초청 103명, 파견 110명으로 총 213명이다.

③ 한·베트남 청소년 교류

1998년 12월 1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사업추진을 합의함에 따라 1999년 7월 30일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베트남 국가 청소년위원회간에 정부간 청소년 교류약정이 체결되었다. 1999년도부터 매년 20명씩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베트남 청소년의 초청인원을 30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까지의 교류인원은 초청 130명, 파견 98명으로 총 228명이다.

셋째, 구주국가와는 헝가리, 핀란드와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프랑스와도 교류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한·헝가리 청소년 교류

정부간 교류확대 원칙에 따라 1992년 4월 서울에서, 한·헝가리 청소년 협력의정서를 체결, 매년 10명 내외씩 상호 초청·파견하고 있으며 동구권 국가와의 상호이해와 협력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헝가리 측의 사정으로 교류가 부진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기적으로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5명, 파견 57명으로 총 82명이다.

② 한·핀란드 청소년지도자 교류

북유럽국가에서의 청소년 교류 기반의 구축을 위해 1996년 4월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핀란드 교육부간에 양국간 청소년 협력협약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6년에 처음으로 양국의 청소년지도자 5명씩을 상호교환 한바 있다. 1999년 5월 청소년 협력협약각서를 갱신하여 2000년도부터 청소년전문가(3명) 또는 청소년예술가(7명)를 격년

제로 상호교차 교류하기로 하였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0명, 파견 42명으로 총 82명이다.

③ 한·프랑스 청소년 교류

한국과 프랑스는 2002년 4월 26일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 교류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도부터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에도 프랑스측의 사정으로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중동국가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① 한·사우디 청소년 교류

1981년 한·사우디 정부합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매년 1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파견하는 교류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소년복지처가 주관하며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중동아랍권 문화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95명, 파견 198명으로 총 393명이다.

② 한·이스라엘 청소년 교류

정부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대상국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은 2002년 4월 24일 양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청소년 교류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매년 10명씩 양국 청소년들을 교환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2년도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청소년지도자 5명이 방한하였고 우리청소년지도자 7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 있다.

다섯째, 중남미국가와는 칠레와 멕시코와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① 한·칠레 청소년 교류

1996년 12월 한·칠레 양국간 청소년 협력약정서를 체결, 우리나라 문화 관광부와 칠레의 청소년처 주관으로 1997년부터 매년 20명의 청소년을 10일간의 일정으로 양국을 상호방문 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5. 29~6. 3 5박 6일간 우리나라 청소년 지도자 5명이 칠레를 방문한 것 이외에, 1998년도부터 칠레 측 방한은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2001년에는 우리 측 청소년 10명을 파견한 바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1명, 파견 17명으로 총 18명이다.

② 한·멕시코 청소년 교류

2000년 11월 9일 서울에서 양국의 외무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문화 관광부 청소년국장과 주한 멕시코대사간에 청소년 교류약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2001년에 최초로 양국간 청소년 교류가 실시되었고,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0명, 파견 30명으로 총 60명이다.

여섯째, 아프리카와의 교류는 현재 모로코와의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① 한·모로코 청소년 교류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청소년 교류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1994년 3월 모로코에서 양국간 청소년 교류약정서를 체결, 양국은 1996년부터 청소년대표단을 매년 10명 내외 10일간 격년제로 교류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25명, 파견 37명으로 총 62명이다.

<표 III-2> 국가별 연도별 청소년 국제교류현황

지역 구분	교류 국가명	최초 시행 연도	초청 파견	1990 이전	1991 ~ 1995	1996 ~ 2000	2001	2002	2003	계
동북 아국	일 본	1987	초청	80	110	194	40	29	30	483
			파견	120	147	199	40	40	30	576
	중 국	1993	초청		60	158	37	38	40	333
			파견		81	157	40	40	40	358
	러시아	1994	초청		25	-	10	10	10	55
			파견		26	3	10	10	10	59
	몽 골	2000	초청			14	10	10	10	44
			파견			15	10	10	10	45
동남 아국	말레이지 아	1979	초청	147	72	55	15	31	30	350
			파견	158	20	58	15	30	30	361
	필리핀	1996	초청			44	20	19	20	103
			파견			50	20	20	20	110
	베트남	1999	초청			40	30	30	30	130
			파견			39	20	19	20	98
구주 국	헝가리	1993	초청		10	5	5	-	5	25
			파견		25	17	5	5	5	57
	핀란드	1996	초청			23	7	3	7	40
			파견			29	3	7	3	42
	프랑스	2003	초청							-
			파견							-
중동 국	사우디 아라비아	1981	초청	97	20	49	10	9	10	195
			파견	97	20	51	10	10	10	198
	이스라엘	2002	초청					5	10	15
			파견					7	10	17
중남 미국	칠 레	1998	초청			1		-	-	1
			파견			7	10	-	-	17
	멕시코	2001	초청				10	10	10	30
			파견				10	10	10	30
아프 리카 국	모로코	1996	초청			17	5	-	3	25
			파견			27	-	10	-	37
합계	15개국		초청	324	297	600	199	194	215	1829
			파견	375	369	652	193	218	198	2005
			합계	699	666	1252	392	412	413	3834

출처: 문화관광부, 2003, pp.618~621

<표 Ⅲ-2>를 기초로 지역간 교류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표 Ⅲ-3>을 작성하였다.

<표 Ⅲ-3> 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지역분포분석

지역구분	교류국가명	2003년 까지 교류총인원수	국가별 비율(%)	지역별 인원수(%)
동북아국	일 본	1,059	27.6	1,953 (50.9)
	중 국	691	18.0	
	러시아	114	2.9	
	몽 골	89	2.3	
동남아국	말레이시아	711	18.5	1,152 (30.0)
	필리핀	213	5.6	
	베트남	228	5.9	
구주국	헝가리	82	2.1	164(4.3)
	핀란드	82	2.1	
	프랑스	-	-	
중동국	사우디아라비아	393	10.3	425 (11.1)
	이스라엘	32	0.8	
중남미국	칠 레	18	0.5	78(2.0)
	멕시코	60	1.6	
아프리카국	모로코	62	1.6	62(1.6)
합계	15개국	3,834	100	3,834 (100))

출처: 문화관광부, 2003, pp.619~621.

<표 Ⅲ-3>에서 지역별 국가간 교류를 살펴보면 2003년까지 총 교류인원 규모로 볼 때, 동북아국가와의 교류가 5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남아국가 30%, 중동국 11.1%, 구주국 4.3%, 중남미국 2%, 아프리카국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가 각각 27.6%와 18%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동남아국가에서는 말레이시아와의 교류가 18.5%로 많은 편이고 중

동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3%로 타 국가들에 비해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정부교류는 교류비중이 80.9%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2) 양국간 교류 이외의 국가간 청소년 교류사업

양국가간 청소년교류사업 이외의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 사업과 ‘21세기 우정의 계획 일본 파견’이 있다.

(1) 한·아세안(ASEAN) 청소년 교류

한국과 아세안(ASEAN)은 청소년간의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 평화와 화합의 새천년을 향한 한·아세안 청소년들의 역할 모색 등을 위해 매년 초청·파견을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4년도에 한·아세안 합동야영대회를 처음 실시한 이 사업은 아세안과 우호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정례적인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아세안 청소년 교류조직위원회(사무국: 서울YMCA)의 주관으로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후원하에 ‘새천년을 위한 아시아 평화 만들기’란 주제로 “새천년 아시아 청소년 캠프”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청소년 및 지도자 120명, 한국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하여 ‘그룹별 문화활동’, ‘문화공연-아시아의 평화 만들기’, ‘문화학습 여행 및 스포츠활동’, ‘문화교류의 밤’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2001년에는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회의 주최로 한국과 아세안국가 청소년과 지도자 250여명(한국 130명, 아세안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1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청소년 교류”행사를 진행했으며, 각국의 다양한 풍물을 전시하는 ‘한·아세안의 날’, ‘한·아세안의 거리’,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는 ‘한·아세안 음식 페스티벌’등의 행사와 ‘21세기 실크로드를 창조해가는 한·아세안 청소년’이란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분과토의를 벌이는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문화부,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고, 2002년부터 외교통상부의 주관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한편 2002년 8월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44명이 아세안 6개국(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을 방문하였다. 2003년에도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 주최, 외교통상부와 아세안의 후원으로 “2003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청년 교류행사”를 시행했다. 한국과 아세안국가에서 185명(아세안 122명, 한국 63명)이 참가하여 ‘한국 문화의 밤’, ‘한국겨울스포츠 체험활동’, ‘한·아세안 선언문 채택회의’, ‘한·아세안의 날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2004년에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로 12일간 50명을 파견하여 아세안 청소년과의 토론회, 자원봉사체험, 문화유적 견학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제6회 한아세안 미래지향적 청소년교류” 초청사업으로 185명(한국-43명, 아세안 122명, 자원봉사, 운영요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용평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한·아세안청소년 교류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의해 왕복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이 지원된다(문광부, 2003: 628-629, www.mofat.go.kr/ko/news,

[\www.ncyok.or.kr/main/loveroom](http://www.ncyok.or.kr/main/loveroom)).

(2) 21세기 우정의 계획 일본 파견

한국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성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업시설, 문화 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건문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 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문광부, 2003: 628).

<표 III-4> 정부간, 아세안, 일본우정의 계획 청소년국제교류현황

		1990 이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정부간 교류	초청	324	34	34	74	62	93	111	107	93	136	153	199	194	1,614
	파견	375	44	63	83	86	93	146	105	102	128	171	193	218	1,807
	계 (¹)안은 교류국 수	699	78 (2)	97 (3)	157 (5)	148 (6)	186 (5)	257 (10)	212 (7)	195 (5)	264 (7)	324 (10)	392 (13)	412 (13)	3,421
ASEAN (10개국)	초청					60				108		120	120	120	528
	파견										24		44	44	112
우정 계획 (일본 파견)	초청	외교부 사업													
	파견	400 (⁸⁷)	100	100	96	100	98	100	97	99	100	91	97	-	1,478
합계	초청	324	34	34	74	122	93	111	107	201	136	273	319	314	2,142
	파견	775	144	163	179	186	191	246	202	201	252	262	334	262	3,397
	계	1,099	178	197	253	308	284	357	309	402	388	535	653	576	5,539

출처: 문화관광부, 2003, p.622, www.mofat.go.kr/ko/news

<표 III-3>에서의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지역분포와 <표 III-4>의 일본, 아세안과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볼 때, 문화관광부(일부 외교통상부 이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간의 청소년교류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며, 중국과의 교류도 계속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는 몇몇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의 국가적 교류와 함께 98년부터는 아세안회원 국가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의 국가차원의 청소년교류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다. 그러나 1990년 이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진 교류 총 인원이 5천명 수준에 불과하여 절대적인 교류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교류기간을 볼 때 10일 내외의 단기방문 프로그램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교류내용은 주로 대상국의 청소년 기관·단체·시설방문, 우정도모행사, 청소년관련 세미나 및 정보교환, 역사유적지 답사, 문화체험행사, 민박, 산업시설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류기간이 짧고 교류내용도 일반적이고 단순하여 상대국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현황

1)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간 교류현황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국제 교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접근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매결연 현황 및 국제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표 III-5>와 같다. 총 170개 자치단체가 440개 외국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표 III-5> 우리나라와 외국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 현황

2004년 3월 16일 현재

구분	우리나라 자치단체 수			외국 자매도시 수		
	계	광역시	기초	계	광역시	기초
계	610	16	154	440	131	309
서울	172	1	25	73	18	55
부산	65	1	10	27	16	11
대구	26	1	3	11	8	3
인천	31	1	4	13	9	4
광주	20	1	3	8	5	3
대전	30	1	3	13	9	4
울산	17	1	-	8	8	-
경기	177	1	26	75	14	61
강원	77	1	12	32	5	27
충북	38	1	7	15	5	10
충남	71	1	12	29	6	23
전북	51	1	8	21	4	17
전남	60	1	13	23	3	20
경북	89	1	12	38	7	31
경남	95	1	12	41	10	31
제주	31	1	4	13	4	9

우리나라 광역↔외국광역시, 우리나라 기초↔외국 기초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출처: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www.klafir.or.kr/new/c_2.htm)

먼저 자매결연 상대국 현황을 분석하면, <표 III-6>에서 처럼 전체 44개국 가운데 19개국, 즉 43.1%가 유럽 국가들이다. 동북아 4개국(9%), 동남아 3개국(6.8%)등 동아시아국이 15.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국이 4.5%, 9개의 중남미국이 15.9%, 그리고 4개의 아프리카·중동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자매결연 상대국의 지역별 분포와는 달리 우리나라 지자체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자치단체 수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440개 외국자치단체 중 50.6%를 차지하는 223개 자치단체들이 동북아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129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어서 44개 국가 중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는 실제 동북아 4개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대조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즉 동남아국(5%)이나 서남아·대양주국(4.5%)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지역 각 국가별 자치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19개 유럽국가에서 불과 57개(12.9%)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자매결연 상대국 현황

2004년 1월 29일 현재

지역구분	국가명	외국자치단체 수	광역	기초	국가수
동북아국	중국	129	16	113	1
	일본	78	14	64	1
	몽골	6	1	5	1
	대만	10	4	6	1
	소계(%)	223(50.6)	35(26.7)	188(60.8)	4(9)

지역구분	국가명	외국자치 단체 수	광역	기초	국가수
동남아국	베트남	11	6	5	1
	인도네시아	7	5	2	1
	필리핀	4	1	3	1
	소계(%)	22(5)	12(9.1)	10(3.2)	3(6.8)
서남아· 대양주국	파푸아뉴기니	1		1	1
	호주	14	5	9	1
	뉴질랜드	3	1	2	1
	인도	1	-	1	1
	북마리아나제도연방	1	-	1	1
	소계(%)	20(4.5%)	6(4.5%)	14(4.5%)	5(11.3%)
북미국	미국	80	23	57	1
	캐나다	7	3	4	1
	소계(%)	87(19.7%)	26(19.8%)	61(19.7%)	2(4.5%)
중남미국	멕시코	10	6	4	1
	파나마	1	1	-	1
	브라질	6	4	2	1
	칠레	2	1	1	1
	아르헨티나	2	2	-	1
	파라과이	2	1	1	1
	콜롬비아	1	1	-	1
	소계(%)	24(5.4%)	16(12.2%)	8(2.5%)	7(15.9%)
구주국	러시아	16	10	6	1
	카자흐스탄	2	1	1	1
	키르기즈	1	-	1	1
	우즈베키스탄	1	-	1	1
	프랑스	4	2	2	1
	독일	4	-	4	1
	네덜란드	4	1	3	1
	이탈리아	3	2	1	1
	스페인	3	2	1	1
	벨기에	2	-	2	1
	영국	2	1	1	1
	터키	5	4	1	1
	헝가리	2	2	-	1
	폴란드	3	3	-	1
	스웨덴	1	1	-	1
	불가리아	1	1	-	1
	덴마크	1	-	1	1
	오스트리아	1	-	1	1
	루마니아	1	-	1	1
	소계(%)	57(12.9%)	30(22.9%)	27(8.7%)	19(43.1%)
아·중동 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	3	-	1
	이집트	2	2	-	1
	모로코	1		1	1
	이스라엘	1	1	-	1
	소계(%)	7(1.5%)	6(4.5%)	1(0.3%)	4(9%)
합계(%)		440(100%)	131(100%)	309(100%)	44(100%)

한국: 170개(16시·도, 154시·군·구) 자치단체↔외국: 44개국 440개 자치단체

출처: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의 자료를 정리·분석한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의 대표적인 형태인 자매결연 체결은 정보교환, 우호친선, 경제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 도시 간 교류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체결된 자매결연 도시 간 국제교류의 유형은 크게 행정교류,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경제·통상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이 선정, 소개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자매결연 우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제교류가 경제·통상,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교류 또한 공무원, 전문가등 성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교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류분야로 추진된 경우는 우수 사례로 소개된 31개 사례 중 단 두 사례로, 청소년의 교류는 다른 형태의 국제교류에 비해 빈약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청소년교류는 교육·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학생들 상호간 초청, 방문이 이루어지거나 스포츠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지방자치단체간의 국가별 자매결연 우수 사례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우수 사례 가운데 나타난 청소년 국제교류의 내용을 동아시아국에 한정하여 살펴보겠다.¹⁸⁾

(1) 대상국: 일본

① 강원도 양구군 - 일본 치즈정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청소년, 민간단체교류
- 체결 연월일 : 1999년 10월 10일
- 체결 경위 :

'96년 양구군을 방문했던 돗토리현 관계관으로부터 치즈정을 소개

18) 이 부분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의 자매결연우수사례를 본 연구에 맞게 정리 요약한 것임(www.klafir.or.kr/new/gesil.htm).

받아 폭넓은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던 중, '97년 2월 돗토리현 초청으로 한·일 심포지움에 참석할 기회가 마련되어 양구군에서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등 4명이 돗토리현 치즈정을 방문하여 교류에 관한 기본협의를 했다. '97년 11월 양구군은 치즈정장과 의장, 공무원 등 5명을 초청하여 양구군의 주요관광지·산업지 시찰과 지역 특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양 자치단체간 우호교류추진 실무대표단을 구성 운영토록 협의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98년 9월에는 '97년에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자 치즈정부 시장과 교육장등 일행 5명이 양구군을 방문, 양측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상호교류, 상호경비부담 및 교류방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98년 10월에는 치즈정장의 초청으로 군수와 의장을 비롯한 의원, 교육장 등 13명이 치즈정을 방문하여 '99년 10월 강원관광엑스포에 치즈정장과 의원전원이 참석한 후 양구군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기로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99년 7월 30일부터 4박 5일간 양구군의 교사, 학생 등 1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교류단이 치즈정을 방문하여 홈스테이, 사물놀이공연, 스포츠교류, 예절시범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와 현장체험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귀중한 교류의 장을 가졌다.

'99년 10월 10일 양구군과 치즈정간의 우호제휴협정을 위한 조인식이 양구군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양 도·현지사, 치즈정의원, 지역기관단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제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21세기 환동해권 새시대』를 열어가는 동반자관계로 자리잡아 양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99년 7월 30일부터 4박 5일간 치즈정 방문을 통한 청소년 교류사업은 양 지역간의 교류의 장래를 한층 활성화 시켰다. 치즈정과의 청

소년 교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새로운 곳에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현장학습으로, 사물놀이, 스포츠교류, 학생간의 의견 교환회, 예절시범교육, 학교급식 체험활동, 명소, 사적지 견학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국제화에 대한 이해와 꿈을 키우고 안목을 넓혀 주는 좋은 경험의 산 체험 교류 활동이다. 청소년의 교류활동은 향후 민간교류 등 교류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교두보로서 발전적 교류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제주도 서귀포시 -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스포츠교류

■ 추진배경 :

서귀포시와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도시이자 일본 프로축구구단 ‘엔트러스 홉타운’으로 유명한 축구중심의 스포츠 선진도시인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縣) 가시마시(鹿嶋市)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양 도시 시민간의 상호 우호증진으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축구, 검도 등 스포츠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으로 서귀포시의 전략산업인 『국제 스포츠 메카 도시육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양 시간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경위 :

2001년 1월 일본 가시마시 월드컵 심포지움에 제주대학교 강영훈 교수가 참가하여 서귀포시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2001년 11월 가시마시 우찌다 토시로우 시장일행이 부산에서 개최된 월드컵 조추첨 행사 참석 차 서귀포시를 비공식으로 방문하여 제주 월드컵경기장을 견학하고 서귀포시와 가시마시간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서귀포시와 가시마시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하며 공식적으로 가시마시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시마시의 서한문을 접수하였다.

■ 교류추진현황 및 내용 :

- 양 시장 상호방문 : 각 1회
 - 강상주 서귀포시장 가시마시방문 : 2002년 1월 21일~1월 22일
 - 우찌다 토시로우(内田俊郎) 가시마시장 서귀포시 방문 : 2002년 2월 21일~2월 22일
- 가시마 엔틀러스 프로축구팀 아시안 선수클럽 동부 4강전 참가 : 2002년 2월
 - 장소 : 서귀포시립 제주월드컵경기장
- 어린이 미술교류 : 2002년 2월~2002년 6월
 - 대상학교 : 서귀포초등학교·가시마시초등학교
- 가시마시 무지개 어린이합창단 서귀포시 방문 교류 : 2002년 8월 29일~ 8월 30일
 - 장소 : 서귀포초등학교, 월드컵경기장
 - 참가 : 서귀포초등학생·가시마시무지개합창단 30명
 - 합창곡 : '저 무지개를 건너서' 한국어·일본어 번역 합창
- 월드컵 공모사진 전시교류 : 2002년 9월~10월
 - 장소 : 서귀포시립 제주월드컵경기장
 - 작품 : 입상작 67점(서귀포시 55점, 가시마시 12점)
- 고교 축구교류 : 2003년 1월 8일~1월 10일
 - 장소 : 서귀포시(중문상고운동장)
 - 참가 : 서귀고등학교 축구팀 vs 가시마시 고교축구선발팀
 - 내용 : 친선축구경기, 양 시 청소년 교류의 시간 마련

③ 제주도 서귀포시 - 일본 가라츠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산업, 경제, 교육문화, 과학기술, 체육교류
- 체결 년월일 : 1994년 9월 14일
- 체결 경위 : 서귀포시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을 견학하기 위해 '91년도에 가라츠시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라츠시는 '92년도에 시장 외 22명이 우호친선 목적으로 서귀포시를 방문했다. 또한 방문기간 중 가라츠시 시장 및 의회 의장 등이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93년도에 다시 가라츠시를 방문했을 때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의해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긍정적으로 검토, 상호친선 방문 및 시설 견학 등의 교류를 시작한 지 3년째가 되던 '94년 6월 양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그 해 9월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18명의 대표단이 가라츠시를 방문하여 가라츠시장과 함께 『자매결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함으로써 양 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일본 가라츠시 청소년사업의 일환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3회 403명의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져 일본 청소년들에게 서귀포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매도시인 일본 가라츠시 청소년사업방문단과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류를 통하여 양 시 어린이들의 우호를 깊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경상남도 남해시 - 일본 오구치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산업, 관광, 문화교류

■ 체결 연월일 : 1991년 10월 16일

■ 체결 경위 : '89년 5월 오구치시 자민당 국회의원이 한국 경상남도내의 시 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여 한일의원 연맹 지철민 의원의 알선을 통해 남해군과 연결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7차례에 걸친 상호 우호 친선방문과 실무협의를 통해 '91년 10월 16일 양 도시 대표가 함께 자매결연조인식에 서명함으로써 자매결연이 체결 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청소년교류는 '94년 이후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홈스테이(home-

stay)를 실시, 현재 6회에 걸쳐 131명의 청소년들에게 국제 감각을 익힐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청소년 학부모 홈스테이 까지 이어지고 있다.

'90년 이후 매년 1회 60~70점 정도의 초·중생 문예작품 전시회를 실시하여 양 도시민에게 양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국의 축제행사 등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축하해 줌으로써 상호우의를 다지고 있다.

⑤ 경상남도 - 일본 야마구치현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행정, 문화, 경제교류

■ 체결 연월일 : 1987년 6월 26일

■ 체결 경위 : 양 도와 현은 지리적 관계로 예부터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고 '71년 양 도현의 관광협회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83년 히라이지사가 4개현 어업사절단을 대표하여 이규호 지사를 방문, 어업관계 정보와 기술교류를 강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 도현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86년 2월 현의회 의장단이 자매결연을 제의해 음에 따라 '87년 6월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양 도현 대학생 교류는 '95년부터 야마구치현 주관으로 양 도현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는 사업으로, 합동세미나,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문화유적지 견학등 대학생 상호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주도로 시작하였으나, '9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⑥ 경기도 안양시 - 일본 도쿄로자와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무역, 행정교류

■ 체결 연월일 : 1998년 4월 17일

■ 체결 경위 : 지정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안양시와 상호보완성이 있는 유사한 도시를 찾고 있던 중 '96년 5월 안양시 한일친선협회 회장 등 임원단 3명이 일본 도쿄도와 인접한 위성도시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는 자매결연 사전 답사반, 시민축제 민·관 우호대표단 파견 등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년 10월째가 되던 '98년 3월에는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시의회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그해 4월 17일 도코로자와시 시장 및 의장 등을 비롯한 18명의 도코로자와시 대표단이 안양시를 방문하여 안양시장과 도코로자와 시장이 「자매결연체결서」에 서명함으로써 양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양 도시는 '99년 하계방학기간 중에 고등학생 16명의 상호민박연수(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상대국의 생활문화 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했으며, 초등학생 축구교류단 70여명이 상호 방문하여 6회씩 친선 경기를 가지는 등, 청소년 교류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⑦ 경상북도 안동시 - 일본 사가에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문화, 산업경제교류

■ 체결 연월일 : 1974년 2월 4일 (자매도시맹약선언서)

■ 체결 경위 : '72년 2월 5일 일본 센다이에 주재하는 장기안 영사와 사가에시에 거주하는 거류민단장 배웅삼씨의 제의에 따라 그 해 6월 4일과 9월 13일 양 도시 간 교류방문이 이루어졌다. 상호방문을 통하여 자매결연 체결이 논의되었으며 '74년 2월 4일 사가에시장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이 안동시를 방문, 안동시장과 사가에시장이 함께 「자매도시맹약선언서」에 조인함으로써 양 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양 도시의 주역이 될 학생간의 교류는 이 문화에 대한 선입감 없

이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교류효과가 크다. 초·중학생 회화 교환전시를 비롯하여 소년친선축구대회,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회화교환전시 3회 230점, 소년친선축구대회 6회,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 1회 등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활동을 실시했다.

⑧ 경상북도 영천시 - 일본 구로이시市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산업, 경제, 교육, 문화교류

■ 체결 연월일 : 1984년 8월 13일

■ 체결 경위 : '79년 5월 10일 영천시 라이온스클럽과 구로이시市 라이온스클럽 간에 교류가 시작되었다. '84년 구로이시市 방문단이 자매결연 업무 협의를 위해 영천시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교류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84년 5월 23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합의서가 교환되었으며, '84년 8월 13일에는 자매결연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젊은 학생 간 교류는 장래 양 도시를 젊어지고 갈 주역으로서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교류효과가 크다. 최초의 학생교류 활동은 중등학생 간 학예작품의 교환전시회였다. 현재까지 학예작품 전시는 총 11회에 걸쳐 약 1,800점의 작품이 상호교환 전시되었다.

한편, '85년 1월에는 구로이시市에서, 그 해 7월에는 영천시에서 중학생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⑨ 경상북도 경산시 - 교토부 일본 조우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도시계획교류

■ 체결 연월일 : 1991년 1월 22일 (자매도시 협약서 조인)

■ 체결 경위 :

'89년 11월 조우시 재일거류민단 친선방문단이 경산시를 방문한 후, '90년 6월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산시민 대표단 일행이 조우시를 방

문하여 우호교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91년 양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 사전 의회 승인을 얻은 후, '91년 경산시장을 비롯한 22명의 자매결연 조인단이 조오시를 방문하여 경산시장과 조오시장이 협약서에 조인함으로써 양 도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중학생 방문 등 21회에 걸쳐 281명의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조오 중학생 방문』은 매년 여름방학동안 2박 3일 일정으로 경산시 관내 중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학생들 간의 관심사항과 우정을 그리는 학생교류회를 가져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문화·체육 교류의 일환으로 시민체육대회·마라톤 대회 참가 등 민간인 방문을 통한 체육진흥활동이 14회에 걸쳐 441명의 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금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는 『유치원 어린이 그림교류전』을 개최 양시 100명의 어린이가 그림을 그려 교환하여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2) 대상국: 중국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 - 중국 홍구구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행정, 경제, 문화, 청소년

■ 연도별 교류내용 :

[2000년]

- 2000. 3. 27 ~ 4. 1 홍구구 대표단 동래구 방문
 - 부구청장(陳曉中)외 5명
 - 교류협의회 및 동래구관내 유관기관 행정시찰 등
- 2000. 5. 23 ~ 5. 29 동래구 청소년예술단 홍구구 방문
 - 全相濯 동래교육청 교육장외 22명
 - 홍구구 부흥고급중학교 공연장에서 현지공연활동(3회) 및 문

화 체험 등

- 2000. 10. 20 ~ 10. 26 홍구구 청소년축구단 초청
 - 國樑 교육국 부국장의 19명
 - 동래고등학교와 친선경기(2차) 및 선진지 견학 등
- 2000. 11. 20 ~ 11. 25 동래구대표단 홍구구 방문
 - 부구청장(金容洛)외 5명
 - 2001양 구간 우호교류 및 학교간 자매결연 협의
- 비교 : 4회 55명

[2001년]

- 2001. 4. 10 ~ 4. 16 동래구대표단 홍구구방문
 - 구청장(李圭祥)외 5명(공무원4, 일반2)
 - 양 도시간 2002년도 우호교류협약서 조인 및 학교간 자매결연 체결(동래고교&상해시52중학)
 - 행정 및 교육시설 현장견학 등
- 2001. 7. 25 ~ 7. 30 자매도시 홍구구인사 초청
 - 진검 주임 외 2명, 행정·문화시찰
- 2001. 8. 8 ~ 8. 14 동래구모범청소년 중국역사·문화 체험단 파견
 - 玄靜子 총렬여자중학교장외 17명
 - 중국역사 문화탐방, 한중학생토론회, 우정의 만남, 현지학생 가정 홈스테이 등
- 2001. 10. 11 ~ 10. 13 해외투자관련 시장조사
 - 기업인등 3명, 홍구구 현지 시장조사 및 행정협의
- 2001. 10. 19 ~ 10. 25 홍구구 청소년예술단 초청공연
 - 張富寶 부구청장급(감찰위원)외 29명 (공무원7, 예술단23명)
 - 2002년도 양 구간 교류사업추진 실무협의
 - 동래고 & 52중학간 2002년도 교류사업협의서조인
 - 동래총렬제 기간 중 공연활동(2회 관람객1,200명), 총렬여자중

학교 및 명동초등학교 학생 협연

- 2001. 12. 7 ~ 12. 10 합작투자 협의
 - 기획감사실장 외 기업인 2명, 현지투자실무협의
- 비고 : 6회 63명

[2002년]

- 2002. 3. 4 ~ 2002. 3. 10 동래구대표단 홍구구 방문
부구청장(章榮勳)외 5명
 - 2002년 4월 홍구구 문화주간대비 준비사항 협의 및 행정, 문화 도시 현장견학 등
- 2002. 4. 14 ~ 4. 20 홍구구 문화주간 대표단 초청
 - 姚宗强 부구청장의 24명(공무원7, 문화단24) - 『중국민간소장유물 특별전』개최(140종 228점, 7일), (북천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관람객 15,000여명)
 - 충렬여자중학교 & 신북교초급중학 자매결연 조인
 - 선진지 견학(시내, 서울) 등
- 2002. 9. 25 ~ 9. 30 동래구 문화주간 대표단 파견
 - 구청장(李珍福)외 21명(공무원6, 전통무용단16)
 - 홍구구 다운로 · 곡양문화관 공연3회 관람 8,000명
 - 상해시 현지기업인과 상해시 무역촉진회 및 홍구구 대외경제위원회와의 간담회(기업지원협조)
 - 다운로 문화명인가 한국음식점 개업 축하
 - 기타 상해시정부전시관 등 도시개발 현장 견학
- 비고 : 3회 53명

[2003년]

- 2003. 5 ~ 6월경 동래구대표단 홍구구 방문
10명 7일, 전문분야 행정교류

- 2003. 3 ~ 4월경 홍구구장(程光) 일행 초청(2~3명)
- 2003. 10월경 홍구구대표단 초청
10명, 7일, 전문직공무원 행정교류
- 2002. 12월말 교류현황 총계 : 20회 251명
 - 행정교류 : 9회 49명
 - 문화교류 : 2회 47명
 - 경제교류 : 3회 14명
 - 청소년교류 : 6회 141명

[특기사항]

- 학교 간 우호교류 활성화
 - 동래고등학교 & 상해시 제52중학
 - 양 학교간 교환 축구경기(99년 방문, 2000년 초청)
 - 자매결연 (2001. 4. 12 동래고교) 조인
 - 동래교 교사 5명 자매학교 방문(2002. 11. 21 ~ 11. 24)
 - 2003. 4월경 52중학 교사 5명 초청
 - 2003. 7 ~ 8월경 양교 학생 홈스테이 실시
 - 2003. 11월경 동래고교 축구팀 홍구구 파견
 - 충렬여자중학교 & 상해시 신북중학교
 - 충렬여중 교장 홍구구방문(청소년대표단 중국문화탐방 2001. 8월)
 - 자매결연 (2002. 4. 15 충렬여중) 조인
 - 충렬여중 교사 5명 자매학교 방문(2002. 12. 3 ~ 12. 8)
 - 2003. 10. 10 ~ 10. 15 신북교 교사 5명 충렬여중 초청
- 양 구간 문화주간 개최
 - 홍구구 문화주간(2002. 4. 14 ~ 4. 20)
 - 중국민간소장유물특별전시회 : 140종 228점 전시
 - 동래구 문화주간 (2002. 9. 25 ~ 9. 30)

- 전통민속무용단(단장 엄옥자) 현지 공연(3회)활동
- 현지기업인 상해시 무역촉진회 방문, 간담회 등

② 경기도 남양주시 - 중국 상주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경제, 과학, 행정, 문화, 교육, 보건, 인적교류
- 체결 연월일 : 1999년 9월 21일(자매결연합의서)

■ 체결 경위 : 남양주시는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1996년 10월 31일 남양주시 부시장 외 3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주재 총영사로부터 강소성 상주시의 추천 제의를 받고 양 도시가 본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7년 3월 31일 상주시장의 공식초청에 의하여 남양주시 부시장 등 8명이 상주시를 방문하여 상주시와 교류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1999년 6월 11일 상주시 우호방문단이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교류방안을 논의한 결과, 1999년 9월 21일 상주시에서 남양주시장과 상주시장 간에 『자매결연합의서』를 정식으로 조인하게 되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양 시는 2001년부터 청소년 상호교류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협의서를 체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상대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청소년들간의 우의증진을 통해 준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③ 경상남도 거제시 - 중국 용정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경제, 민간교류
- 체결 연월일 : 1996년 9월 21일

■ 체결 경위 : 1996년 5월 27일 거제시장이 홍콩 방문시 중국 용정시 대외경제 합작국장을 만나 자매결연 의사를 교환, 거제시 정책개발자문위원과 용정시 대외경제 합작국장이 양 도시를 상호방문 후,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1996년 9월 14일 자매결연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거제시와 용정시의 자매결연 체결이 이루어졌다.

■ 청소년교류 내용:

거제시 장승포 청년회의소와 용정시 청년연합회간에 자매결연을 체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거룡우호공원과 윤동주 생가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④ 경기도 이천시 - 중국 경덕진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경제, 무역, 과학기술, 농업, 관광교류

■ 체결 연월일 : 1997년 7월 16일(자매결연협정서)

■ 체결 경위 : 이천시의 특화산업인 전통도자기산업을 매개로 한 세계 유수의 도자기 도시들과 교류를 추진하던 중, 1996년 1월 19일 중국 경덕진 도자대학의 교류 제의로 수차례 서신을 교환, 1996년 3월 21일 경덕진시 외사관 공실 부주임과 이천시 문화공보실장간의 교류 의사를 타진했다.

1996년 9월 이천시장의 초청으로 경덕진시 부시장이 이천을 방문하고, 1996년 11월 예는 경덕진시장의 초청으로 경덕진시를 방문하는 등, 상호방문이 이루어 졌다. 그 결과 1997년 7월 16일 이천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경덕진시를 방문, 우호관계협의를 체결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1999년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 기간 중 10박 11일동안 중국 경덕진도자대학의 예비작가 15명이 이천시를 방문 축제참관 및 이천의 산업체 시찰, 도자기제작, 한국대학생과들의 세미나를 통하여 양시간의 학생교류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향후 격년제로 양 도시 학생상호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3) 대상국: 몽골

① 경기도 남양주시 - 몽고 울란바트로시의 자매결연

■ 주요 교류분야 : 행정, 경제, 농업, 문화, 교육교류

■ 체결 연월일 : 1998년 10월 28일

■ 체결 경위 : 19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소속 위원들과 지역유지 26명이 우리나라 통일정책 홍보를 위하여 몽고를 방문하던 중,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져 시의회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중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몽골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 남양주 몽골장학회를 발족했다.

■ 청소년교류 내용 :

양시는 2001년부터 청소년 상호교류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청소년분야 교류협력 협의서를 체결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함으로써 상대도시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청소년들간의 우의증진을 통해 준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고 있다.

3.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현황

1) 청소년단체 교류현황

<표 III-7>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이 2003년도에 실시한 국제교류 사업의 교류상대국을 분석한 것이다.

<표 III-7> 2003년 국가별 청소년단체 교류사업 수

지역구분	교류 국가명	사업 수(%)
동북아국	일본	85
	중국	26
	몽골	1
	대만	1
	중국·일본	2
	소계(%)	115(69.7)
동남아국	ASEAN 또는 동남아	5
	태국	7
	필리핀	4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3
	캄보디아	1
	소계(%)	20(12.1)
서남아·대양주국	호주	3
	뉴질랜드	2
	인도	1
	스리랑카	1
	소계(%)	7(4.2)
북미국	미국	6
	캐나다	1
	소계(%)	7(4.2)
중남미국	멕시코	1
	소계(%)	1(0.6)
구주국	유럽 6개국	1
	북유럽 5개국	1
	영국·스위스	2
	소계(%)	4(2.4)
세계 각국	미국·캐나다·영국	1
	국제 또는 세계	9
	자매결연국	1
	소계(%)	11(6.7)
합	계(%)	165(100)

출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웹진‘오늘의 청소년’의 2003년도 청소년 단체 프로그램을 분석·정리함(www.ncyok.or.kr).

<표 III-7>과 같이 청소년단체들의 국제교류 대상국은 지역적으로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는 전체 165개 교류사업 중 85건으로 국제교류의 과반수가 넘는 51.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작년 한 해 26개 교류사업(15.8%)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남아국 전체(12.1%)와의 교류보다도 많은 것으로, 청소년단체들이 주관하는 국제교류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들의 국제교류 사업 가운데 아프리카·중동국과의 교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 대상국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교류의 형태는 파견이 130건, 방한(또는 초청)이 31건으로 대부분의 교류가 해외 파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8>, 부록 참조).

<표 III-8> 2003년 청소년 단체 국제교류형태

교류형태	사업 수
파견	130
방한(또는 초청)	31
파견·방한	1
불명	3
합계	165

<표 III-9> 2003년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내용

교류내용	사업 수(%)
탐방 또는 견학	45(27.3%)
문화활동(스포츠·수련활동 포함)	19(11.5%)
토론회·회의·워크숍	7(4.2%)
봉사	3(1.8%)
홈스테이	8(4.8%)
학습 또는 연수	9(5.5%)
복합활동 ¹⁹⁾	43(26.1%)
분류불가	31(18.8%)
합계	165(100%)

<표 III-9>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실시된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을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 가장 많이 실시된 사업은 탐방·견학으로 전체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복합활동이 26.1%, 문화활동이 11.5%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복합활동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1건(48.8%)의 교류사업은 탐방·견학과 문화활동이 결합된 것으로,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탐방·견학과 문화활동, 이 두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교류내용으로는 학습·연수가 5.5%, 홈스테이가 4.8%, 토론회 등 회의참석이 4.2%, 봉사활동이 1.8%로 조사되어 탐방·견학이나 문화활동 교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이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의 명소를 견학하거나 캠프활동을 하는데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19) 복합활동은 하나의 교류사업이 <표 III-5>에 제시된 여섯 가지 교류내용(①탐방·견학, ②문화활동, ③토론회·회의·워크숍, ④봉사, ⑤홈스테이, ⑥학습·연수) 중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탐방·견학과 연수, 문화활동과 홈스테이 등).

2) 비영리단체 교류현황

(1) 국제워크캠프기구(International Workcamp organization)²⁰⁾

국제워크캠프기구(International Workcamp Organization:IWO)는 ‘워크캠프’ 전문단체로서, 전 세계의 워크캠프, 자원봉사 단체 등 국제 교류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단체이다. IWO는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비정부기구이며, 각국의 워크캠프 전문단체 및 자원봉사 단체들과 함께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우정과 상호 이해, 그리고 교류와 협력, 봉사를 통한 국제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WO의 목표는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 활동을 창조·증진시키고, 참가자들 스스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우정과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참가자들과 지역사회와의 국제적인 상호 이해, 상호연대의 증진을 꾀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한국과 한국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한국의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IWO의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해외에서 개최되는 워크캠프에 한국인 자원봉사자 파견, 둘째 국내에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국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워크캠프 개최, 셋째 시민, 학생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IWO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 및 세미나 추진, 넷째 캠프 정보책자와 뉴스레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정보 관련물의 제작 등이 있다.

1999년 국내에서 외국인 2명, 한국인 5명이 참가한 1개의 워크캠프를 개최한 이래 급속하게 성장해온 IWO는, 2004년에 13개의 국제워크캠프와 8개의 중장기 프로그램(예정참가자 수-외국인 100명, 한국인 100명)을 개최할 예정이며 해외 프로그램에도 약 800명의 젊은이를 파

20) 이 부분은 국제워크캠프기구(www.i.or.kr)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분석 정리한 것임.

견할 계획이다. IWO는 현재 전 세계 54개국 85개 국제 NGO단체들과 협력을 맺고 워크캠프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캄보디아 등에 협력단체들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는 IWO가 제공하고 있는 워크캠프의 개요와 2004년에 실시될 예정인 국내·외 워크캠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워크캠프(Workcamp)

워크캠프(Workcamp)는 국제자원활동(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의 시초이자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서로 다른 인종과 사상,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 스폰서에 의해 2~3주로 기획되어지는 프로젝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일하는 것이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교전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국제워크캠프가 시작되었다.

워크캠프의 활동분야는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고고학 조사, 농업, 건축, 수리 등 매우 다양하며, 세계 각지에서 실시된다. 대부분의 워크캠프는 여름기간에 발생되며 10~30명의 참가자들로 이루어진다. 이들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며 일하게 되고, 식사숙박은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참가비를 낸다.

워크캠프 참가자격은 18세 이상(단, 캠프의 성격에 따라 나이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질 수도 있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가능한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정과 유연성, 도전의식이다.

워크캠프에서 하는 일들은 보통 일주일에 5~6일을 일하며 하루에 6~8시간 정도 일한다. 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²¹⁾

21)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 워크숍에서 염 진수 워크캠프기구 소장이 발표한 내용임.

- 사회복지 프로젝트 : 노약자, 장애인, 아동들과 관련된 봉사
- 농업 프로젝트 : 유기농장에서 과일따기, 씨뿌리기, 황무지 개간사업 등
- 문화 프로젝트 : 문화 기구 및 단체 등과 함께 축제 기획 및 운영, 건전문화 캠페인 등
- 예술 프로젝트 : 예술 단체와 함께 예술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보조업무 등
- 환경 프로젝트 : 환경보호, 정화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활용, 자연보호관련 활동, 국립공원정화, 휴양림 조성, 나무심기, 동물보호, 생태마을조성,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움 등.
- 교육 프로젝트와 직업 교육 : 특정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동조를 얻기 위한 활동(예: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차별 등). 지역단체나 민간사회단체들과 함께 프로젝트 기획, 운영 및 세미나, 캠페인 활동 등. 특히 개발도상국내에서 컴퓨터, 영어 등 수업활동이나 교육자료 제작 등.
- 긴급구조 및 복구 활동 : 비전문적인 분야의 구조 및 응급활동, 산불조심 캠페인, 재해지역에서의 복구활동 등.
- 지역개발 및 건축 활동 : 주로 미개발국가에서 실시. 우물파기, 정화수 공급 등. 개발 국가에서도 낡은 건축물 보수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함.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센터나 수련장 개보수, 미술관이나 박물관 유지 및 보수 등.
- 평화와 화해 조성 활동 : 대화의 증진과 갈등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경우 워크숍과 노동을 병행한다. 노동은 미래협력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작업으로 보수 혹은 개선 사업 등.
- 문화유산 보호/보존 활동 : 전문가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활동.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하며 비전문가인 지역민들이 간단한 지역문화 보존 및 보

호 활동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문화유산의 보수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 및 전수 등임.

워크캠프에서의 숙박은 주로 유스호스텔, 청소년센터, 농장, 학교, 마을회관, 해당 단체의 시설 또는 텐트나 사찰 등을 이용하는데, 때로는 야영생활도 하며, 개인침낭을 가지고 가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사는 대부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준비하므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부식은 참가자들이 시장이나 가게에서 직접 사오는 경우도 있고, 주최단체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캠프 공용어는 영어(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됨)이고, 여가시간활용은 자원봉사자들이 토론회나 짧은 여정의 여행을 기획하거나 지역주민 또는 학교들과 함께 파티, 운동회 등을 함께 열기도 한다.

기타사항으로 항공권과 여행자보험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캠프에 개별적으로 도착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므로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하고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다. 여권 및 비자에 관하여는 여권은 개인적으로 신청,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가 필요한 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개인적으로 비자 신청과 발급을 받아야 한다.

□ 2004년 IWO 한국 국제워크캠프 사례

■ ‘맹산’ 국제워크캠프

- 코드 : IWO-51
- 기간 : 5월 1일~14일
- 참가인원 : 10명
- 주제 : 환경
- 내용 : 맹산은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도시근교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성남시 분당주민들의 시민운동으로 살아남은 조그마한 야산이다. 맹산에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자연을 배우게 하기 위한 <맹산 자연학교>가 개교하

였다. 참가자들은 이곳 맹산 자연학교의 나비정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나비정원은 이곳 맹산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맹산의 생태계를 더욱 살아있는 도심속의 자연자원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주말에는 맹산 주말자연학교에 보조교사로 참가하여 아이들과 함께 자연과환경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인간의 삶속의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에 되짚어 주는 환경보호활동을 펼치게 되며 맹산 자연학교가 탄생되게 된 배경을 통해 성숙한 주민의식을 배우고 그 취지에 동참하는 생활속에 자연보호 활동 실천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붓다’ 국제워크캠프

- 코드 : IWO-5
- 기간 : 5월 15일~28일
- 참가인원 : 15명
- 주제 : 문화 & 행사
- 내용 : 올해 4회째 개최되는 붓다 국제워크캠프는 불교계의 가장 큰 경축일인 부처님 오신날 축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조계사에 머물면서 새벽예불, 노작, 다도, 예법 등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오신 날 축제 준비로 연등 만들기, 연등달기, 축제장 세팅 등 다양한 준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 ‘간디’ 국제워크캠프

- 코드 : IWO-72
- 기간 : 7월 22일~8월 5일
- 참가인원 : 10명
- 주제 : 문화 & 청소년

- 내용 : 간디학교는 한국의 대안학교로서 학교와 학생의 신뢰 그리고 자발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인간 양성의 실천 및 확대를 위한 교육 방침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이다. 참가자들은 매년 개최되는 여름 계절 학교에 보조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보조교사 활동은 5일 동안 진행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간디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삶의 기본 생활양식을 배우며 몸소 체험하게 하는 활동을 돕는다. 또한 각국의 문화를 알리고 배우는 이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며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지리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간디 철학으로 교육 받은 순박한 학생들을 만나 자연 친화적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명진’ 국제워크캠프

- 코드 : IWO-73
- 기간 : 7월 25일~8월 9일
- 참가인원 : 12명
- 주제 : 어린이 & 사회사업
- 내용 :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명진학교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다. 명진워크캠프는 장애인들과 연대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명진워크캠프의 참가자들은 명진 시각장애 특수맹인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름프로그램 및 사회 적응 훈련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각국 문화소개 프로그램을 통한 체육 및 사회교류활동을 돕는다. 또한 평상시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맹인학생들과 소풍 및 시내방문 그리고 문화활동을 보조한다. 참가자들은 맹인학생들의 활동범위를 넓혀 주고 사회와 타문화 및 국제 사회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환경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장애자를 위한 복지제도

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국제자원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활동이 될 것이다.

■ ‘노화’ 국제워크캠프

- 코드 : IWO-74
- 기간 : 7월 25일~8월 8일
- 참가인원 : 15명
- 주제 : 문화 & 청소년
- 내용 : 노화워크캠프는 주민 7,000명이 거주하는 완도지역의 작은 섬 노화도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이 섬의 아이들에게 섬 밖의 다른 사회와 세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섬 아이들과 함께 이 문화 교류프로그램을 통한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인드형성을 돕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축제에 참여하며 섬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의 작은 섬 지역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국제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섬마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북돋아 주는 귀중한 지역자원봉사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 2004년 해외 워크캠프(중장기 프로그램)

■ ‘태국’(GW)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참가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3~6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하며, 연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언제든지 참가가 가능하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은 현지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므로 참가시작일로 추천한다. 현지 참가비는 3개월 이내일 경우 20,000 Baht(대략 465 Euro)이고, 3~6개월일 경우 10,000 Baht이다.

<표 III-10>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 요약

코드	주제	주요 자원봉사 활동	참가 인원
GW-H1E GW-H1J GW-H1S	교육	지역 주민들에게 영어/일본어/주제별 교육 GWH1-E 영어 교육 GWH1-J 일본어 교육 GWH1-S 기타 주제별 교육 (자원봉사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조정됨)	3~5
GW-H2	생태-관광	현지인들과 환경 친화적인 지역 개발 사업 연구 및 활동	3~5
GW-H3	사회사업	자원 봉사자들의 흥미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회사업 : 예) 노인, 아이들,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3~5
GW-H4	환경	환경교육과 관련된 활동 (학교나 사찰, 환경 캠프의 자원 봉사자들, 선생님들 혹은 행정 공무원, 축제 운영, 연극, 소풍 등)	3~5
GW-H5	연구	외국 학생들을 위한 사회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자연, 사회환경, 학문적으로 풍부한 현지 대학,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통찰, 연구)	3~5
GW-H6	농업	농부들과 함께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사짓기 (농산물, 과일재배 등)유기농 농사 개발 및 새로운 농작물 실험	3~5
GW-H7	예술	예술분야 교육 및 연습, 지역 마을 축제 기획,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클럽 기획	3~5
GW-H8	수공예	지역 주민과 환경 친화적, 실용적인 수공예품 개발, 지역 장인들과 태국 전통 기술을 보존하면서 여러 다른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꿈 이룰 수 있는 자	3~5
GW-H9	청소년활동	NVDA (아시아 자원봉사개발 네트워크: Network for Voluntary Development in Asia)클럽과 함께 사회 자원봉사 활동 개발	3~5
GW-H10	살림/조리	Greenway 본부에서 스태프와 함께 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을 위한 음식조리 및 본부 활동 지원. 전통 타이음식을 배우면서 자원봉사 함.	3~5

출처 : 국제워크캠프기구(www.1.or.kr)

□ 아시아지역 국제워크캠프 교류 현황²²⁾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정보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 III-11>은 아시아의 국가별 국제워크캠프 개최현황을, <표 III-12>는 아시아의 지역별 국제워크캠프 개최현황을 보여준다.

<표 III-11> 아시아 국가별 국제워크캠프 개최현황 (1999-2004)

국가 \ 년도	단체 수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한국	2	22	30	30	23	13	7
일본	2	42	39	41	44	39	34
중국	1	12	0	0	0	1	2
몽고	1	17	12	11	9	1	0
필리핀	2	5	1	1	0	0	3
인도네시아	1	16	10	6	2	2	2
말레이시아	1	2	0	1	0	0	0
태국	1	118	95	122	88	52	8
베트남	0	0	0	0	0	1	0
캄보디아	0	2	2	2	1	1	1
인도	4	81	31	10	9	12	6
네팔	2	70	55	52	50	27	23
파키스탄	1	0	1	1	0	0	0
방글라데시	2	12	4	8	9	8	4
스리랑카	1	3	2	2	1	2	2
피지	1	1	3	1	1	0	0
호주	1	5	5	2	4	4	2
국가수(15)		15	14	15	12	13	12
단체수(23)		23	22	21	18	18	17
프로젝트수		408	290	290	241	163	94

22)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워크숍에서 염 진수 워크캠프기구 소장이 발표한 내용임.

<표 III-12>에서 보다시피 이 기간 내에 개최된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의 수는 괄목할만 하게 증가하였다. 1999년에 94개였던 프로그램의 숫자는 2004년에는 408개로서 4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두드러지게 증가한 국가들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몽고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네팔 등의 서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해외단체의 개입으로 한 지역의 청소년협회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워크캠프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표 III-11>과 <표 III-12>를 볼때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활동이 미약해 보이는 것은 국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외부 의존에 의한 지역개발이나 외부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오히려 해외파견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지역 교류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선도국가로서 한국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하며 향후 어떤 식으로 한국을 아시아에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III-12> 아시아 권역별 국제워크캠프 개최현황 (1999-2004)

년도 국가	단체 수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동북아시아	6	93	81	82	76	54	43
동남아시아	5	143	108	132	91	56	14
서아시아	10	166	93	73	69	49	35
태평양아시아	2	6	8	3	5	4	2
	23	408	290	290	241	163	94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큰 폭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아시아에 대한 관심 : 오리엔탈리즘, 대안적 삶에 대한 관심 증대
- 유럽탈피 욕구 : 유럽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과 이문화에 대한 호기심 증대
- 신뢰 및 안정성 : 협력단체에 대한 신뢰와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확보
- 해외파트너쉽 증대 : 유럽단체들의 해외 협력파트너쉽 증대 필요
- 한국, 일본의 협력 :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이점으로 참가자들의 수요 증대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시아국가 중 일본의 워크캠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참가할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럽인의 경우도 일본에서의 워크캠프 참가를 매우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표 II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인은 서아시아보다는 동아시아 워크캠프에 참가하기를 선호한다.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이 없었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의 프로그램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인도, 네팔을 제외하고는 서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은 배낭여행지 선호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는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표 III-13> 아시아 국제워크캠프 한국인 파견현황 (1999~2004)

국가 \ 년도	나라별 총인원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일본	156	32	46	39	19	13	7
몽고	24	14	4	4	2	0	0
필리핀	57	41	2	0	14	0	0
인도네시아	8	7	1	0	0	0	0
태국	92	49	6	20	13	4	0
인도	43	25	4	5	7	2	0
네팔	24	12	4	2	4	2	0
피지	9	0	3	6	0	0	0
호주	2	1	0	1	0	0	2
연도별 총인원		181	70	77	59	21	9

<표 III-14>에서 한국의 국제워크캠프 참가를 위해 입국하는 아시아 참가자는 대부분 일본인이다. 국제워크캠프가 개최되고 있지 않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자비를 들여 한국에 와서 국제워크캠프에 참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워크캠프기구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항공료를 지원하여 적은 인원이지만 참가자들을 초청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참가자들이 현지에 참가해서 얻고 배우고 오는 것이 많은 만큼 혜택의 일부를 환원하자는 차원에서 상호교류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14> 한국 국제워크캠프의 아시아 참가자현황(1999-2004)

국가 \ 년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한국프로그램 참가한 아시아 국적 참가자 수	24	29	30	25	9	1

(2) 지구촌 나눔운동(Global Civic Sharing)²³⁾

지구촌 나눔운동(Global Civic Sharing:GCS)은 1998년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 NGO이다. GCS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단순 원조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교육, 농촌개발, 문맹퇴치 등 개발협력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구촌의 빈곤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환경보존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GCS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선진국과의 교류에 치중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미약했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역할을 훌륭히

23) 이 부분은 지구촌 나눔운동GCS(www.globalsharing.org)의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GCS에서 전개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협력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 의료활동 등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 베트남 : 한국-베트남 협력센터 설립
 - 직업훈련 - 목공훈련, 컴퓨터 교육
 - 암소은행 - 가난한 농가에 생후 6개월 된 암송아지를 분양, 양육하게 한 다음 3년 후 재생산된 암송아지를 되돌려 받음(순환형 소액대부 신용사업, Micro-Finance Credit)
 - 꿈나무교실 - 교육환경이 열악한 베트남 초등학교에 새로운 책걸상을 제작, 지원하고 사후 방문 수리서비스 실시
 - 농촌지역개발 - 초등학교 건축, 보건소 건축 및 의약품 지원, 마을문고 사업
 - 대학생 봉사단 - 봉사, 한국어교육, 문화교류 및 탐방프로그램 실시
 - 주민문화센터 설립
 - 지구촌의지보조기 지원사업(IPOP)
- 몽골 : 몽골 유목민돕기 캠페인 실시, GCS-자르갈란트센터 설립
 - 주민교육 - 주민학교, 주민워크샵 및 공동체의식교육, 농축산 기술지도, 신용협동조합 교육, 이동도서관
 - 소득증대 - 가축은행사업, 사료 재배 및 채소 재배, 사료펀드, 신용협동조합, 축산시범농장 설립
- 필리핀 : GCS 아리엔다 교육센터 설립
 - 빈민아동지원 - 공부방 및 예비학교 운영, 도시락 지원
 - 주민공동체지원 - 기초 조사 및 기록·평가, 기초 주민교육 워크숍 및 주민학교 운영

■ 중국 :

- 용정시 민정국 장애인컴퓨터 교육센터 설립 - 장애인 컴퓨터 교육 실시, 취업알선
- 사랑의 집 컴퓨터 교실 - 용정시 연변 조선족자치주 교육국 부설 사랑의 집은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결손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위탁교육 및 보호시설이다. 이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실시
- 연길시 장애인컴퓨터 교육사업 진행

■ 이라크 :

- 지역개발센터 설립 : GCS 바그다드 지역개발센터(2004. 8월 예정), GCS 나시리아 지역개발센터(2004. 8월 예정)
- 소득증대사업 - 컴퓨터, 영어직업훈련 과정
- 주민교육사업 - 보건위생, 인권, 여성, 재정교육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방역, 마을환경정화, 지역 교육환경개선
- 문화교류사업 - 한-이라크문화교류, 한국봉사단파견, 마을간 축구시합개최
- 지역지원사업 - 의약품, 생필품, 장애인지원 등 물품 지원

■ 캄보디아 : 지구촌 의지보조기 지원사업(IPOP)

둘째,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으로 빈곤개발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구촌이해와 나눔 교육을 실시한다.

■ 지구촌시민학교

- 국제이해교육 명예교사양성
- 베트남-몽골 스터디 투어
- 명예교사 활동
- 방학특별프로그램 - 몽골문화촌 탐방
- 인터넷시민학교 운영
- 한일 국제이해교육 워크숍

■ 지구촌 대학생 프로그램

- 지구촌 대학생 캠프
- 대학생 탐방단
- 대학생 봉사단
- 대학생 포럼

셋째, 조사연구와 정책제언(Advocacy)으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연구와 정책을 제언한다. 예를 들어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구가 있다.

넷째,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로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식량, 피난처, 식수, 보건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한 필요를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이라크 긴급구호와 이란 지진피해 난민 돕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GCS의 수입원은 회비와 후원금, 기업과 단체후원금, 정부보조금, 프로젝트지원금, 사업수입 등 다원적이며 그 형태도 금전뿐 아니라 필요한 기자재나 물품후원, 전문 인력이나 자원 봉사인력 지원 등 다양하다. 다음은 GCS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국제교류사업을 소개한 것이다.

□ 대학생교육프로그램

2001년부터 시작된 대학생교육프로그램은 GCS 개발교육사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인류가 직면한 빈곤, 환경위기, 인권과 평화문제에 대한 학습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여 보다 넓은 안목과 세계관을 가지고 지구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대학생들을 글로벌 리더십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범지구적 대학생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1년 연속프로그램으로 지구적

이슈를 알려주는 지구촌대학생 캠프, 제3세계 현실을 체험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및 탐방단, 대학생운동을 창출하는 지구촌대학생포럼 등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지구촌대학생 캠프와 대학생 해외봉사단 및 탐방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지구촌대학생캠프

행사의 일정은 매년 6월 중 2박 3일이며 참가대상은 남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지구적 이슈에 관심은 있으나 배우고 생각할 기회가 없던 학생들 중 장차 NGO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로 200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지구적 주요과제에 대한 전문가 주제 강의, 국제NGO 및 국제기구종사자와의 대담 그리고 제3세계에서 활동했던 봉사단원 및 전문가들과 조사활동 기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 지구촌대학생해외봉사단/지구촌대학생탐방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이슈에 대한 안목을 넓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촌 해외봉사단과 지구촌대학생탐방단을 모집하고 제3세계로 파견한다. 이들 대학생들은 개발도상국에 나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며, 현지 젊은이들과의 교류, 현지사회/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지구촌시민교육과 문화탐방을 통해 개도국의 현실을 이해하며 협력과 우호의 대상으로서의 지구촌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간다.

파견일정은 매년 7월 2-3주간이며, 파견대상은 지구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대학생캠프를 통하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학생 50명이다.

파견국은 베트남 하떠이성 탕오아이면(현지주관:한-베 협력센터)와 몽골 울란바타르시 자르갈란트(현지주관:GCS-자르갈란트센터)이며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제기구, 국제NGO, 원조기관 방문
- 주제조사워크숍
- 베트남/몽골 사회, 문화강의 및 현장방문
- 양국 대학생교류활동
- 현지주민을 위한 영상제, 음악제 개최
-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
- 노력봉사활동

(3) 태평양 아시아협회(Pacific Asia Society)²⁴⁾

태평양 아시아협회(Pacific Asia Society)는 “태평양 아시아는 영원한 이웃”이라는 기치아래 지역적, 역사적, 관습적으로 가까운 태평양 아시아를 하나의 선린적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화합 및 협력 증진을 이루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된 순수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청년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하여 청년지도자 포럼 개최, 태평양 아시아 네트워크 결성, 청소년교류프로그램 실시, 태평양 아시아 회의 및 이벤트 주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봉사과 헌신으로 새로운 미래질서 창조에 앞장선다는 창립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PAS의 재정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위시한 정부기관의 도움과 독지가들로부터의 후원 및 지원금, 일반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PAS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청년해외봉사단(PAS Youth Corps)

PAS는 장차 태평양 아시아시대를 이끌어갈 각국 청년학생간의 친선교류를 위해 태평양 아시아지역에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해외봉사단(PAS Youth Corps)을 파견하여 청년국제교류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단은 방학(하계, 동계)을 이용

24) 이 부분은 태평양 아시아협회(www.pas.or.kr)의 내용을 분석 정리함.

하여 태평양 아시아지역 각 나라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능교습,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청년해외봉사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봉사단의 선발자격은 전국의 남녀 대학(원)생(단, 대학교 4학년생은 참가불가)²⁵⁾이며, 봉사단원 선발시기는 1년에 2차례 매년 5월과 10월에 모집한다. 선발과정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각 대학(일정한 지원금 부담)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추천하면 협회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한 후 학생들의 희망, 전공, 특기, 지역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봉사활동 기간은 방학기간 중 3주간이다.

봉사지역은 동북아시아(중국, 대만, 몽골, 러시아), 동남아시아(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태평양 아시아 지역 내 12개국이 대상이다.

활동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이해의 국제화교육과 봉사정신의 함양
- 청년국제교류 및 친선협력의 증진
- 국제적 지역전문가 및 차세대 국제지도자 양성
- 한국의 문화, 상품, 서비스 소개를 통한 교역 및 투자의 증진
-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시설을 위한 노력봉사
- 한국어, 영어, 컴퓨터(인터넷 포함) 교습활동
- 한국음식, 의상, 영화, 태권도, 사물놀이 등 소개
- 한국 바로 알리기(한국역사, 사회, 문화 등) 사업
- 현지 언어 및 문화습득 등 현지화 교육
- 현지 청년들과의 토론과 친교
- 현지 언론 및 지도층과의 접촉

25) 4학년 학생은 취업관계로 출국 전 포기사례가 많아 팀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됨.

청년해외봉사단원들은 해외봉사기간 중 개인별, 팀별로 ‘일일 기록부’와 ‘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단원들은 귀국 후에도 ‘PAS청년연합’의 회원으로 ‘PAS청년포럼’ 및 지역학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PAS는 봉사단 파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의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질과 팀웍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봉사단원 중 모범적인 팀과 개인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 청년지도자포럼(PAS Young Leaders Forum : PYLF)

태평양 아시아지역 내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지역 각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 차세대를 이끌어갈 최우수 대학생들을 선발,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대학생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세미나와 토론, 국내 산학기관 견학, 상호문화 소개 등을 통해 장차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3개국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0년 11월 서울에서 첫 포럼을 개최한 이래로 매년 한 번씩 여름(또는 가을)에 시행하고 있다.

■ 태평양 아시아 네트워크(The Pacific Asia Network : PAN)

PAS는 각국 지도자급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태평양 아시아 네트워크(PAN)를 결성하여 정부나 재계가 수행하기 어려운 역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화 정책에 따라 증대되는 국가간 이동의 장벽을 낮추며,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간 현안들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인적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PAN의 활동은 태평양 아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역 내 지도급 민간단체간의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각국 지도층 및 차세대 지도자들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친밀한 인맥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역내 각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PAN 국제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 청소년교류프로그램(Pas Youth Exchange Program)

이 프로그램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일환으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 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가대상은 PAS 청년 해외 봉사단 활동지역의 대학생으로서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상호협력, 공동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봉사단 단장이 추천한 자이다. 참가자는 7박 8일동안 한국가정에 머물면서(홈스테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고궁 및 민속촌 견학, 국회 및 산업체를 방문하게 된다. 이 교류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한국 대학생의 국제화 교육, 그리고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회의 및 문화 이벤트(Conferences & Cultural Events)

- 태평양 아시아 국제회의(The Pacific Asia Conference)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공동의 번영을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태평양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등 장기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 태평양 아시아 퍼레이드(Pacific Asia Parade)는 아시아계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잔치이다.
- 용평 드래곤 밸리 다이알로그(Dragon Valley Dialogue)는 태평양 아시아 지역 각국의 대표적 지성인을 초빙, 수일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1995년과 96년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4) 한중미래숲²⁶⁾

2001년 한중 미래숲 조성 청년봉사단 사업계획에 관한 비공식 모임 발족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2년 공식출범한 미래숲센터는, 매년

26) 이 부분은 한중미래숲(www.futureforest.org)의 내용을 분석 정리함.

대학생 청소년 봉사단 선발 및 파견, 리더십 캠프 개최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의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한중 미래숲센터는 한중 양국간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와 이해를 통하여 건전하고 진실한 우의를 다지는 것을 기초로 상호 문화 교류와 아울러 황사방지활동 등 자연보호에 이르기까지 상호협력을 하도록 지원하여 긴밀한 양국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첫째 한중 양국의 황사 및 사막화의 방지를 위한 미래숲(우의림) 교류행사 추진, 둘째 한중 양국간 청소년교류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미래지도자의 양성, 셋째 한중 양국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문화 탐방과 공동의 환경봉사 기회의 부여로 양국 청소년의 우호친선과 유대의 강화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래숲센터는 동북아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동북아 국가간의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학술, 출판 활동 및 다큐멘터리 제작
- 동북아 국가내 산림 관련 단체간의 인적·물적·정보 교류 및 산림환경네트워크 운영
- 동북아 국가내 산림 문제의 이해 증진을 위한 산림환경교육사업
- 산림황폐화 및 산성우, 사막화 등 동북아 지역내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한중 미래숲은 인재발굴 및 양성, 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교육사업, 지속적인 환경의식 고취, 대 중국 네트워크 강화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한중 미래숲의 주요활동이다.

- 한중 미래숲 상호 교류 방문(연례행사)
 - 한중미래숲 청소년 중국방문
 - 중국 대학생 대표단 방한

- 중국 56개 민족청년지도자 방한
- 중국 초등학교 대표단 방한
- 다양한 주제의 캠프 개최 및 외부인사 초청강연
 - 미래숲 동계 리더쉽 캠프
 - 대학생 산촌 워크캠프
 - 외부인사 초청강연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리더쉽 세미나
 - 중국어 교육 세션
 - 중국관련 주제발표
- 기타사업
 - Seoul Green Trust행사 자원봉사
 - 미래숲과 함께하는 청년의 밤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미래숲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교류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중미래숲 상호 교류 방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래숲의 정회원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중 미래숲 참여를 위한 회원선발 및 행사안내이다.

■ 2004 한중미래숲 3기

이 행사는 한중 양국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발굴, 양성 및 미래지도자 들간의 우호증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황사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우의림 조성 및 환경 봉사와 협력을 증진하며, 양국의 경제, 문화탐방 및 연구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상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생 및 동등학력 인정 교육기관 재학생 (휴학생 가능)
-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한중 관계에 기여할 학생

- 외국어(중국어, 영어)에 뛰어나고, 국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봉사 경험이 많은 학생
- 문화, 예술, 미디어, 정보화 네트워크 분야 특기자(약간명)

모집인원은 120명(산림, 환경 전공자 포함, 120명 모집 후 60명을 3월에 중국에 1주일간 파견)이며, 중국 캠프 파견 60명은 워크숍 및 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발한다.

중국파견 캠프기간은 2004년 3월 16일 ~ 22일 6박7일간(본인부담 30만원 내외)이다.

방중 주요 프로그램은 첫째 중국의 사막화 지역 나무심기와 산림 환경 체험, 둘째 문화 역사 현장 탐방(서안, 난주, 북경), 셋째 중국의 미래 지도자들과의 교류(북경대, 청화대 학생들과의 문화공연 및 토론)로 이루어져 있다.

정회원 선발은 첫째 국제적 미래 지도자 자질; 교내외 리더십 활동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구사 능력, 둘째 동북아 산림, 환경,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 셋째 사회봉사, 자원봉사, 동아리 등 특기활동 경력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중국 방문단 선발 기준은 정회원 중 워크숍 참여도 등 미래숲 참가활동과 미래지도자 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방중단에 한하여 구성비를 살펴보면, 동일 대학교 출신은 최대 10% 이내로, 동일 전공자 출신은 최대 15% 이내로 선발한다.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은 한중 문화청소년 센터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5) 자연과 청소년(Youth in Nature)²⁷⁾

‘자연과 청소년’은 1999년 2월에 설립된 청소년 야외교육 연구원으로서,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 및 전문지도력의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안목과 자신감을 기르며,

27) 이 부분은 자연과 청소년(www.camp114.org)의 내용을 분석·정리함.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주로 청소년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캠프를 연구해 온 캠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캠프의 건전한 발전과 보급, 캠프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영, 지, 체의 조화로운 성장, 캠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교육정보의 원활한 교환 등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과 청소년’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니어 리더스 클럽

- 피터팬 클럽(Peterpan Club) : 자연교육을 테마로 하는 어린이 조직활동(초1~초3)이다. 피터팬 클럽은 지구촌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세계문화를 체험하는 주기활동(2년)과, 아시아 여러 나라 어린이들과의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런티어 클럽(Frontier Club) : 탐험캠프를 테마로 하는 청소년 조직활동(초4~중3)으로, 자연 속의 생활을 통해 ‘자연과 인간은 조화로운 하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회원들은 연간 6, 7차례의 자연생활을 체험하게 되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활동(생태계, 서바이벌, 백제문화탐방, 空地海 모험 등)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고, 끊임없는 도전활동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과 체력을 키워 나가게 된다.
- 캠프지도자 협의회(Camp Leader's Club) : 청소년 캠프지도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원봉사자 모임으로 청소년캠프 프로그램개발, 지도력개발, 정보교류, 국제지도자교류 등을 목적으로 1999년 조직되었다. 상임위 정기모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캠프는 물론 전문지도력이 부족한 청소년단체 캠프에 지도력을 지원하는 봉사체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국제교류활동

ICCP(International Camp Counselor Program) : ICCP는 미국 뉴욕 YMCA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1959년 시작되었으며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교육적인 국제교류프로그램이다. 매년 세계 60여개국의 청년들이 미 전역의 청소년캠프 프로그램에 자원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도자간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하는 캠프지도자(카운셀러와 관리지도자) 교류프로그램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리쿠르트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연과 청소년’이 유일한 공식협정기관으로 ICCP의 지도자 선발 및 파견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10월경, 설명회와 선발과정을 통해 참가자를 확정하고, 익년 6월~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 Little Asian Camp : Little Asian Camp는 아시아의 어린이들(초 2~중3)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의 화합과 ‘평화로운 아시아 만들기’를 다짐하는 미래지도자들의 캠프이다. 2002년 제3회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어린이와 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2003년부터는 베트남, 몽골 등 저소득국가 어린이들의 참가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통해 점차 참가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Little Asian Conference : Little Asian Conference는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모여 아시아의 공동과제인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가상의 ‘아시아 청소년의회’ 활동이다.

■ 지구촌 문화스케치

지구촌 문화스케치는 청소년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현지인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역사, 생활상 등을 체험하고 바른 세계관과 문화인식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일체 배제하고, 생활 깊숙

이 살아 숨쉬는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독립된 일정으로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청소년들과의 교류행사를 위해 방문국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구촌 문화스케치는 2001년 중국 베이징문화탐방을 시작으로 베트남, 터키·그리스, 일본 등 15개국의 고대문화, 적도문화탐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름과 겨울방학, 학기 중 자율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연 2-3회 실시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 한·중 청소년 교류팀

한·중 청소년 교류팀은 ‘한·중 간의 우애와 신뢰를 위한 바탕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문화교류와 언어 이해를 위한 다양한 상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국제캠프’와 ‘한국어교실 개설(북경)’, ‘한·중·일 청소년교류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2004년 3월~2005년 1월이며, 기초언어교육은 월 2회, 일요일에 이루어진다.

북경국제캠프는 2004년 8월 2일~13일이며, 언어연수일정은 8월 2일~10일(발음훈련, 기초중국어, 문화탐방)이고, 국제캠프 일정은 8월 11일~13일(Little Asian Camp-한·중·일 청소년 문화교류)이다. 강사진은 북경 황성군 소학교 교사진 및 한국인으로 구성된다.

서울국제캠프는 2005년 1월 4일~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제캠프는 1월 4일~7일(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언어훈련)에 이루어지고, 민박은 1월 7일~9일(중국어린이 한국 가정 민박지원)로 예정되어 있다. 참가대상은 초등3년~중3년 남·녀이며, 모집인원은 15명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참가비용은 190만원(클럽회원 185만원)이며, 기초언어교육/북경국제캠프/서울국제캠프 경비 일체(항공료, 보험료 포함)를 포함한다.

‘자연과 청소년’은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원하는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문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대외협력사업과 아시아 저소득국가 어린이들의 취학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웹 사이트를 통한 캠프정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6) 동북아 평화 연대

‘동북아 평화 연대’는 1996년도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내 재외동포사업국으로서 그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돕기, 중국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 문제해결 등 재외 동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범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와 동북아시아시민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에 평화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착지원사업, 문화교류사업, 경제교류지원사업, 의료협력사업, 정책연구 및 홍보기획사업을 하고 있다. 이중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연해주·연변 교육문화센터운영, 동포 유학생 네트워크, 중국·러시아 컴퓨터·인터넷 기반지원, 동북아 청년캠프와 민족현장투어, 고려인 문화의 날 행사지원, 민족문화계승발전 지원등을 하고 있다.²⁸⁾

■ 러시아·중국 교육문화센터 운영(연해주·연변)

- 재러 교육문화센터: 2001년 10월부터 재러 연해주 동포 및 교민 사회를 위해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개관했으며 한글교실, 컴퓨터실, 독서실, 강당 및 전시실 등의 교육시설 운영을 통해 고려인 사회 및 지역 러시아인의 문화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센터 회원 및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다.
- 재중 교육문화센터: 2002년 6월부터 연길에 중국동포사회를 위해 개관되었으며, 컴퓨터 재활용 센터를 개소하여 교육현장의 컴퓨터의 수리 및 관리지원,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컴퓨터·인터넷 재교육 지원 등 21세기 정보 사회와 동북아

28) 이 부분은 동북아 평화연대(www.wekorean.or.kr)의 내용을 분석·정리함.

경제·문화권의 주역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 동북아 평화연대의 교육교류 협력사업²⁹⁾

중국 교육 교류 실행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물자 지원, 교사·청소년 모국 연수, 학술회의, 장학 사업 등 여러 형태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런데, 동포 사회 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선족 교육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교류 협력을 바라고 있다. 이에 2004년, KBS 사회교육방송, 서울교육대학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동북아 교육 지원 단체 협의체(가칭) 구성이 추진 중이며 각 실행 단체의 역할을 보다 특성화해 협력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즉, 2004년도 중국 동포 교육 교류 실행 사업에서 단체별 기반을 상호 공유하여 도서보내기 지원 주관은 공영 기관인 KBS 사회교육방송, 교사 교류 및 연수 주관은 교육 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학술 교류 주관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진행함으로써, 중국 동포 교육 교류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교류 연대 사업은, 조선족 학교의 중국내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다언어 환경과 정보화 환경에 대한 교류 협력 지원을 통해 조선족 학교의 신성장 모델 창출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인 “2004년도 도서 보내기”와 “정보화 환경 지원”, “민족 학교 교장·교사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4년도 도서보내기 운동³⁰⁾

2004년 5월~2004년 12월동안 이루어지며, 한국에서는 KBS, 서울

29) 이 부분은 2004년 10월 ‘동아시아 공동체형성과 청소년교류 발전방향’워크숍에서 동북아 평화연대 김관준 부장이 발표한 내용임.

30) 2004년, 6년차 지속 사업

교육대학교, 동북아평화연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도서 모으기, 포장 및 운송(한국내 운송, 해상운송), 경비조달 등을 담당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서관에서 중국내 통관, 책의 분배, 분배된 후의 확인과정 등을 담당한다.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우수리스크 (고려인)교육문화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책의 종류는 어린이 동화책, 위인전, 과학·기술서적, 문학작품, 일반 교양서적 등(중국의 경우 종교서적, 이념서적, 낡은 도서는 제외)이며, 규모는 약 10만권(20FT컨테이너 3대분)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도서관에 50%를, 동북3성 민족 학교 30여 곳에 나머지 50%를 분배하며, 조선족학교 10여 곳에 우리말 도서열람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소재 대학의 한국어과, 교육문화센터에 배분한다.

운송방법은 해상운송은 속초 → 훈춘해관 → 연길과 속초 → 자루비누 → 블라디보스톡의 경로로 전달된다.

■ 정보화 환경 지원 사업³¹⁾

동포사회 교육 협력망을 통한 순회 교육팀 운영을 통해 교육현장의 정보화 환경을 지원하여 조선족 학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 추진 방법으로는 지역 순회 전담 방문팀(3인)을 운영하여 한 지역당 15일간의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2004년 10월 현재, 5개 지역 15개 학교가 참여하며 10~15명 정도의 컴퓨터교사들이 참여한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및 산재 지구 민족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컴퓨터의 수리 및 관리와 현직교원들에 대한 컴퓨터·인터넷 교육 등 지식기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 홈페이지 제작 지원, Photoshop, Flash 강좌, 교육 특강과 학교 전산 장비 네트워크 운영 교육 등을 실시한다.

31) 2004년, 3년차 지속 사업

■ 민족 학교 교장, 교사 모국 연수³²⁾

한족(漢族) 학교에 비해 교육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선족 교육 기관의 학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 교육시스템에 대한 고찰과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한국학 학술대회 참가

주최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일시 : 8월 11일 ~ 13일

내용 : 한국학 세미나, 모국 방문

참가 규모 : 400여명(중국 참가자 10여명)

▪ 민족 학교 교장·교사 모국연수 프로그램.

주최 : 서울교육대학교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일시 : 8월 16일 ~ 18일

내용 : 한국 초·중등학교 정보화 환경 고찰

교사 재교육 시스템 견학 및 간담회

□ 2004년도 동북아평화연대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2004년도 동북아평화연대에서는 중국, 러시아 청소년 교류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역사 문화 공동 캠프, 두 번째는 연해주 농활과 정보 통신부 주최 해외 인터넷 봉사단 활동, 세 번째는 전라도 광주와 길림성 연길시 초등학교들의 여름 학교 연수 프로그램이다.

■ 역사 문화 공동 캠프

공식 명칭 ‘세계 한민족 청년 동북아 결연 캠프(한국, 중국, 러시아)’는 세계 한인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교류 사업이며, 2002년

32) 2004년, 2년차 지속 사업

7월에 1회, 2003년 8월에 2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이 3회째이다. 한국 캠프, 러시아 캠프, 중국 캠프로 구성되어있으며, 러시아 고려인 청년회 “후대”와 중국 연변대학 “조선족 동아리 연합”에서 현지 캠프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재외한인 청년들의 정체성 문제공유와 문화적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동북아 한인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를 위한 동북아(러시아 연해주, 중국 연변) 우리민족 삶의 현장 & 역사문화 캠프를 운영하며, 청년 결연 사업(다언어·교육·문화 교류 사업, 인적 교류 방문 및 자원 봉사) 개발을 통해, 해외 한인 청년들이 겪고 있는 거주국에서의 인종 문제, 문화 정체성 문제, 고국과의 경제적 연관성 문제 등 공통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 동북아 청년 결연 캠프

동북아 4개국(한·중·러·일) 청년 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러시아, 중국 청년 주최(러시아 고려인 청년회 새삶, 중국 연변대학 조선족 동아리 연합)의 문화·역사 캠프를 동북아 3국(한국, 러시아, 중국)에서 동시 진행하며, 청년 결연식을 진행한다.

▪ 동북아 민족 현장 study tour

동북아 청년 캠프 기간 중 동북아 우리 민족 삶의 현장 문화 체험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일대와 중국 두만강·압록강 지구에 대한 동북아 민족 현장 study tour를 거주국 청년 단체 주관하에 진행한다.

▪ 캠프 활동 개요

캠프기간은 2004년 7월 16일~31일(16박 17일)이며, 참가비는 80만원이고, 한국 22명, 중국 100여명, 러시아 20여명, 일본 1명이 참가하였다.

■ 청년 봉사단 활동(중국)

공식 명칭은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³³⁾이며 IT인력을 개도국에 파견,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국가간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하여 우리 IT 기업 및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활동 사항은 첫째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 둘째 우리나라 정보화 현황, IT발전상 및 IT제품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통한 e-Korea의 국제적 위상 제고, 셋째 기타 인적·문화적 교류활동을 통하여 IT 교류증진 및 우호 친선을 도모한다.

봉사활동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봉사단은 동북아 청년 캠프 1, 2회 참가자 4인으로 구성되며, 중국 길림성 서란시 조선족 제일 중학교가 교육 대상 기관이다. 대상자는 교사 15명, 학생 40여명이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가 주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전산 응용 실습(성적 관리, 출석 관리)과 프리젠테이션 운영 실습, IT Korea 홍보, Korea 문화전파, 우호친선 활동 등이다.

■ 청년 봉사단 활동(러시아)

공식 명칭은 ‘미하일로프카 우정마을 여름농활’이며, 실제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현실과 어려움을 몸으로써 느끼고, 기존의 단기봉사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곳 동포사회가 느꼈던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내는데 그 목표를 둔다. 농활기간은 2004년 7월 11일~8월 9일이고, 참가인원은 9명이다. 비용내역은 왕복교통비(배) 30만원 정도(숙초 출발 매주 일, 화 목)이며, 숙식은 우정 마을 회관에 집단 거주하는 방법과 고려인 가정 홈스테이를 활용하며, 농활장소는 연해주 미하일로프카군 우정마을(고려인 집거촌)이다. 우정 마을 수로 주변 채초 작업, 도로 수리, 문화 센터 인테리어와 한글 교실(고려인 어린이 등), 러시아어 학습(농활단), 지역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한다.

33) 4명을 한팀으로 구성하여 30여개국 75개팀 활동

□ 한·중 청소년 공동 학습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 제 1회 동북아 여름학교

언어 영역(매일 2시간), 역사 문화 강의 공동 학습, 조별 활동, 지역 study 답사를 통해 다문화 공생 관계에 대한 이해와 다국가 거주 시대에 대한 지혜를 익히는데 그 취지가 있다. 활동 기간은 2004년 7월 26일~8월 10일(15박 16일)이고, 한국 광주지역 초등학생 19명, 중국 백산학교 학생 19명이 참가하였다. 참가비는 70만원이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후원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백산학교에서 이루어졌다.

▪ 중국 조선족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언어 교실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언어 습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선족 학생들은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역사·문화 교실

중국측에서 선발한 초등생들과 함께 연변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와 인물·교양 강좌를 실시하며, 교양 강좌 후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전일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다문화 이해 형성 프로그램

상호 이해 및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 초등생들의 다문화 공생 환경을 제공한다.

IV. 외국의 청소년 교류사례 분석

IV

1. 동남아시아 국가의 청소년교류
2. 유럽연합의 청소년 교류
3. 북미지역의 청소년교류

IV. 외국의 청소년 교류사례 분석

1. 동남아시아 국가의 청소년교류

1) 동남아시아의 국제교류협력기구

(1) 아세안 사무국(The ASEAN Secretariat)

① 가입국가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방콕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비 7백만불(USD)로 10개국이 공동 부담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세안은 5개의 초기 회원국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그리고 19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하였다.

② ASEAN내 청소년 관련조직 : SOMY, AMMY

ASEAN의 조직은 ASEAN 국가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타분야 각료회담이 매년 이루어지며, 각료회담을 지원하는 29개의 상임관리위원회와 122개의 기술부로 구성되어 있다(www.aseansec.org/64.htm).

■ ASY

아세안 국가간의 청소년 협력은 1983년 6월 방콕에서 열린 16차 아세안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된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원칙 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아세안의 아젠다에 올려지게 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협력은 그 후 사회개발위원회(COSD)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983년 선언의 지시 사항들을 따르고 운영하기 위해 아세안 체계 내에 아세안 청소년 포럼이 설립되었다. 이 후 아세안 청소년 포럼은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 (ASY)로 재구성되었다. ASY는 2002년 청소년을 위한 고위급 회담 (SOMY)으로 승격되었고 이는 아세안 사회 발전 메커니즘의 전체적인 재구성의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SOMY는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개최된다.

■ SOMY

SOMY는 아세안의 청소년 관련 고위급 관리들로 구성된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와 교육 기회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협력에 NGO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15차 ASY 회의가 1998년 4월에 열렸고 아세안 청소년 협력 위원회(CAYC)와 아세안 산하의 청소년 문제 관련 NGO들이 아세안에 참여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AMMY

장관급 회담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회발달과 리더쉽 발달에 있어 청소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아세안 청소년 장관급 회담(AMMY)이 1992년 8월 설립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해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AMMY는 아세안 회원 국가 청소년들 사이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장관급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AMMY I). AMMY는 아세안의 조직체계 중 일부이며 아세안 장관급 회담을 통해 아세안 정상 회담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장관급 회담(AMMY II)이 1997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고 이때, ‘아세안 청소년 발달을 위한 Kuala Lumpur 아젠다’가 채택되었다. 미얀마는 세 번째 AMMY를 2000년 11월 개최하였고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일에 착수하게 된다. AMMY IV는 필리핀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발달을 위한 참여 강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AMMY IV는 또한 ‘지속적인 고용과 세계화의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청소년 준비 워크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이로서 글로벌 시대를 사는 청소년을 위해 2000년 AMMY III에 의해 확인된 우선 과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때 지속적인 청소년 고용은 아세안 청소년들이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를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강조되었다.

■ SOMY와 AMMY의 활동

SOMY는 AMMY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SOMY는 AMMY의 지시사항들의 실행을 관리한다. 이러한 것에는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이 지역 청소년의 좀 더 온전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SOMY는 또한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이 활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근 채택된 ‘지속적인 고용과 세계화의 또 다른 도전에 청소년을 준비시키는 아세안 워크 프로그램’은 4가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정책 발달, 아세안 인식/시민 책임, 청소년의 고용 적격성 증진, 제휴/정보교환 등이 그것이다. 청소년의 리더십 발달과 관련된 사업들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한국, 중국과의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역시 실행 단계에 있다.

SOMY는 최고의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 교류를 위한 단일 지침책을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문서화 한다.

AMMY I에 관련하여 8월 8일을 아세안 청소년의 날로 기념하게

되었다.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AYDM)은 교대로 매년 열린다. 처음 일본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래 AYDM은 아세안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 하는데, 주최 국가가 조직 활동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그들의 참여 활동비용을 부담한다. 1999년 이래 AYDM은 특정한 주제 아래 아세안 청소년의 상 수여라는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다.³⁴⁾

■ 기타 관련조직

ASEAN은 여러 특수부서가 있으며 다양한 현장분야와의 국가적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협력하고 있는 현장분야로는 아시아대학 네트워크(AUN), 아세안 농촌청소년 개발센터, 아세안 관광정보센터, 아세안 에너지 센터 등이 있다.

아세안의 주요목적은 정책개발, 아세안 의식 증진 시민교육, 능력형성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아세안 고위급회담, 아세안 Youth Dialogue Meeting(2004년 의제는 창업문제), 아세안-중국 장관회의, Youth Exchange (매년 매국가 3명씩 총 30명 초청), Malaysia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예정사업: 비용은 10개국 분담)등이 있다.³⁵⁾

③ 분과위원회별 주요사업

아세안의 각료회담을 지원하는 29개의 상임관리 위원회 중 사회개발위원회(COSD)가 있다. 사회개발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 2002년 SOMY로 승격)와 아세안 교육 분과위원회(ASCOE)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보위원회(COCI)가 문화정보관련 청소년사업을 주관한다. 이들

34) 이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로 열린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국제심포지움(2004.11.11)의 자료집에서 아세안 사무국 전문위원인 Moe Thuzar의 글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35) 이 내용은 2004년 6월 아세안 사무국 기관방문 시 면담내용과 aseansec.org의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별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와 국가별 조력사업

제 2차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 장관급 회담(AMMY)의 결과로 각 나라별로 세운 적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인도네시아), 사회적 시민적 책임의식(라오스), 리더쉽 교육(말레이시아), 아세안 시상식(필리핀), 과학과 기술(필리핀), 지속적 개발과 농촌청소년(태국), 학교밖 청소년의 기술훈련(베트남), 이중 마지막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안들이 아세안 교육분과 위원회와 연계하는 조력적 활동으로 결정되었다.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의 주요 관심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의 훈련이다. 즉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간 청소년들의 실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한 아세안 직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일본-아세안 교환사업(JAEP)의 기금으로 1998년에 워크샵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로 설립된 아세안 기술망(ASEAN SKILLSNET)은 이후 2000년에 Youth@ASEAN homepage (www.aseanyouth.org) 안으로 통합·발전되었다. 이 웹페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아세안협력에 대한 지역적 개관을 보여주며,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관련사업이 있다.

■ 아세안 청소년상 시상(ASEAN Youth Award)

1999년부터 매년 “최고의 청소년봉사활동”의 주제아래 아세안 회원국에서 9명의 청소년에게 수상한다. 2001년에는 청소년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10차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와 연계하여 수상식을 가졌다. 이제까지 10차의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치루어졌다. 2003년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11차 회의부터는 아세안 국가가 공동부담하여 이 행사를 치를 것인데, 아세안 청소년을 위한 고위급회담(SOMY)는 아세안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수상식이 아세안 청소년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지대

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년 이 행사를 열기로 했다

(www.asean.org/function/ov_sd.htm).

■ 도시청소년사업Ⅱ

세미나를 청소년비행줄이기의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었다. 같은 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지역적 훈련워크숍을 열어 행동계획과 훈련기준을 마련하였다.

□ 아세안 교육분과위원회(ASCOE) 주요 관심분야

SEAMEO와 연계하여 기본교육과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중등교육학교에 교과과정과 학생교환프로그램 안에서 아세안 연구(ASEAN Studies)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내 아세안인식(ASEAN Awareness)을 높여왔다. 아세안 연구과정의 초등,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위해 아세안 연구자료집을 만들고 있다. 필립핀이 주도해서 아시아 교과목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다.

□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ACOI) 주요사업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와 아세안문화기금(ACF)과 연계하여 상호 이해, 회원국간의 연대, People to People 상호작용과 접촉, 정보교환과 기술개발, 문화공연, 축제행사와 전시회 등을 증진시키는 사업들을 해왔다. 관련사업은 다음과 같다.

■ 아세안 인식 증진(Promoting ASEAN Awareness)

지역적 정체성과 협동정신을 가지는 것을 돕고자하는 아세안프로그램의 지역적 인식 필요성에서 나왔다. 아세안활동증진을 통해 지역 내 자신감의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정보통신부장관들과 문화정보위원회가 하노이행동계획(HPA) 실행, 아세안 프로그램과 문제들

의 공적 인식, 아세안 경제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 아세안 위성 채널, 매스미디어 네트워크와 연결, 문화적 공연과 전시, 청소년 캠프와 교환, 멀티미디어 훈련, 문화적 유산과 같은 문제점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 프로그램, 구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하였다.

■ 아세안 청소년캠프

1997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2004년 12월에 캄보디아에서 6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50명의 청소년들이 12일간 참여하여 서로간의 경험공유, 자기국가의 문화적 측면들을 공연, 참가자들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다지며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People to People 교환프로그램

일반대중차원의 아세안 문화상호작용을 도모한다.

■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 국가정보기관들이 국가적 아세안 퀴즈 경쟁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이 참여대상이며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경쟁하는 퀴즈이므로 학생들이 자연히 아세안 관련 웹사이트에 자주 접속하며 다른 아세안 관련 출판자료를 접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퀴즈에 나갈 준비를 한다. 2002년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개인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두 필리핀 고등학생에게 각각 500달러(USD)와 400달러(USD)가 주어졌고 필리핀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아세안 전문가라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 외무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것을 격려 받았다

(www.pia.gov.ph/philinfo/).

□ 아세안 문화기금(ASEAN Cultural Fund: ACF)

1978년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이 아세안의 문화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을 위해 설립하였다. 일본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로 문화와 정보 사업을 지원한다. 2,000만불(USD)로 시작된 기금이 2004년 현재 4,000만불(USD) 조성되었고 이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시행한다(ASEAN Secretariat, 2001 : 4, 면담내용 참고).

④ 아세안+3 국가(한국, 중국, 일본)와의 협력

2003년 9월 청소년 부문 아세안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아세안+3 국가 고위급 청소년 회담(아세안+3 SOMY)을 여는데 합의했다. 이는 2004년 캄보디아에서 열리게 되는 2차 SOMY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아세안+3 SOMY는 청소년과 관련해 앞으로의 아세안+3 협력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며 가까운 장래에 아세안+3 장관급 회담 개최에 대해 논의한다.

아세안은 1991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가져왔지만 1996년 중국과 ‘대화 상대 지위’를 확립시켰다. 일본과는 1973년에 처음 비공식적 관계를 확립시켰고 1977년에 공식관계를 확립하였다. 한국과의 관계는 1989년에 아세안의 부분(sectoral)대화 상대의 지위에 있었지만 1991년에 온전한 대화 상대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는 이미 활동들을 수행해 왔다.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이 주최하는 ‘동남아시아 청소년의 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또한 아세안 10개국을 상대로 첫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세안과 중국은 2004년 9월 29일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중국 장관급 회의를 열었고 아세안-중국 청소년 협력을 위해 아세안과 중국의 청소년 부문 아세안 장관들의 베이징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첫 번째 회의는 아세안과 중국 청소년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아세안과 한국 역시 학술적 영역 이외에도 아세안-한국의 미래 지향적인 협력 사업의 체제 아래 일련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UN)는 한국의 대전 대학과 아세안 대학의 학생들간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 중국, 일본, 한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아세안의 활동으로서는 2002년 싱가포르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아세안+3 리더쉽 행정관 프로그램』이 있다. “청소년조직 발전을 위한 정보기술의 물결을 타고” 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을 위해 40명의 청소년조직의 책임자들과 정책 행정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청소년 기구의 전략적 계획과 관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또한 리더쉽의 제고와 참가자들의 관리 역량을 증가시키고 아세안+3 국가들 간의 청소년 발달에 있어 최고의 실천전략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과 지도자들 사이의 인식 증가, 결속, 결합을 촉진하는 일의 밑거름이 되었다.³⁶⁾

(2) 아세안 기금(The ASEAN Foundation)

① 재원 형성과정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정부국간의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면 아세안 기금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아세안의 사적영역을 대변하는 통로가 된다.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기금은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에 있어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www.aseanfoundation.org/activities.php). 아세안 기금은 1997년 아세안 10개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창설하였다. 아세안국가에서 4

36) 이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최로 열린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국제심포지움(2004.11.11)의 자료집에서 아세안 사무국 전문위원인 Moe Thuzar의 글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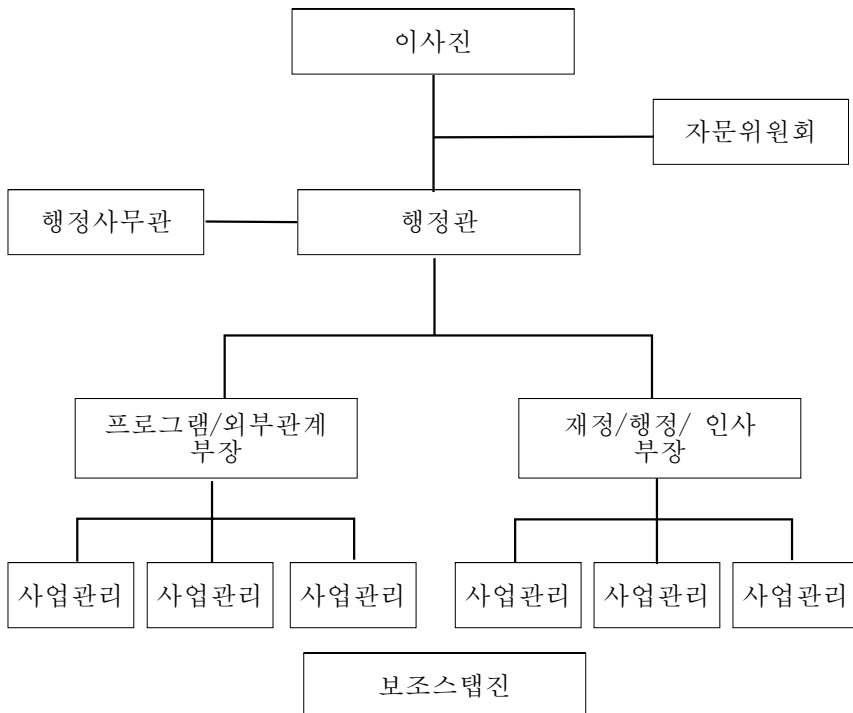
백 20만 달러(USD)이상을 모금했고, 1999년에 일본에서 기금지원(2천만 달러USD), 중국, 한국이 각각 2십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 이후 한국은 아세안과 최근에 그 관계를 확대해 왔으나 아세안·한국 특별기금으로 인력자원개발, 정보기술, 보건 환경분야를 위해 2백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The ASEAN Foundation, 2003: 5). 일본·한국·중국에서 송금된 기금은 총 2천 4백만 달러이다. 2천 2백만 달러가 사업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1천만 달러가 일본정부가 주도한 단기 사업들에 사용되어 왔다. 많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기금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45%의 기부금이 사용되어 현재의 사용가능한 기금이 제한적인 상태이다(www.aseanfoundation.org/source_of_funds.php).

첫 번째 기금의 이자로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최근 아세안기금에 부가적 수입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대학, 개인회사, 정부기관, 민간기관, 관리, ICT 의사소통이나 언어분야의 일반 공동체에 단기 코스들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지역의 대학이나 훈련 센터와 연계하여 훈련과정이 열린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감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얻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개발지역의 지역사회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같이 사업후원을 통한 모금, 기업후원을 통한 자체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재정부족으로 대기업의 후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아세안 기금은 지역세미나와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사회적 기금모금행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체육축제, 아세안 음식 축제, 대사관 바자회, 콘서트나 다른 문화적 행사들이 열린다(ASEAN Foundation, 2004: 1-3).

② 조직

아세안 기금의 조직은 이사진/자문위원회 아래 행정관/행정사무관이 있고, 그 아래에 프로그램·외부관계 부장과 재정·행정인사 부장이 있다. 현재 근무인력은 12~15명이다. 아세안 기금의 조직도는 [그림IV-1]과 같다.



[그림 IV-1] 아세안 기금 조직도

③ 주요사업

아세안 기금의 목적은 아세안 인식 증진과 아세안 활동에의 폭넓은 참여와 아세안 시민들의 상호작용확대, 인간자원개발노력, 협력전략 개발, 상호원조증진, 균등한 경제적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 기금은 연 60개의 신청된 프로젝트 중 20-30개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은 크게 4개 영역, 사회개발, 과학과 기술, 환경, 문화·정보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2003년에는 새롭게 실행되는 11개의 사업 중 7개가 사회개발분야에서 이루어졌고 4개의 사업이 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2003년에 열린 12차 아세안기금 이사회의에서 언급된 주요한 두가지 사업은 지역장학금사업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사업이었다. 먼저 지역장학금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가난한 우등학생에게 제공된다. 아시아 태평양 대학연합(AUAP)과 협력하여 대학이 대학원생들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아세안 기금은 여행과 생활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아세안-일본연대기금(ASEAN-Japan Solidarity Fund)에서 지원한다.

둘째로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지역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여러 분야의 비형식적 훈련과정을 지원하는데, 이러한 훈련분야로는 스포츠와 문화진흥 뿐 아니라 ICT분야, 환경관리, 중소기업 창업, 평화가치교육, 약물 에이즈예방교육이 있다. 이 두가지 사업은 기업, 타기금, 개인자선가들의 기여에 힘입어 아세안기금이 실행할 것이며, 이 모금의 출발기금은 한국기금(Korea Fund)에서 지원한다(ASEAN Foundation, 2004: 1-3).

청소년과 관련하여서 Youth Leadership Conference, 실업청소년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청소년 댄스 축제, 청소년비행 예방사업, 정보기술 사업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예를 보면, 필리핀 청년은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청년은 한국말과 컴퓨터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일본-아세안 국제교류사업의 예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아세안의 고등학생 교환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AFS Japan 주도), 일본대학생 70명과 아세안 대학생 70명이 한달 동안 교류활동을 하였고, 마지막 주는 일본에 모여서 평가회의를 가졌다.

참가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반응은 나쁜 편이었다.

2004년 6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해변지역(스카보)에서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20명에게 유기농법 교육을 실시 중인 데, 이는 6개월간의 과정이며, 고등학생, 학업중퇴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전체적으로 아세안 기금의 가장 성과 있는 사업으로는 장학금 사업과 배운 후 삶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인 농업·컴퓨터·환경·지도력·경영 등에 관한 연수사업을 들고 있다. 아세안 기금이 아세안 국가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은, 자원봉사사업에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은퇴한 사람 등이 대학, 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장학금으로는 해외파견 장학금 (영어가능자)이 필요하다.³⁷⁾

(3)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① 설립배경 및 목적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는 1992년 4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과로 고등교육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대학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199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내 교수·학자·과학자간의 협력증진, 지역 내 학문적·전문적 인적자원개발, 아세안의 학문적 공동체내의 정보보급증진, 회원들간의 지역간 정체성과 아세안인임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www.aun.chula.ac.th/detail.htm).

② 조직 및 운영

아세안 국가의 대학교류 네트워크의 사무국은 태국의 국립대학인 출라롱콘(Chulalongkorn Univers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조직은 이사진과, 사무국, 참여대학이 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세안

37) 이 부분은 2004년 6월 아세안기금 방문시 면담내용을 정리한 것임.

10개국의 17개 대학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전대학이 AUN과 교류하고 있다.

사무국의 운영은 태국정부가 지원하고 운영비 중 사업비는 대학별로 분담해서 충당한다.

③ 주요사업

AUN의 사업은 크게 아세안 국가 내 교류사업과 아세안 역외국가와의 교류사업으로 분류된다.

아세안 국가내의 교류사업으로 AUN 질적 보증사업,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학생·교수 교환 프로그램, 정보 네트워킹, 협력적 연구, 아세안 행정개발 프로그램, 아세안 대학원 경영·경제 프로그램 네트워크가 있다.

□ 역내 교류사업

i) AUN질적 보증사업(AUN Quality Assurance)

AUN의 가장 우선적 사업으로써 2000년에 아세안대학동맹이 태국 방콕에서 첫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대학내의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각 대학에서 임명한 질관리담당관(Chief Quality Officer)이 모여 2004년까지 6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공통된 기준체계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벤치마킹법으로 대학간 좋은 사례를 나누고 적용하며 바람직한 교수 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적 관찰을 하고 아세안대학들이 적용하도록 돕는다. 결국 아세안 국가내의 대학교육의 질의 수준을 관리하여 고등교육체계 내 조화를 이루며, 아세안 대학간의 학점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5, 2004: 12) 일례로 현재 미얀마와 싱가포르의 학점교환이 안되고 있으나 장차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ASEAN Studies Program)

아세안 지역의 연대와 정체성 강화, 아세안의식 고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AUN 회원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실행할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위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원수준에서의 조사연구와 워크숍을 해왔으며 Malaya 대학(말레이시아)이 아세안연구 프로그램의 AUN 석사과정을 2003년 말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필요한 선수과정으로 6개의 필수과정 강의요강(ASEAN Studies Programme Syllabi)이 개발되었다. 아세안연구 6개 과정의 요강은 아세안의 경제협력, 아세안의 외부관계, 아세안의 기능적 협력/조사코스, 아세안의 제도적 구조와 의사결정, 아세안내의 정치적 안전보장 협력, 동남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적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요강은 아세안기금의 후원으로 CD-Rom과 책으로 발간·배포되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1-5).

iii) 학생-교수 교환프로그램

단기교류활동으로는 AUN교육포럼, 아세안 문화포럼, Young Speaker Forum 등이 있고,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주로 대학생이 주 대상으로써 현재 태국에 20~30명의 아세안 국가 학생이 가서 공부하고 있다.

■ AUN 교육 포럼(AUN Educational Forum)

1998년에 태국에서 시작되어 매년 이루지는 2주간의 Work camp 프로그램이다. 회원대학별로 교수 1명과 대학교 2-3학년 학생 1-3명씩 50여명이 참여한다. 정치, 경제, 경영 등의 전공학생이 참여하며 포럼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럼토픽에 대한 3,000자의 에세이를 제출해야하며 교수진은 4,0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2004년에는 미얀마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아세안: 아세안연구 학습사회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6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나라별로 주제를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며 경비 중 항공료는 학생부담이며 나머지 비용은 주관대학이 부담한다(AUN 2004:12, AUN 면담내용).

■ 아세안 청소년 문화포럼(ASEAN Youth Cultural Forum)

각 대학에서 5명의 미술·음악전공 학생들과 교수 1명이 초청되며, 3가지 주요활동에 참여한다. 음악, 노래와 춤에 관한 강의, 워크숍과 각국 대학의 문화공연에 참여한다. 참가학생은 60불의 가입비를 내며 항공료는 학생의 소속대학이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행사 주관대학이 부담한다. 200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첫 번째 아세안 청소년 포럼이 개최되었고, 2004년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대학에서 두 번째 포럼을 주관한다. 이 포럼은 아세안 청소년들에게 상호문화적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아세안 지역내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합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포럼은 아세안 각국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4-6, 2004: 12, AUN 면담 내용).

■ Young Speaker Forum 아세안 교육포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어른들이 아세안 청소년들의 성숙한 생각들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가졌고 아세안 사무국의 의장은 이 행사가 매년 개최될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동남아지역을 위한 미래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12).

■ 협력적 연구(Collaborative Reaearch)

아세안 기금의 지원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며,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전보장문제(Economic Security Issues)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한다. 먼저, 경제 안전문제에 관한 연구는 아세안 경제/경영대학원 프로그램 네트워크(AGBEP Network)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며 ‘아세안 5국내의 상호기금의 개발과 수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Gadjah Mada대학에 있다. 둘째로, 정보기술관련 조사는 필리핀의 De La Salle대학의 협력하에 ‘아세안 5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기술훈련’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연구는 2003년 8월까지 연구를 마감하고 10월에 발표세미나를 가졌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7).

□ 아세안과 역외국가와의 교류사업(ASEAN and Dialogue Partners)

여기에는 아세안-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중국 등의 사업이 있으며 이외 아세안-유럽연합, 아세안-인도, 아세안-러시아 등이 교류사업이 있다.

i) 아세안-한국 교류

한국은 1991년 아세안과 정식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이 되었다. 아세안과 한국간의 관광, 과학, 기술발전과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왔고, 인력자원개발의 틀 안에서 한국은 아세안 청소년들과 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연구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아세안-한국 학문교류프로그램, 아세안 박사후(post doctoral) 우정프로그램이 있다. 한 예로써, 한국의 대전대학에도 아세안 국가의 학생이 와서 수학하고 있다. 2002년 아세안·대전대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의 결과로 10명의 아세안 학생이 수학을 마치고 2003년 6월에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2003년 7월부터 10명에서 17명으로 장학생의 수를 늘렸다. 2003년의 경우 10개 아세안 국가에서 95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며 이 중 17명에게 한국으로 파견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전대학의 경우 학비, 숙박비, 왕복티켓과 한달생활비 500달러를 1-2 학기동안 17명의 아세안 학생에게 지급했다. 이처럼 대부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초청국의 대학이 부담하고 기타비용은 초청국의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구조이다.

그 외의 한국과의 학문적 교류로는 AUN 사무국과 한국동남아학회와의 교류가 2002년에 시작되어 워크숍, 협의, 공동연구, 우정교환, 조사와 원탁회의의 5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냉전 후 세계화시대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과 정체성 세우기’의 주제로 이루어진 협의에는 아세안과 한국의 학자들이 20편의 논문을 제출했다.

공동연구와 우정교환프로그램은 2004년 진행되었으며 6명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10명의 연구자가 우정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해왔다. 2004년 6월이 연구마감 시점이며 연구와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와 원탁회의는 2004년 1월~6월까지 시행되며 한국과 아세안의 한국학, 아세안학 전문가들이 각기 아세안 국가의 한국연구와 반대로 한국내의 아세안연구에 대해 조사한다. 그 결과는 6월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워크숍을 통해 보고한다. 이 조사결과는 아세안과 한국에서의 서로에 대한 현재의 연구 상태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서로간의 학문적 협력의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4: 7-8, ASEAN University Network, www.aun.chula.ac.th/Aunactivity.htm).

ii) 아세안-중국 교류

중국과의 학문적 협력과 교환프로그램은 2001년에 주요한 4개 활동, 즉 총장회담, 조사와 원탁회의, 협력연구, 교수학자 프로그램을 주요골자로 시작되었다. 총장회담은 2002년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의 아세안국가와 아세안연구(ASEAN Studies)에 대한 연구 상황과 정보를 알 수 있었고 향후 교류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AUN사무국과 중국의 북경외국연구대학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BFSU)이 2004년 조사 원탁회의를 베이징에서 준비하며, 중국과 아세안의 학자들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광시 대학(Guangxi University)은 2003년 11월에 경영대학에서 ‘아세안 중국의 경제 경영 고등 교육 협력’의 주제 아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약 50명의 아세안 학자들과 80명의 중국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포럼은 아세안과 중국 대학간 고등교육분야의 학문적 협력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자 개최되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합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중국자유무역지역을 주도하면서 고등교육기관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 협력은 인적자원 개발영역에 초점을 두고 확대될 것이다. 둘째, 아세안과 중국간의 학문적 협력은 장기간을 통해 한단계씩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쪽간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다. 참가대학들은 향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 향상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4: 9).

iii) 아세안-일본 교류

일본경제조직연합에 의해 설립된 Keizai Koho센터가 1998~2000년까지 3차례 AUN 대학관계자와 학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10일간의 관광 및 교육적 방문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AUN 동남아시아 공학교육개발네트워크 (AUN/SEED-NET: AUN/Southeast Asian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를 설립하여 아세안과 일본의 대학간의 공학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간의 공학교육의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아세안에서 선별된 9개 대학과 일본의 11개 대학이 회원이며 이 네트워크는 연구사업 자금지원, 연구장비 제공,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년 2회의 정기간행물 출간, 웹사이트 설립, 국제학술협의 참여를 위한 기금 지원, 대학원석사학위 프로그램, 단기 훈련코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국제

협력기관(JICA)을 통하여 일본정부가 주된 재정지원을 하고 아세안기금이 부분적 재정지원을 한다. AUN/SEED Net의 특별 프로젝트로 2000년 회원대학들의 총장과 학장들의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받고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2001년에는 동대학에서 네트워크의 개최식을 가졌다. 2002년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국립대에서 ‘공학교육향상을 위한 정보 기술 사용’을 주제로 첫 IT세미나를 개최했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13, www.seed-net.org).

iv) 아세안-유럽연합 교류

양 지역을 1997년 양 연합간의 원탁회의 이후 상호간의 학문적 공동체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류사무소는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 있다. 크게 파트너십 사업과 네트워크 주도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파트너십 사업을 위해 공동적용연구, 인적자원개발, 교과과정개발의 3가지 사업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네트워크 주도사업을 위해 2차례의 총장 협의와 4차례의 정기 원탁회의, AUN을 위한 기술원조가 계획되어 있다. 한 예로써, 최초 아세안 유럽연합 대학 네트워크 프로그램(AUNP) 원탁회의가 ‘고등교육의 질적보증’을 주제로 2003년 방콕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두 지역 대학간의 질적인 수준 보증을 위한 실제적 협력을 위해 아세안-유럽연합 정책입안자, 학자, 실천가등 고등교육의 질향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몇몇 국가의 사례와 나라들간의 비교를 통해 적용점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아세안학점교환체계를 설립하여 아세안지역내와 아세안과 유럽 연합간의 학문적 이동성을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4년에 아세안과 유럽연합 대학들의 첫 총장협회가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에서 개최된다(ASEAN University Network, 2004: 10-11).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어, 고급기술, 아세안지역내의 한국기업에 대

한 관심이 높다. 이들의 중국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인데 아세안 국가와 유사한 문화, 중국어의 중요성, 중국의 생활비, 저렴한 수업료, 넓은 국토와 다양한 관광지 등이 중국교류 촉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줄고 있지만 자부담을 통해 중국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중국인이 거칠고 사기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세안 지역 학생들은 일본의 고급기술을 학습하러 가기를 선호하지만 비싼 학비로 인해 경제력이 있는 학생만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한국에 비해 많지만 가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한국 신청자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일본에 다녀온 학생들은 일본인이 친절하고 상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은 신청하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며, 한국을 다녀온 학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부정적인 부분으로 한국 사람들의 아세안 사람들에 대한 무시경향과 흡연을 들고 있다(AUN 면담내용 정리).

(4) 아시아-유럽기금과 아시아-유럽청소년협력

(Asia-Europe Foundation & Asia-Europe Youth Cooperation)

① 설립배경 및 재원

아시아-유럽기금은 1996년 ASEM의 결정으로 1997년에 아시아와 유럽 국민들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싱가포르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기금의 형성을 살펴보면 아시아-유럽기금(ASEF)은 25개 ASEM 회원 국가가 분담해서 형성한 기금으로 ASEM 하의 유일한 기금이다. 연 2회 회원국 대표자가 참여한 이사회(각국 외무부 참여)를 통해 사업방향을 설정한다. 조직은 문화교류부, 지식교류부, People to People 교류부, 공공업무부(홍보, 소개, 출판 등)의 4개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기금규모는 400만 유로이고, 각 국가가 Trust Fund(각 국가의 기부금으로 형성된 기금으로 사업비에 지출)나 Operation Fund(기금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각 국가가 지불) 중 하나를 선택해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³⁸⁾

② 주요사업

사업은 문화교류, 지식교류, People to People 교류의 3가지 영역으로 시행된다.

□ 문화교류사업

문화교류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예술가와 문화관련전문가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에게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다국적인 문화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culture-asef.org에서 볼 수 있다.

■ 문화적 대화와 문화유산

두 지역간 문화정책 입안가들과 전문가들 간의 협력 증진, 문화유산공유를 위한 박물관네트워크 구성, 아시아유럽예술증진 기관 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문화산업

TV, 영화, 음악, 출판관련 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며, 특히 영화분야에서는 젊은 독립영화 기획자에게 중점을 둔다. 문화 보조금증정, 영화 개발회의, 문화적 교육적 협력 방송 프로그램 제작 증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8) 이 부분은 Asia-Europe Foundation(2003c), Promoting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s of Asia and Europe, Singapore: Asia-Europe Foundation., pp.5-17과 ASEF면담내용을 정리한 것임.

■ 예술적 창조력

공연, 시각예술교류를 중점으로 예술캠프와 젊은 사진가 아시아 유럽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아시아 유럽 댄스포럼을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 지식교환교류사업

지식교환교류사업에서는 학계, 언론계, 정부기관, 사설기관, 연구센터, 민간기구, 상업조합, 기금단체, 유럽의 Asian Houses와 아시아와 European Houses에서 연구원, 교수, 박사 등이 참가하여 공공정책 등에 대한 주제로 교류하고 교류결과를 출판한다.

i) 국제관계(Internation Relations)프로그램

지역적 문제에 대한 논쟁과 담화를 나누게 되며 안전보장, 재정, 경제, 무역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아시아-유럽 원탁회의와 지역화 과정의(Regionalism Series) 교류가 있다.

ii) 통치관계(Governance)프로그램: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고자 하며 주로 ASEM 비형식적 인권세미나, 성(gender) 협의사항, 노동관계 회의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iii) 교육·과학·기술 프로그램: 두 지역간의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아시아유럽환경 시리즈, 매년 열리는 아시아 유럽 워크숍 시리즈(학문적 논쟁들), 교육 포럼을 통해 이루어진다.

iv) 문화·문명 영역

대중매체나 공식포럼 등에서 대두된 문화 간 오해나 모순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협의 시리즈, 강의 시리즈, 언덕위의 ASEF-대화(논쟁적 문제를 다루는 소규모 토론, 상담 제공)등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 People to People 교류사업

People to People 교류사업에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류 사업 영역은 크게 3분야로 구분된다(www.asef.org).

i) 교육적 교류

■ ASEM 교육 중심축(ASEM Education Hub:AEH)

ASEM의 고등교육기관과 투자기관을 연결하여 협력을 증진하는 체제이며 다음과 같은 주요한 활동들을 한다(www.aeh.asef.org).

- 고등교육협력을 위한 AEH 행동계획: 양 지역간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주제별 워크숍을 개최한다.
- AEH교육 연구네트워크: 지역간 대학생교환과 장학금을 지급하며, 최근 국제여름학기 프로그램조직과 교수방문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교육교류프로그램 AEH 데이터베이스: ASEM국가들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현존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AEH 주제별 학문 네트워크: 대표적 네트워크는 아시아 유럽 임업분야 교환프로그램으로 1998년부터 임업연구와 자원관리에 관한 교수, 전문가, 학원간의 교환이 시작되었다(www.asef.org/aseforep).

■ ASEF대학 프로그램(ASEF University Programme: AUP)

대학생들이 다문화적 환경에서 학문적·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Summer School프로그램이다. 대학 4학년생이 대상이며 일년에 두 번씩 열리고, 2주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고, 2004년에는 열 번째로 5, 6월에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조직된다.

■ 아시아-유럽 교실(Asia-Europe Classroom: AEC)

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협동학습과 문화교

류 기회를 제공한다(www.aec.asef.org).

- AEC 국제 교사 회의: 매년 온라인 협동학습에 대한 아이디어와 협력할 대상학교를 찾는 회의를 개최한다.
- AEC 온라인 협동학습 사업: 주로 국제교사회에서 개발된 사업을 실행한다. 인터넷과 다른 ICT 도구를 이용해 서로간의 대화와 지식을 나누며 매년 잘된 프로젝트를 위한 수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 AEC 학생강화훈련: 중고등학생을 위한 일주일간의 거주학습 특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유럽 내일의 과학자 프로그램에서 15-16세의 중학생에게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과학전시회 참여와 멀티미디어 교실 학습을 제공한다.

■ 아시아-유럽 학생연합 지도자 회의(Asia-Europe Conference of Student Union Leaders)

학생연합 · 조직의 회장 또는 공무원이 참석하여 두 지역간의 공통적 문제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이다.

ii) 아시아-유럽 청소년 협력 (Asia-Europe Youth Cooperation)

■ 아시아-유럽 청소년 교환

(Asia-Europe Youth Exchange on Thematic Issues)

- ASEM Youth Dialogue는 매년 개최되는 포럼이며, 청소년과 교육관련 젊은 관료,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35세 미만)이 참여한다. 주제는 ASEM회의에서 결정되며, 1회는 국제화를 주제로 덴마크에서 개최되었고, 2회는 국가간 이동, 테러, 종교분쟁 등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하에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다. 3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청소년들이 회의 후 문서를 제작하여 ASEM회의에 제출하는데 ASEM 회의에 청소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 ASEF Youth Explore Programme은 2004년에 처음 시작하는 프

로그래프로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 가지 문제를 채택하여 그것을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관찰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2004년에는 중국에서 개최하며 수자원관리가 주제이다. 청소년들이 북경에서 보트로 양자강을 건너며 3개 댐을 견학하고 양자강주변 마을 사람들을 방문한다. 행사 개최국가에서 참여자 국가의 전시회, 박람회가 개최된다.

■ ASEF Youth Contact Programme

- 청소년 연결 보조금(Youth Connections Grants)은 청소년기관과 단체를 후원한다. 각국의 아시아-유럽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지원하며, 프로젝트 당 약 2만불 까지 지원한다. 세미나, 훈련코스, 청년들 간의 문화교류, 협동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캠프(Youth Camp)는 ASEM국가의 18-30세 청소년이 대상으로, 연 50-70명의 청소년 리더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2주간의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위해 주최국가의 사회문제와 상황에 대한 소개를 받고 전문가, 실행가와의 만남과 현장방문과 훈련과정 참석 등을 통해 그 나라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자원봉사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정관계를 도모하며 중국, 필리핀, 태국 등에서 개최되었다.
- 청소년지도자 훈련코스는 청소년단체의 제안으로 열리게 된다. ASEF가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고 주관기관이 나머지를 분담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참여자는 아시아-유럽의 회원 국가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야 하며 유럽과 아시아의 비중이 유사하여야 한다. 격년으로 한번씩 개최하며 30-50명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International Workcamp Organization이 한차례 개최하였다.
- 아시아-유럽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환은 1년에 1번씩 교류하던 것을 2년에 1번으로 바꾸어 실시하여 2001, 2002, 2004년에 교류가

이루어졌다. 국제자원봉사 조정위원회(CCIVS)에서 2001년 세계자원봉사의 해를 맞아 시작하였고, 세계 각국 자원봉사 기관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행사로서 2달 동안 개최되는 가장 긴 행사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각 10개 기관씩 총 20개 기관이 모여, 20개 기관별로 1~2명이 대표로 참여하여 총 25명 참석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처음 1주일만 파리에 모여 훈련과 국제 프로젝트 경영, 문화활동, 연락망 등을 형성한다. 다음 6주일은 타 지역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중 2주 동안은 Internship과정이고, 나머지 4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배운다. 마지막 1주일만 파리에 돌아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방문단체, 기관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며 청소년자원봉사자 교류, 아시아-유럽 청소년세미나 등을 지원한다(면담내용).

iii) 분야별 연계 프로그램

26~40세 대상 청년모임으로 차세대지도자 연결을 위해 연락망을 만든다.

- 정치·행정분야 : 아시아-유럽의 젊은 국회의원 회의, 아시아-유럽 공공분야 리더 프로그램이 있다. 2004년 6월 서울에서 아시아 유럽간 거리 극복-철의 실크로드 ASEM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사업, 미디어, 문화 등 전문영역: 아시아 유럽 창업가 포럼(35세 이하참가)과 아시아-유럽 젊은 리더 심포지움(30~40세 참가)이 열린다.
- 시민사회: 비영리단체 지도자, 아시아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럽인이나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시아인들(35세 이하)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회의를 주관한다. 아시아 유럽 시민사회 청년 리더 네트워크, 청년 유럽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아시아 유럽 청년 언론인 교환 프로그램 등이 있다.

(5) 유네스코 방콕

유네스코 방콕 사무실은 1961년에 설립되어 UN체계 안에서 자매 기관들과 협력활동을 하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43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적성교육, 자연·사회과학, 문화·커뮤니케이션·정보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내의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통해 관용, 민주주의, 인권이 지지되는 평화적 문화 안에서 지속적인 인류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① 교육분야: 다음과 같은 세 분야가 있다.

첫째, 모두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교육사업 (The Asia-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 for All :APPEAL) : 학교전, 초등학교수준의 기본교육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교육혁신 발전사업 (The Asia-Pacific Programme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 AEID): 중등 수준과 그 이상의 교육에 초점을 둔 활동이다.

셋째, 기관의 행정적 지부인 기획 및 조직분석부(Planning and Systems Analysis Unit:PSA): 행정관리 하위조직, 제도적 조직적 수준, 기획, MIS 하위부서, 정책 개혁 하위부서를 위해 일한다.

아시아태평양 교육혁신 발전사업 중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협동학교사업(The Associated Schools Project: ASP)

교육혁신 발전사업하의 국제적 도덕 가치교육 중 한 사업이다. 1953년에 시작되었으며 유네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네트워크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880개의 학교가 연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75개국(2004년 현재)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교사 훈련기관까지 7,509개

가 넘는 교육기관들이 연합하고 있다. 평화적 문화와 국제이해에 대한 교육을 증진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2004년~2009년까지의 행동강령과 ASPnet의 새 전략에서는 21세기의 4가지 학습의 기둥 즉 알기위한, 실천하기위한, 존재하기위한, 더불어 살기위한 학습을 강조하며, Dakar행동강령에 따른 교육의 질적향상을 강조한다. ASPnet의 교사와 학생들은 지역적 수준과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교육적 접근, 방법, 도구들을 개발하기 위해 교실너머의 협력기회를 가진다. 중요 사업 중 하나는 세계유산 교육사업과의 협력사업이며, 지역에 따라 에이즈 예방교육 자료집, 세계 기아원조 협력사업, 사막화방지 교육 자료집 보급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www.unesco.org/education/asp/).

National Coordinator와 교사들과의 직접 접촉, National Commission과 접촉할 것에 대한 조언이 있다. 또한 태국, 필리핀 등이 협동학교사업에 강하며, 특히 태국은 회교·불교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필리핀보다 저렴한 물가와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교류에 적합한 장소이다 (면담자료).

② 인문사회과학 분야

급속한 세계화시대에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인문사회 지역체 (Regional Unit for Social and Human Science in the Asia-Pacific :RUSHSAP)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정부와 관용을 발전·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 정책적 활동을 통해 모두에게 기회와 권위를 부여하고자 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반대중 운동(movement)을 일으키고자 한다. 관련사업으로는 과학기술 윤리, 인권, 평화 민주주의 원리증진 등을 추진한다.

③ 문화분야

미래의 도전에 직면해 문제해결, 혁신, 창조적 영감으로 모든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보전·가꾸어가는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지역공동체 기반의 대중운동을 모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련 사업으로는 문화적 권리옹호, 문화적 공동체 동원, 문화적 자산 안전보장, 문화적 자원 관리, 문화적 기업 양성, 문화적 관광 증진, 동남아시아 최상급 수공예품 인증, 아시아태평양 문화공연네트워크, 문화환경 관광영향, 세계문화유산 교육 등이 있다. 한 예로서 청소년세계유산교육사업을 살펴본다.

■ 청소년 세계유산교육사업 (Young people's World Heritage Education Project)

이 사업은 1994년 미래의 의사결정자인 청소년들을 세계 유산을 보존 보호하는데 참여시키고자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와 다른 문화에 대한 세계의 유산, 역사, 전통, 환경보전과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지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유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발견하게 된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문화재 보호참여, 의식 증진을 도모하며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와 접근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교사, 교과과정 개발전문가, 세계유산전문가들이 함께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방법적 측면에서 협동학교사업(ASP)의 네트워크와 세계유산본부(World Heritage Centre)가 사업을 연합 추진하며, 프랑스 Rhône Poulenc Foundation과 함께 노르웨이 개발협력기관(NORAD)의 기금지원을 받는다. 세계유산 청소년 포럼, 세계유산 교육자료집(World Heritage Education Kit)에 대한 교사 훈련세미나와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상 기술개발 코스 등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한다(www.whc.unesco.org/education).

그 외에도 수공예품 교환(Handicraft Exchange)을 통한 ASEAN과 한국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History in Asian Country가 준비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네트워크(APPAN)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장에 의해 설립되었고 한국 서울이 이를 위한 개발과 국제관계의 거점이 되고 있다. 공연가, 안무가, 무대, 조명디자이너들을 위한 교류 공간마련, 워크숍, 석사학위과정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다(www.appan.org).

2) 싱가포르의 청소년교류

(1) 싱가포르 청소년 청(National Youth Council)

①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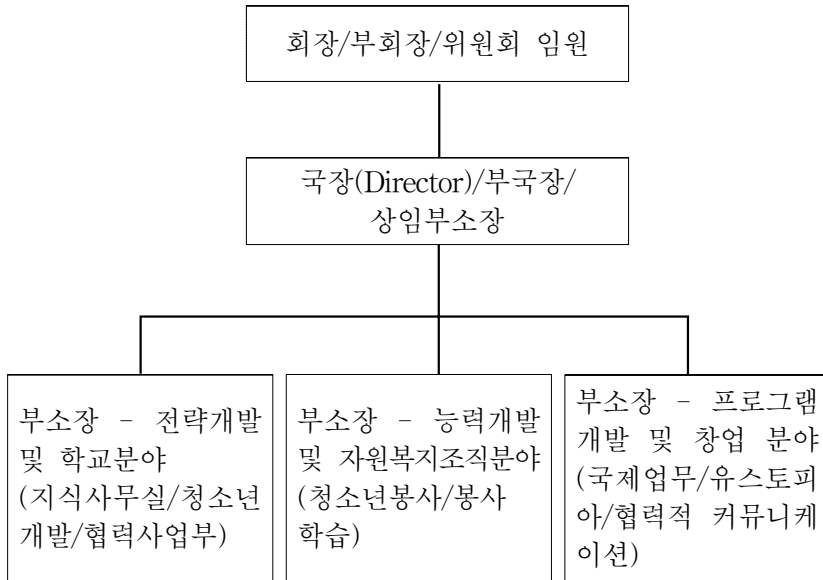
싱가포르 청소년청은 1989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국민연합(People's Association)의 부서이며, 청소년 부서를 위한 국가적 협력기관이다. 국가개발 및 무역 산업부 장관이 현재 8대 위원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책대상은 15~30세로 전체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고등교육 취학률은 40% 이상이다

청소년 청의 기능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 수행(청소년문화 등),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프로그램(해외봉사활동, 청소년단체/청소년기관 간 교류지원), 기금, 보조금, 수상식 등을 통해 청소년개발과 청소년기관을 후원 한다.

② 조직

청소년청의 조직 인원은 41명이며 3단계의 조직구도를 갖는다. 1단계에는 회장, 부회장, 위원회 임원진이 있다. 2단계에는 국장실에 국장(Director), 부국장, 상임부소장이 있고 3단계로 3명의 부소장이 있으

며 전략개발 및 학교분야 부소장(지식사무실, 청소년개발, 협력사업부), 능력개발 및 자원복지조직분야 부소장(청소년 봉사, 봉사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창업 분야 부소장(국제 업무, 유스토피아, 협력적 커뮤니케이션)등 3명의 부소장이 있다(www.1999.gov.sg).



[그림 IV-2] 청소년청 조직도

③ 예산

사업예산은 연 20~30만불 인데 이는 전체 기금 2천만불의 이자 액수이다. 사업기금과 보조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개발기금(YDF)으로 10만불의 기금이 있으며, 자선단체 기금모금 행사지원, 장애인 및 청소년단체 공동행사지원, 모험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지원, 청소년회의지원, 세미나 지원, 청소년 자원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또한 대학이 조직하고 청소년참여가 개방된 행사에도 지원한다.

둘째로, 청소년단체 개발기금(YOCDF)으로 5~6만불의 기금이 있

으며 주로 단체지원, 신생단체 지원, 도구(tool)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셋째로, 기타 봉사학습보조금, 청소년 해외 교류보조금, 청소년 연구기금 등으로 4-5만불이 책정되어 있다

(면담과 www.1999.gov.sg/user/award-funds.htm을 분석 정리).

④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사업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Celebrating Youth :

- 싱가포르 청소년상 시상(The Singapore Youth Award): 1975년부터 매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이나 사회에 공헌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상이다.
- 젊은 교육자상 시상(Outstanding Youth in Education Award): 매년 훌륭한 젊은 교육자에게 주는 교육부 장관이다.

ii) Helping Youth: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인 Project Bridge와 멘토링을 통한 사업이다.

iii) Globalizing Youth:

□ 양국간 교류사업

양국간 교류로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베트남, 싱가포르-일본 등과 교류가 있고, 이 외에 아세안 10개 국가와 영연방국가와의 교류가 있다(www.1999.gov.sg/user/partner-asean.htm).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청소년캠프

1991년부터 싱가포르 국가청소년위원회(1999)와 말레이시아 체육청소년부 주관으로 일주일 동안 두 나라에서 각각 40명씩 8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무인도 체험, 기관방문, 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실시하였다.

■ 아세안+3 지도자 행정 프로그램 (ASEAN+3 Leadership Executive Program)

2002년 10일간 청소년지도자, 공무원 등 33명이 참가(싱가폴 10명과 23명)한 가운데 “청소년기관발전을 위한 정보기술의 물결 타기”의 주제로 실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5일간의 팀 빌딩 프로그램과 5일간의 청소년단체관리를 위한 정보의사소통기술(ICT) 교육이 실시되었다.

■ Singapore-Indonesia Youth Cooperation

1997년 제 4차 양국간 청소년 포럼 이후 양국간에는 몇 번의 청소년교류 이외에 별 교류가 없었으나 2002년 싱가포르 청소년청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결과로 2003년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청소년 협력프로그램이 “Workshop on Manpower and E-Services”의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18명의 인도네시아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직원들이 워크숍과 정보기술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양성방식을 통해 자신의 나라에서 적용점을 찾으며 아울러 싱가포르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2004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국내 지방간 교환프로그램에 싱가포르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NYC, 2004a: 4-5).

■ Sino-Singapore Undergraduate Exchange Program

2003년 12월, 중국의 4개 대학에 50명의 우수 대학생과 교사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학생들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었고 시노-싱가폴 대학생교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교육부, 청소년청, 인력부, 무역산업부와 외무부에서 함께 개최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중국학생들에게 싱가포르의 문화유산, 교육체제와 산업 개발에

대한 개관적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현재의 발전과 미래에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5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시가지와 지방 교육기관들을 방문하고 관광 및 싱가포르 학생들과의 팀워크 다지는 활동에도 참가했다. 이들은 청소년청(NYC)의 연구공무원들과의 대화의 장을 통해 싱가포르의 국가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서로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NYC, 2004a: 6).

□ 해외봉사 활동사업

해외봉사 활동사업으로는 청소년 원정사업(YEP)과 해비타트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청소년 원정사업(Youth Expedition Project:YEP) : 1999년부터 시작된 청소년들의 해외 지역사회 봉사사업이다. 원정 전훈련과 3주간의 현장원정, 추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더 넓게 적용 할 수 있게 돕는다. 이웃국가 해외자원봉사 기금, 청소년여행경비, 자재 및 건축비, 프로그램 진행자 월급, 사무실 경비 등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3~4백 만불로, 18~25세 청소년 3~4천명이 참여하며 사업비의 70%는 정부부담, 30%는 개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NYC가 기금을 지원하고, SIF가 사업을 실행한다.

(www.nyc.gov.sg/user/partner-exped.htm).

□ 청소년 범죄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청소년범죄의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부처간의 세미나가 열렸고 아세안 세미나에서도 이 주제가 다루어졌다.

- 청소년범죄에 대한 부처간 협력위원회

1995년 청소년범죄 부처간 협력 위원회(Inter-Ministry Committee on Youth Crime:IMCY)가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되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회복을 위해 광범위한 수준에서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NYC, 2004b: 8-10)

- 2003년 청소년범죄를 위한 부처간 세미나

학교, 자발적 복지조직, 청소년 기관 등에서 온 280명의 참여자가 모여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경험과 협력방안을 나누었다.(NYC, 2004a: 13)

- 아세안 세미나(도시청소년사업Ⅱ)

2002년 5일간 아세안 국가별로 위기청소년지도자와 사회사업가 5명씩 45명이 참가하여 도시청소년의 필요와 그들을 돕기위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었다. 2002년 주제는 ‘청소년비행과 범죄 줄이기’였으며 아세안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www.nyc.gov.sg/user/partner-asean.htm).

iv) Rooting Youth

청소년지도자의 세미나, 청소년과 성인과의 대화, 정부기관과의 세미나 등이 있다.

- 청소년과 수상과의 대화 : 연 1회로 열리며 2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참여한다.
- 청소년과 정치인과의 대화: 채널 I TV에서 매주 방영한다. 대학생과 정치인, 고등학생과 정치인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싱가폴의 선거권연령은 21세)
- Meet the People : 지역사회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정치인과 지역시민과의 대화이며 중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⑤ 교류지원 방법

첫째, 기금지원의 측면에서 청소년 해외사업보조금(Overseas youth program grants)를 통해 지원하고 국제회의 등에 청소년대표자를 파견하는 비용(일부 경비지원)과 해외청소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기관연결측면에서 아세안과 한·중·일의 연결, 영연방국가의 연결, 청소년기관의 해외결연을 통해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지도자 교류지원의 측면에서 가능한 Joint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자 연수 파견, 아세안 Meeting, 영연방국가 회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에 지도자 파견 경비를 지원한다.

싱가폴과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이며 그 다음이 태국, 베트남의 순이다. 싱가포르와 아세안과의 교류상의 난점은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간의 경제수준 격차로 공통주제를 찾기가 어려운데 한 예로, 정보의사소통기술(ICT)문제의 협력에 있어서 수준의 차이가 난다. 이같이 아세안지역 국가간의 교류에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아세안+3와의 교류로 인해 더 어려운 상태이다. 다른 나라들과 Workshop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류사업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허가 등 해당국가의 지원정도가 중요하며, 비용 규모면에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항공료가 저렴하여 경비 또한 저렴해진다. 2003년의 교류 상황은 SAS등의 발생으로 감소한 편이다.

아시아 청소년교류를 위한 방안으로는 아시아국가 정부의 기금지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단체들이 교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주체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동남아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일본의 동남아 청년의 배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1974년 시작되어 30년 동안 실시해 온 사업으로 300명 정도의 동남아와 일본 젊은이들이 50일 동안 승선하여 동남아 국가를 순회하며 문화교류, 스포츠, 여가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과 우정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나라의 공무원과의 특별만남, 기관방문과 홈 스테이 프로그램도 함께 경험할 수 있다(NYC 2003: 14). 사업의 성공여부는 20년 전 참여자가 이 사업을 위해 다시 봉사 활동을 할 정도인 동창회(Alumni)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너무 경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아세안국가 교류사업을 위해 각 국가간에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필요경비의 국가간 재원 분담방식 산출법과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사업 참여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결정할 것인가, 누가 주관할 것인가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NYC 면담내용).

(2) 싱가포르 국제교류기금(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① 기관성격 및 설립목적

싱가폴 국제교류기금(SIF)는 1991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이나 정부기금지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직원은 60명이며 예산의 70%가 정부보조(외무부, 정보·문화부, NYC)이며 기타는 민간기금의 지원(정유회사, 로터리 클럽 등)을 받고 있다.

시민교육이 설립목적이며 초등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씩의 도덕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Junior College)의 핵심교과에 ‘국민교육’과 지역사회센터의 ‘국민교육’을 통해 싱가포르인의 의식 증진을 높이하고자 한다.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싱가포르인이란 자부심을 갖고 세계에 공헌하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싱가폴 21’의 주제 하에 기금모금이 이루어졌다(SIF 면담자료와 www.sif.org.sg의 내용).

먼저, SIF의 청소년사업은 봉사학습(Service-Learning: S-L)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는 싱가포르 청소년청(NYC)이 미국의 방법을 본따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중요한

가치와 생활기술을 향상시키며 자기개발을 하게 하는 체험봉사활동 형태의 학습전략을 채택하였다. 교육부의 국가교육부서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담당 교사들에게 봉사학습방법을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싱가포르 국제교류기금(SIF)도 청소년 원정 사업에 해외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접목시켜 기금지원을 해왔다. 이 봉사학습법(S-L)은 싱가포르 청소년사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국내적으로는 청소년 기구, 자원봉사기반의 사회복지기구, 학교에서, 대외적으로는 해외청소년 지역사회봉사사업을 통하여 확실한 학습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www.nyc.gov.sg/sl/sl_frameset2.html).

② 주요사업³⁹⁾

첫째, 국제 자원봉사 사업으로는 싱가포르 해외자원봉사(SVO)와 청소년 원정사업(YEP)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YEP이며, FOS는 저명인사들이 초청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국제적 네트워킹 사업으로는 싱가포르 친구들 프로그램(FOS), 해외의 싱가포르인 프로그램(OS), 유학생 공동체(isc@SIF)이 있다.

i) 싱가포르 해외자원봉사(Singapore Volunteers Overseas :SVO)

외무부 지원(Singapore Dollar로 1-2백만불)사업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장기봉사로는 교사, 의사 등이 참여하여 1년 정도 봉사를 하며, 단기봉사로는 2주간동안 대학교수, 외과의사, 유치원교사, 경연진 등이 아시아 국가에서 세미나 훈련 등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2-4명의 Team이 6개월에 1번씩 2주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한 팀이 1~2년간 동일 장소에 가서 활동한다(www.sif.org.sg/svo/).

39) 이 사업 부분은 SIF면담내용, 사업소개 팸플릿과 www.sif.org.sg의 각 사업안내와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Annual Report 2002~2003(2003), pp.6~29의 내용을 분석 정리 한 것임.

ii) 청년원정 사업(Youth Expedition Project: YEP)

2000년에 싱가포르 청소년청(NYC)과 함께 시작한 국제적 원정 봉사 활동이며 싱가포르 청소년들에게 능동적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감, 리더쉽, 팀워크와 그룹기술들을 배운다. 또한 외국의 지역사회 문화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개발문제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싱가포르 이해, 지역사회 개발문제, 타인의 삶에 변화를 주는 주체로서의 잠재력인식 등을 배운다. 싱가포르 청소년에게 자신이 싱가포르의 일부분임을 알게 하며 또한 싱가포르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한다. 예산은 178만불(USD), 3년간 1,040만불(USD)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활동지역은 아세안 국가와 그 외의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중국 등에서 활동해왔다. 활동기간은 평균 18일(최소 14일)동안 이루어지며 사전 활동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다. 그룹은 25명 회원과 2명의 지도자로 구성되며 SIF는 훈련, 지원, 리더 프로그램(싱가폴 모험리더 훈련:SALT)을 개발·지원한다

연간 210개 사업이 이루어지며 총 5,000여명이 파견되는데 대상 연령은 17~30세로 고등학생, 직업학교 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다. 지원방식은 SIF에서 프로젝트 경비에 5,000불을 지원하며, 개인에게는 경비의 60%(최저 900불)을 지원하고, 리더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경비의 부족분은 모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모금규모는 보통 3~4만불 수준이며 프로젝트 매니저가 헌옷수집 판매, 음식판매, 태국의 기념품 팔기 등의 사업을 통해 모금한다. 개인의 참가비는 평균 1,200불 수준인데 이중 SIF지원은 900불 수준이며 1인당 300불가량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학교, 도서관 세우기 등으로 평균적으로 3~4만불이 소요된다. 사업내용은 해당국가의 안전, 제어능력, 배움의 기회들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학교, 탁아소, 지역시설, 용수저장 시스템의 건설이나 보수, 환경·문화재 보전, 가내공업 개발, 기초건강 보호서비스, 건강교육 프로그램, 기본 정보기술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사후프로그램으로 2004년 동창회(Alumni)가 구성되었는데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며 교육부 장관이 자문위원이다. 가입은 자유이며 언제 어디서 다시 활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훈련·계획 등의 사후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애인·어린이들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조언을 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대상국으로 선호하는 국가로는 중국, 인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이고, 필리핀, 인도, 태국 등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는 지를 보고 배우기 좋은 장소인 반면 미얀마, 베트남은 정치체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배우기가 어렵다. 처음 3년은 중국이 주요 활동국이었으나 SAS 이후 인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바뀌었다.

보조금(Grants)은 개인, 조직, 단체의 해외사업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3만불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룹의 30%는 싱가포르인이며 외국인도 지원가능한 사업이다. 단, 여성·아동·건강·교육에 관한 사업이어야 한다(www.sif.org.sg/yep/).

iii) 싱가포르의 친구들 프로그램(Friends of Singapore: FOS)

싱가포르 외무부에서 지원하며 싱가포르를 위한 국제적 우정관계와 연결망을 구축하기위한 사업이다.

SIF에서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과 북미의 학생, 학계·언론계의 리더와 정치·경제 분야의 국회의원,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서 싱가포르 국내인사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 교환, 우정관계, 장학금,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타국가 국민들과 People to People 연결을 강화하며, 싱가포르의 문화, 통치방식, 생활방식 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며, 동시에 싱가포르인들도 교차 문화적 이해를 넓히고 타 국가에 대한 더 명확한 관점을 가지는 기회로 삼고 있다.

1992년에 6명의 미국 국회직원들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3년까지 33개국에서 온 295명의 외국인들을 방문해왔다. 관련 사업으로

는 방문, SIF-아세안 학생우정사업, 아시아 태평양 언론계 우정사업, SIF-전문대학장학금, 싱가포르-호주 젊은 사업가 대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보조금은 예술가로부터 기술창업자까지 발표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싱가포르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SIF - 아세안 학생 우정사업(SIF-Asean Student Fellowship)은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학생을 싱가포르에 초청하여 4-5개월간 학업기회를 제공하고 학점을 교환한다. 초청된 학생들은 학교생활, 교과 외 활동, 호스트 학생과의 교제 등을 통하여 싱가포르의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진다. 아시아 각국에서 4-5명씩 70명 정도가 초청되며, 보조금이 지원되고,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다 (www.sif.org.sg/fos/).

iv) 해외의 싱가포르인 프로그램(Overseas Singaporeans: OS)

세계의 흩어져 있는 싱가포르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91개 싱가포르인 Club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정보문화부 지원을 받으며 재원은 1~2백만불 정도이다.

해외의 싱가포르인과 정보교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그들이 싱가포르인으로 정체감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Club에 싱가포르 국경일 축하행사 보조금지급, 싱가포르 잡지 발송, SIF에 클럽 웹사이트 제공, SIF Award 수여, Camp singapore(해외교포 어린이들에게 역사와 민족성을 배울 기회제공)등을 통해 해외의 싱가포르인을 지원하고 있다 (www.sif.org.sg/os/).

v) 유학생 공동체(isc@SIF)

유학생공동체 프로그램은 문화 간 학습과 교환을 증진하며, 싱가포르인과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우정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로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싱가폴이 살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자 한다.

유학생공동체 파트너학생모임이나 지역사회기관과 타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즐겁고 의미있는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유학생을 위한 싱가포르 생활지침서를 발간(2003년)하였고, 타문화 훈련 워크숍, 호스트 패밀리, 네트워킹 세미나, 크루즈축제, 문화행사와 지역사회 봉사행사 등의 활동을 한다(www.sif.org.sg/isc/).

(3) 싱가포르 청소년운동 국민협의회⁴⁰⁾

(People's Association Youth Movement: PA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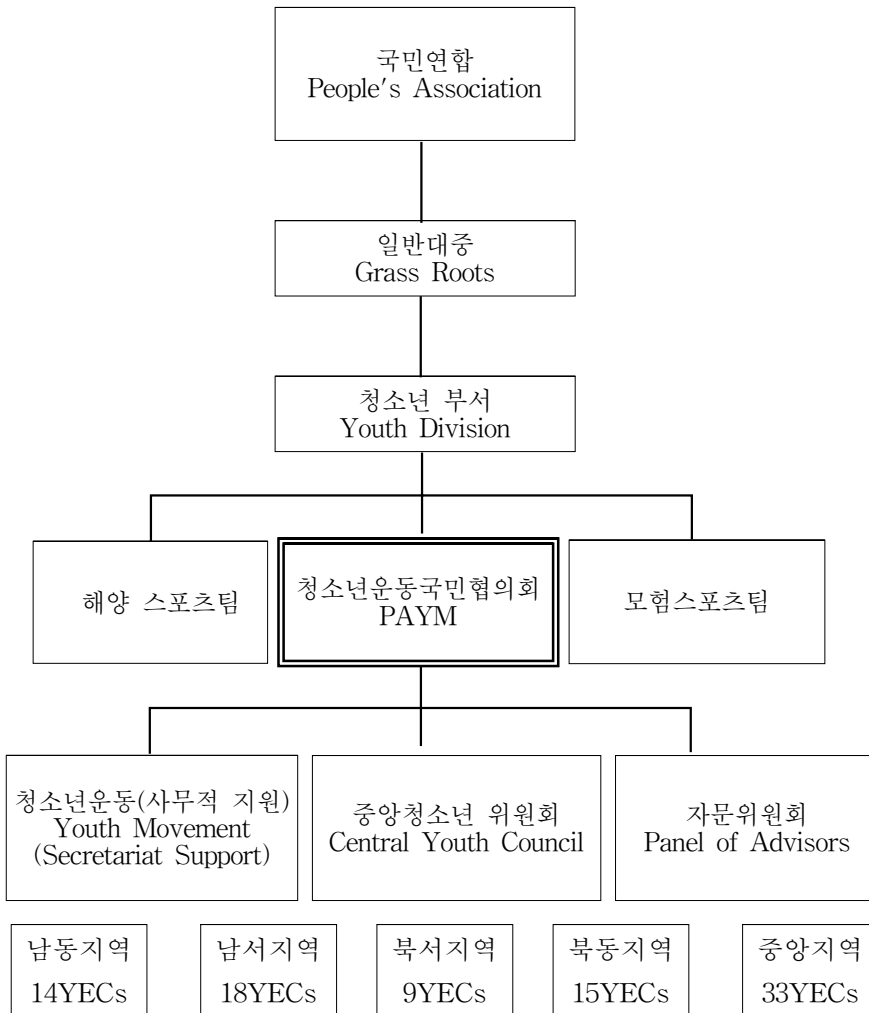
① 조직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정규직원은 15명이고 예산은 정부지원과 후원금 모금을 통해 충당한다. PAYM은 86,000명 회원(12~35세)이 가입한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청소년 조직이다. 전국 97개의 지역사회센터(Community Center)에 청소년모임이 있으며 15~20명의 청소년 행정위원회(Youth Executive Committee: YEC)가 중심조직이 되어 있다. 97개중 89개 지역의 지역사회센터에 YEC가 조직되어 있다. PAYM 회원 중 15세이상은 YEC에 가입 가능하며 모든 PAYM 회원은 회원 카드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PAYM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해 추진되는 운동이다. 지역센터/클럽(CCs)에 기반을 둔 97개의 청소년그룹과 중앙청소년 위원회(Central Youth Council:CYC)로 구성된 2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앙청소년 위원회(CYC: 25명 구성)는 PAYM의 정책결정부서이며, 선거로 뽑힌 의장들과 5개 지역개발위원회(CDC)에서 추천된 청소년 행정위원회(YEC)의 회원(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청소년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기획의원 3명, 기업인 3명)의 지원과 국민연합의 청

40) 이 부분은 PAYM면담내용과 비공식 사업소개서(Youth eMbracing the World)와 www.paym.org.sg의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분석·정리한 것임.

소년운동부서의 사무적 지원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운동과 중앙청소년 위원회(CYC) 아래 5개 지역 구분이 있는데 이 지역의 청소년행정위원회(YECs)들은 지역개발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다. 5개의 싱가포르 지역구 분은 남동지역(14 YECs), 남서지역(18 YECs), 북서지역(9 YECs), 북 동지역(15 YECs), 싱가포르 중앙지역(33YECs)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V-3] 청소년운동 국민협의회 조직도

② 사업

청소년 운동(Youth Movement)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i) 지역사회 봉사사업

청소년들이 국내와 해외의 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여 도덕적이고 이웃을 배려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 President Challenge(국가차원의 사업)과 ‘소원빌기(Make a Wishes)’ 사업이 있다.

먼저, President Challenge는 PAYM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2000년에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지역공동체 활동이며, 매년 방학기간인 9월에 열린다. 원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참여하여 도울 지에 대한 인식증진과 함께 사회봉사분야의 기금을 조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주로 자원봉사활동과 기금조성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0년부터 3년간 1천 3백만달러를 모금했다. 예를 들어, PAYM 모금행사, 자전거타기(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PA건물로 모임)등의 행사를 하며, 모금은 행사 후원 방식으로 Community Development Council에서 운영한다(www.pc2004.org.sg).

두 번째로 소원 빌기사업은 1996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소외아동, 노인, 장애인등을 위한 자원봉사행사를 개최한다. 1996년에는 800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소외아동을 위한 해안 자선걷기행사를 하였고, 1997년에는 노인들을 도와 중국오페라 공연관람, 차이나타운 추억길가기를 통해 노인들이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왔으며, 2002년에는 특수아동 복지사업을 하는 여성복지회를 위한 모금행사를 하였고, 2003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별접시받침 접기 모금행사 등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헌혈, 장애인의 동물원 외출 돕기 등을 하며, 특히 다운증후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통합국민협의회(PAYI)는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포크댄스교실, 예술공예교실, 컴퓨터교실, 자연학습, 소풍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ii) 정보기술사업

온라인 가상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청소년-기성세대 온라인 대화, 디카 사진권 무상 제공, 웹페이지만들기 시합등을 추진하였다.

iii) 국제교류

PAYM의 주요활동 중 하나이며 청소년들의 상호이해와 친선강화, 국제감각을 함양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네팔, 몰디브, 일본(가고시마, 오사카), 상하이, 인도양의 세이셸(Seychelles)과의 교류가 있어 왔다. 일주일 동안 방문(관광, 역사, PAYM 등 방문), 교환프로그램, 홈스테이(주말 같이 보내기)등의 활동을 하며, 상하이는 7-12명이 방문했고, 기타지역은 15~20명이 방문했다. 참가연령은 12-35세이다.

iv) 전략적 동맹

학교, 청소년기관, 기업(나이키, HP 등 후원, 길거리 농구대회 등 실시), 대학 등과 협동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하는 사업이다.

v) 모험과 해양스포츠사업

PAYM이 모험팀, 해양스포츠팀과 함께 요트, 자전거타기, 등산, 바다수영 등 다양한 모험과 각종 스포츠행사를 추진한다.

(4) Youth Challenge⁴¹⁾

① 조직 및 운영

1985년에 시작하여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

41) 이 부분은 Youth Challenge 방문시 면담자료와 www.youthchallenge.org.sg와 Youth challenge(2002), Youth challenge 16th Anniversary Commemorative Issue, pp.56~61의 내용을 정리요약 한 것임.

램, 창업가 정신함양,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정규직 1명의 비정부기구(NGO)이며, 기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 사회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무보수로 200~3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3명의 인턴직원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인턴쉽(보수 지급됨)으로 일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지난 20년간 기금을 모금해왔으며, 사회복지단체 가입을 통한 시민들의 기부금 모금이 주요 재정원이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CD, 펜, 인형 등 소품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이 2004년 현재 싱가포르 달러로 30만불이다.

싱가폴의 청소년단체는 400여개 정도이며 이중 사회복지단체에 가입한 단체는 100개 미만인 상태이다. 기금모금을 위한 물건판매와 같은 정부허가는 필요할 때 마다 받을 수 있으며 모금액수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 정부보조금은 극히 일부분이므로 (NYC 전체 사업비가 30만불 수준임), 사업별로 기업의 재정, 정보, 물품 등의 후원을 받는다.

② 사업

Youth Challenge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i) 독거노인 돕기 : 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아파트 2동을 인수하여 매주 방문하며 노인들을 위한 월별 행사를 계획하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에 목적이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노래방가기, 공연, 행사개최와 군인들의 도배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 ii) 클럽교환활동 : UN자원봉사프로그램과 UNESCO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며, UN회의, UN사업, 해외봉사활동, UNDP사업,

동티모르 등 싱가포르 밖의 해외활동에 파견하여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세계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원으로는 16~40세 사이의 자원봉사자 200~300명이 있으며 가장 활동적인 집단은 중, 고, 대학생이고 그 중에서도 대학생이 가장 활동적인 반면 직장인은 덜 활동적인 편이다.

운영방법은 해외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행사가 있으면 지도자를 지명하고 회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모집한다. 비용은 참가자 부담이며 학생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해서 50%를 지원받고 전교생에게 보고를 한다. 연 150명 정도가 참여하며 참가자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고 심하게 경쟁적이지도 않다.

해외 참여 사업으로는 동티모르 도서관 건립, 의약품 및 물품 지원, 고아원방문 및 교복기부활동 등이 있다. 2004년 사업으로는 보스니아 지원, 몽고지원(컴퓨터 센터), All China Youth Federation과 연계하여 중국의 한 도시에 컴퓨터 센터를 건립한다. 컴퓨터지원 및 청소년들이 2주간 컴퓨터 가르치기를 실시하며, 2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iii) 청소년 창업정신 네트워크

청소년에게 사업가 정신과 용기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70명의 이사회 회원이 있으며 조직·창업자·회사 간부 등이 주요 회원이며, 이들이 학생들에게 멘토를 제공한다. 학교의 청소년클럽이 세미나 등을 계획해서 이사들의 초청강연을 준비하며 이사회 회원들의 회사에서 학생들이 소속한 직업전문학교의 Internship을 실시한다. 청소년 회원은 현재 300명 정도로 2개 학교에 클럽이 구성 되어 있다.

3) 인도네시아의 청소년교류⁴²⁾

(1) 교육부 청소년 관련국

①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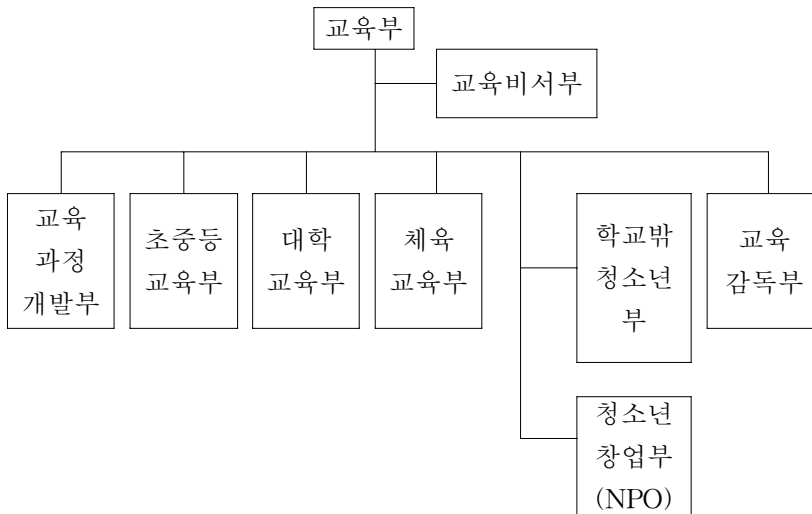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교육부 산하 청소년국은 다양한 국가적·국제적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국제적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으로는 호주·인도네시아 기관, 일본 수상과의 협력기관, 캐나다 세계 청년 등의 부서들과 협력해왔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건설에 관심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리더쉽, 기술, 열정, 이상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청소년국은 교육기관을 다루며 청소년창업부가 강하다. 청소년창업부는 청소년국의 하부조직으로 청소년에게 창업교육을 하는 사적교육기관(NPO)이다.

학교밖 청소년부는 청소년단체를 다루며 15~35세의 학생 외 청소년이 정책대상이다. 대표적인 조직은 KNPI(인도네시아 국가청소년위원회: Komite Nasional Pemuda Indonesia), 청소년단체협의회(National Committee for Indonesian Youth) 하에 이슬람부, 힌두부, 불교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부는 관련인원이 6,000명 정도이며 예산은 10억루피이다. 교육부내의 청소년교육담당 인원은 600명이고, 이 중 청소년국의 인원은 76명정도이다.

42)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 청소년국 방문시 면담자료와 Directorate of Youth Affairs(2003), Indonesian Youth Profile, pp.7, 13-28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임.



[그림 IV-4] 교육부 청소년국 조직도

② 사업

인도네시아 청소년국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i) 청소년 리더십교육

□ 국내사업

- 독립기념일 국기계양식: Paskibraka 즉 ‘인도네시아 역사적 깃발 계양팀’으로써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매년 8월 17일날 이루어진다.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다양성안에서의 일치성’을 주제로 계양식팀으로 참여한다.
- 지역간 청소년 교류사업: 30지방이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간의 교류를 통해 각기 다른 문화와 그 지역의 가내공업, 기업 등 자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화적 관점과 실험정신을 배양한다.
- SP-3프로그램: 1989년에 시작된 미개발지역의 빈곤을 개선하고자하는 정부프로그램의 일부로써 대학졸업생들이 지방에 가

서 농업기술, 보건서비스, 자연보호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 생산적 청소년사업 그룹: 청소년국에서 국가발전, 특히 지방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사업과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며 훈련시리즈가 끝나면 훈련받은 청소년은 청소년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스호스텔: 32개의 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국제교류사업

■ 지역간/국제간 교환학생

비정규 교육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호주·캐나다·일본과의 청소년 교류는 주로 자연보호프로그램, 위생시설 개발, 지방의 영어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교류이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싱가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아세안 청소년 협력프로그램 등이 있다.

■ 자생교육(Life-skill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의 독립교육으로 기술교육, 창업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 생활과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향상시키는 교육이며 고용기회 창출과 자기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실업자, 미취학자, 빈곤층이 대상이다.

■ 마약퇴치운동

마약퇴치운동을 이끌 청소년지도자 교육, 15세-3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퇴치교육을 실시하며 교사, 학생을 포함해서 KNPI, 전교조, 경찰, 마약퇴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청소년 교류

유럽연합의 청소년 교류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에 속하는 개별국가와 민족들이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상호이해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사회 안정 및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럽지역의 청소년교류사업의 추진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유럽협의체 주도사업의 경우, 유럽협의체(각국 정부 또는 유럽연합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가 기획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각 국가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참가국가는 회원국가로서 예산지원과 행정적 협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 및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사업기획과 운영은 유럽연합 협의체가 주관하고 각국은 각국 청소년 교류 담당 행정부처로부터 시작해서 최하위 단위인 각급학교,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청소년단체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 교류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첫째, 유럽 지역간 청소년교류사업이 유럽통합의 전략적 기지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이고, 둘째, 유럽 청소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기본환경을 제공하고, 유럽 청소년을 결집하여 유럽지역 발전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청소년관련 주요 교류사업은 크게 학생교류, 직업훈련 교류, 청소년분야의 교류 등으로 분류된다.

1)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 초, 중, 고, 대학생 교류를 통한 문화교류 프로그램

- ① 에라스무스: 대학생에게 외국체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3-12개월 간의 프로그램으로 장학금, 체류비, 여행경비를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유럽대학간 파트너십을 유지한다.
- ② 코메니우스 : 초, 중, 고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써 유럽지역간 학교들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파견근로자 자녀의 문화적 충격 극복을 지원하여 유럽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최장 3년간, 총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유럽지역 문화, 환경보호, 역사이해, 정치교육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링구아 :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외국어 습득 프로그램으로써 유럽지역의 외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한다. 공동프로젝트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2)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 : 유럽지역간 직업교육훈련

유럽지역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향상과 직업기술교류를 통해 유럽의 직업기술 수준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가간 연계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알선과 교류사업이 이루어진다. 한 프로젝트에 3개국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며, 1~3년간 총 경비의 75%를 지원한다.

3) 청소년 분야 사업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럽연합의 청소년 분야 사업은 유럽지역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지

역당국 및 사업담당자, 자원활동 단체, 중앙이나 지역차원의 청소년정책가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유럽을 알고 유럽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사업영역은 유럽 연합 내 국가간 뿐 아니라 비회원국가와의 청소년 교류활동, 자원봉사활동, 청소년창안활동 등이 그 주요한 영역이며 학교·사회·직업훈련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사업과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Youth for Europe

EU 국가 내 외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최소한 3개국 이상의 다국간 교류 프로그램, 또는 국제적 경험이 없는 특수 청소년집단이나 단체의 양국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상대국 사회·문화의 이해, 우의 증진, 세계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형성시키는데 있다.

② European Voluntary Service

18~25세의 청소년에게 타국에서 6~12개월 머무르며 지역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안목을 넓히며 새로운 사회 문화적 환경을 체험하게 한다. 청소년들은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책임감과 자신감을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의 장래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청소년의 참신한 관점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③ Youth Initiatives(청소년 주도적 활동)

청소년의 주도성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집단 스스로가 창안하고 실행하는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④ Joint Actions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로 다른 교육영역, 즉 사회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영역간의 연계활동을 지원한다.

⑤ Support Measures(지원조치)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인력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분야의 협력과 파트너쉽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활동, 청소년지도자 훈련지원,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활동, 청소년문제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지원활동 등이 이루어진다.

3. 북미지역의 청소년교류

1) 미 국무성 교류 프로그램

미 국무성 산하 공보처(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교육 문화부에서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통해 시민교류의 일환으로 청소년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보조금은 미국 측 참가자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운 국제기관간의 연계 창출, 해외 인사에게 미국에 대한 정보 소개,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국제적 관심과 참여 증대, 비영리조직의 사적 기금에 대한 접근기회 증대, 해외 인사들에게 미국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 장기적으로는 국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미국과 타 국가의 차세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하도록 중등학교의 학생과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상호이해와 지도력개발, 교육개혁, 민주주의 이상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 국무성 공보처 산하 교육문화부(Educational & Cultural Affairs Bureau) 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주요 교류 프로그램은 20여 개 정도이다.

① 미국과 외국의 차세대 정치 지도자(25세~40세) 교류프로그램

②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젠 학교와 미국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고성능 컴퓨터와 인터넷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상호작용을 증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미국 학교와의 협력관계를 증대하며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시민적 참여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고등학생의 홈 스테이를 통한 교환 학생 프로그램

④ 아랍 등 이슬람권 중등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Building Respect through Internet Dialogue and Global Education, BRIDGE)
아랍과 이슬람권 국가에서 중등학교를 선정하여 다른 학교와 온라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개 중동 및 동남아시아 학교와 미국 학교 간에 연계를 형성하고 외국 학생과 교사대표의 미국방문을 지원한다.

⑤ 미국-독일 간 의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1983년부터 미국과 독일 의회의 입법을 통해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14,000명의 미국, 독일 청소년이 참여하였다. 전액 장학금으로 1년 동안 체류하며 학교교육과 노동경험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15~18세 중등학교 학생대상의 홈스테이 방식 학생교류와, 18~24세 사이 청년 대상의 6개월간의 고등교육기관·어학연수기관·기업에서의 연수가 있으며, 18세의 실업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개

월의 직업학교 훈련과 2개월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⑥ 미래지도자 교류 프로그램

1992년부터 구소련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사회에서의 생활을 경험시킬 목적으로 실시되어왔으며, 지금까지 12,000명의 구소련 청소년에게 미국가정 생활과 학교경험을 제공해 왔다.

⑦ 미국-독일 협력 프로그램

미국-독일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미-독 간 700개의 적극적인 인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 매년 5천명의 미국고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독일의 파트너를 방문해왔고, 반대로 8천명의 독일 고등학생과 교사가 미국가정과 학교를 방문해왔다.

⑧ 미국-사우디간 청소년 외교대사 교류

미국과 사우디의 청소년/지도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실시되었다. 15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상대국에 3주 동안 체류하며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⑨ 동유럽과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⑩ 유라시아지역과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⑪ 동유럽과의 청소년지도자 프로그램

15~18세 청소년/청소년지도자에게 시민교육, 지도력, 갈등해결, 지역사회활동 등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칸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민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4주간의 프로그램은 워크숍, 지역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의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홈 스테이 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⑫ 미국-중국 청소년 교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상호교육과 학생참여의 개발을 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등학교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25개 학교씩 총 50개 학교가 자매 결연을 맺고 인터넷을 기반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상위 12개 학교의 연계에 대해 이듬해 3~4주간의 교사학생 상호교류를 실시한다.

⑬ 미국-이스라엘 우정의 연맹

양국의 다 민족성을 대표하는 중등학교 학생의 교류를 증진, 양국의 학생이 민주주의의 공유된 역사와 가치, 관심을 탐구하도록 한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은 1961년 미국 교육문화 상호 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을 제정하고 15세에서 18세 외국 청소년들이 미국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학교교육에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미국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가정(Host Family)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미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학생들에게 미국의 학교에서 학습하며 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학습경험을 갖고자 하는 미국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비영리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재단은 미국 호스트패밀리를 관리하고 해외 파트너 기관들을 통해 선발한 교환학생을 각 가정에 배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와 청소년 교류이념

(1)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의 역사적 분석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면 근대이전의 조선은 중국 외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동남아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우연적인 적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중국 역시 자국 우월의식에 기초해 타민족에 대해서는 통제, 지배적 조공관계를 맺어 왔다.

근대 이후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이주는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따른 것이어서 동남아 현지사회와는 갈등적 관계에 있었으며 일본 역시 동아시아 팽창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국주의적 점령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갈등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결국 동아시아지역 국가관계는 교류협력적이라기 보다는 지배와 통제, 팽창주의와 점령 등으로 인한 적대적·갈등적 관계가 기축을 이루고 있다.

(2)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이념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아시아지역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 청소년은 상호교류를 통해 자국중심주의의 협소한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식민주의적 침략과 지배로 인한 피해국-가해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용서라는 화

해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출되는 역사분쟁은 각국의 민족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진정한 신뢰기반을 형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후소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역사전쟁, 동북공정에서 보여 지는 중국의 신패권주의의 우려 등은 동북아국가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은 중일의 패권 경쟁을 저지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이란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상호존중과 평화의 이념을 공유시키는데 있다. 동아시아 청소년들 역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역사적 화해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의 경쟁적 구도를 탈피하여 아세안국가와의 피해국으로서 지니고 있는 역사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상호호혜적인 관계 형성과 교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청소년은 상호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해를 공유하고 감수성을 함양**하여 새로운 공동체적 지역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동아시아는 유교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적 문화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 종교, 관습과 의식, 민족성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한, 중, 일 동북아 3국은 상호호혜적이고 우호적인 수평적인 교류의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고 자국중심적, 자국우월적 문화해석이 강해 수평적 의사소통과 교류에 방해가 되고 있다. 상호적대적인 역사적 배경, 이념적 차이,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갈등 때문에 동아시아의 교류협력은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용과 존중, 감수성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롭고 독자적인 동아시아지역 문화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인류문화를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동아시아 청소년은 상호교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한국은 식민지 지배와 6.25전쟁이라는 사회적 악조건을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해 낸 국

가이다. 대규모 인구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강점은 시민사회운동에 의한 민주주의 성취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은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다. 강력한 국가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면서 성장한 시민사회의 운동력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점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가산제적 성격의 국가권력은 시민사회의 성장을 억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 하에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수하르토 체제의 붕괴로 민주화가 시작되었지만 과거 권위주의 세력이 민간정부를 통제하고 있다. 태국의 탁신정부 역시 국가주도적 사회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시민단체들은 가산제적 국가권력을 청산하고 보편적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통한 사회적 신뢰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성취해 낸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가치 있는 자산을 청소년교류와 연대 등 시민사회운동 모델을 통해 확산시킴으로써 동남아 국가의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 화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존중, 인권과 평화 등과 같은 이념이 동아시아 청소년에게 공유될 때 동아시아 지역은 평화와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미래의 지도자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각국은 이상과 같은 이념에 기초하여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현황

(1) 정부간 청소년교류현황

2003년까지 교류인원 수를 분석할 때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국이 50.9%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이 30.0%로 정부간 청소년교류의 80.9%가 동아시아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아세안청소년 초청교류사업인 한·아세안 청소년교류사업, 한국청소년을 일본에 파견하는 우정의 계획 등이 실시되어 왔다. 정부간 교류는 지역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십년이상 기간 동안에 참여한 인원이 모두 3천여 명에 불과해 참여 인원수가 적다. 내용적으로 볼 때 주로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방문이 주를 이루며 견학·답사위주의 초보적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 현황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현황을 분석할 때 한국과 자매 결연을 맺은 외국자치단체 중에는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 동북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북미국 19.7%, 유럽국 12.9%, 중남미국 5.4%, 동남아국 5%, 서남아·대양주국 4.5%, 아프리카·중동국 1.5%의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국은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 동북아 4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남아국가와의 자매결연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대부분 경제·통상교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교류 또한 공무원, 전문가 등 성인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교류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교류내용을 볼 때, 일주일 이내의 단기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교류인원도 15명 이내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홈스테이나 문화교류, 문화체험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교류 이외에 미술, 합창단, 문예작품 전시회, 축구단 교환 등 문화,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단체 청소년 교류현황

청소년단체의 교류사업 건수를 분석할 때, 동북아국가와의 교류사업 건수는 69.7%, 동남아국가와의 교류사업 건수는 12.1%, 서남아·대양주 국가와의 교류사업 건수는 4.2%, 유럽 국가는 2.4%, 중남미국은 0.6%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국가와의 교류사업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사업 임을 알 수 있다. 교류내용은 탐방, 견학, 문화 활동 등 일반적 수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국제워크캠프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가 열의가 높다.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워크캠프가 지난 5년간 94개 사업에서 408개로 4배나 급증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몽고,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워크캠프에 참여한 참가자 수가 20배나 성장하였다.

비영리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지역개발, 봉사, 환경, 교육 등 지구적 이슈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활동영역이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향후 국제비영리단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다.

해외봉사와 워크캠프 등이 대학생 이상이 주로 참여하는 청년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면, ‘자연과 청소년’이라는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학생 및 캠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 어린이 캠프, 아시아 청소년의회, 지구촌 문화스케치 등의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역과 가장 활발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수준이 취약하다. 정부간 교류의 경우,

교류약정을 맺은 국가와 소규모 인원만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가고 있지만 청소년교류사업 비중은 대단히 낮다. 청소년교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법이나 제도, 기금 등의 국제교류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교류사무소, 또는 국제교류시설 등 청소년교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내용도 미술전시회, 음악회, 체육교류 등 간접적인 교류보다는 직접적인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적 교류의 질적 수준도 단순한 견학, 탐방의 수준을 벗어나서 워크캠프, 해외봉사, 중·장기 교류 등을 통한 해외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3) 외국의 청소년교류 사례분석

(1) 아세안(ASEAN) 청소년교류

동남아시아 10개국은 아세안 조직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아세안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장관급회담을 통해 아세안 청소년 발달을 위한 아젠다를 채택하였다. 아세안 장관급 회담에서는 아세안 청소년의 날을 지정, 기념하면서 ‘아세안 청소년의 상’ 수여라는 활동을 정하여 기념하고 아세안 의식 증진, 시민교육, 고용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제휴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아세안 청소년교류사업과 공동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기술교육사업, 아세안 청소년상 시상, 도시청소년사업(비행줄이기)이며 이외 아세안연구를 통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아세안의식 증진, 아세안청소년캠프, 아세안지역퀴즈대회 등을 실시한다.

아세안기금은 청소년사업으로 아세안 지역의 가난한 우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역장학금사업, 지역 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끔 하는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업청소년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 아세안대학 네트워크(AUN)의 AUN 교육포럼, 아세안청소년문화포럼, Young Speaker Forum 등이 있다.

아시아-유럽기금은 문화교류, 지식교류, 인적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사업으로는 청소년과 젊은 관료,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ASEM Youth Dialogue,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해당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를 관찰하는 ASEF Youth Explore Programme 프로그램이 있다. ASEF Youth Contact Programme을 통해서는 아시아-유럽국가 간 청소년기관, 단체에 대한 후원, ASEM 국가의 청소년과 자원봉사지도자가 2주일 동안 참여하는 청소년캠프, 청소년지도자 훈련코스, 아시아-유럽 청소년자원봉사자 교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콕에 있는 유네스코는 교육분야의 협력과 더불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정부와 관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보전하고 가꾸는 운동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세계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청소년들을 세계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참여시키는 사업이다.

싱가폴의 청소년교류는 싱가포르 청소년청과 싱가포르 국제교류기금, 청소년단체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청소년청은 'Globalizing Youth'를 청소년정책의 한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간 교류사업, 해외봉사활동사업, 청소년범죄관련 부처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봉사활동사업으로는 청소년원정사업이 있다. 이에 대한 기금은 청소년청이 지원하지만 사업은 싱가포르국제교류기금(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이 실행하고 있다.

싱가폴 국제교류기금은 정부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으로 시민교육과 봉사학습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원정사업 지원, 해외 젊은 지도자 초청사업, 홈스테이, 학점교환을 축으로 한 해외대학생초청 교류사업등을 한다. 또한 UN 등 국제회의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클럽교환 활동이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는 크게 학생교류, 직업훈련교류, 청소년분야의 교류로 나뉜다.

먼저, 초, 중, 고 대학생 교류를 위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이 있다. 이 중 코메니우스 프로그램은 초, 중, 고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유럽 지역 학교간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 충격의 극복을 지원하며 최장 3년간 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링구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외국어습득 지원 프로그램으로 공동프로젝트와 직접 접촉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프로그램은 유럽지역간 직업교육훈련이며,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국가간 연계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직업알선과 교류를 지원하며, 총비용의 75%를 지원한다.

청소년분야 교류사업은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Youth for Europe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외청소년집단의 교류이다. 유럽청소년자원봉사는 18-25세 청소년이 타국에서 머무르며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으로 유럽연합 청소년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3) 북미지역의 청소년교류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미 국무성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에 의해 15-18세 외국청소년들이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숙박하며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교육에 참

여하는 프로그램이다. 6개월이나 1년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립학교와 홈스테이 자원봉사 가정을 축으로 세계의 젊은이가 미국사회에 와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머물며 미국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법적으로 잘 정비된 체계화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다.

2. 정책제언

1. 동아시아 청소년과의 중장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문화교류법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동아시아 지역은 향후 한국과의 교류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비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동아시아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선호도는 서구문화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청소년들이 동아시아지역 청소년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교육문화 상호교류법’을 통해 세계의 청소년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미국의 청소년들을 세계에 파견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장기 청소년교류시스템을 구축하였듯이, 한국청소년의 동아시아 파견, 동아시아 청소년의 한국 초청이 가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모집체계, 학교에서의 국제학생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캠프나 회의 등 단기교류로만 이루어지는 현재의 청소년교류를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며 동아시아 청소년의 상호이해를 심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청소년 교류기금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동아시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동아시아 청소년교류는 국가 간 개별교류나, 아세안 역내 교류, 아세안+1(한국, 일본, 중국)이 주된 형태이며 아세안+3의 결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중, 일 등 동북아 국가 간의 지역 협력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유럽연합처럼 기금 조성을 통한 공동사업을 개최하여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아 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와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 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력이 있는 동북아 3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동아시아 청소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먼저 동아시아 청소년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각 국가에는 사업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 동북아 청소년기금으로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Asian Voluntary Service

유럽연합의 European Voluntary Service와 같은 아시아지역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동아시아지역 청소년 워크캠프 기금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지역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동북아 청소년들은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호, 빈곤지역 개발, 환경보호, 소외계층 지원 등의 워크캠프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② 동북아청소년의 언어학습활동 지원

동북아청소년의 의사소통수단은 영어가 되고 있다. 동북아청소년이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청소년 창안활동지원

동북아 청소년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청소년창안활동을 지원한다.

④ 동북아청소년 여행지원

동북아청소년이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동북아청소년의 동아시아 지역을 함께 여행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일례로 동북아청소년 시베리아 횡단열차여행 같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⑤ 동아시아 청소년 퀴즈대회 개최

동아시아 청소년의 아시아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동아시아의 청소년으로 시상한다.

3. 아세안 + 3 동아시아 청소년·교육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유학, 취업, 여행 등 동아시아지역 청소년교류와 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청소년·교육 장관회의를 통해 동아시아지역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 간 학위인정, 제도교육과 비제도교육 상의 적극적인 교류외교정책

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① 동아시아 지역 간 유학, 연수, 단체여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 인프라 마련 및 청소년 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 현안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 ② 서울, 북경, 동경, 방콕 등 등 국제도시 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도시에 외국청소년 전용숙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한다.
- ③ 동아시아국가의 크고 작은 청소년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④ 이 외에 학점교환문제, 교환학생제, 동아시아 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다.

4.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제교류사업비로 확보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사업비를 확보해야한다. 일본이나 싱가폴은 국가가 국제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은 성격상 고비용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 중 일정 부분은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에 할애하여 동아시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별히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5. 청소년 국제교류 특성화시설을 지정하고 청소년 여행촌을 개발한다.

중국, 일본 등 외국 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과 여행정보 제공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청소년을 위한 숙소를 확충한다. 교통편이 좋은 대도시 생활권 수련시설 중 국제화 특성화 시설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홈스테이 연계나 도심형 유스호스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연계, 국내여행정보 제공 및 상담, 외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를 비롯한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와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촌을 개발한다. 국내청소년여행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청소년여행명소가 발굴되면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자유롭게 여행하게 됨으로써 여행을 통한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6. 동아시아 청소년센터(동아시아청소년연구원)를 설치, 운영한다.

동아시아의 청소년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교류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원 부설기구로서 동아시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동아시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아시아청소년연구원을 두어 동아시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청소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7. 다양한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해 교류의 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① 동아시아 청소년 네트워크 지원

청소년 NGO의 동아시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② 동아시아 청소년인권 프로그램 개발, 확산

아직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한 동아시아 사회가 많다.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아시아 청소년 사업으로 실시한다. 동아시아 청소년인권대학과 같은 사업을 개발하여 한국의 시민운동이 동아시아 기타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가칭) 동아시아 청소년인권 연대와 같은 국제연대기구를 구성해 동아시아 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시민의식을 확산한다.

③ 동아시아 청소년 중장기체류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기업 후원
금 조직

동아시아 청소년이 국내에 중장기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 교육정책 등 인접 부문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이 교환학생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사회, 인권운동 등을 이해, 학습하게 한다. 또한 농, 산, 어촌지역, 빈곤지역 등에서 국제워크캠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아시아의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을 초청하는 워크캠프 등을 위한 재원으로는 동아

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등의 후원금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④ 동아시아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들에게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이나 문화예술전당, 문화센터, 지역연구기관 등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문화아카이브(East Asian culture archive) 구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관점과 이론 및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⑤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

청소년 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교류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류활동 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동아시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아시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아시아 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

참 고 문 헌

- 국사편찬위원회(1986). 朝鮮王朝實錄.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김광익(1998).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제 21권 제 1호. pp.3~26
- 동남아선교뉴스레터. 제19호(2001.09). pp.4~6
- 동남아선교뉴스레터. 제22호(2002.03). pp.15~19
- 문화관광부(2003).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사명(2004) 동남아 경제발전과 정치변동의 동학. 동남아 정치변동의 동학. pp.27~36. 서울: 오름
- 박성훈(2001).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현황과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6권 제2호. pp.187~226.
- 박은홍(1999). 동남아시아와 사회적 자본: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지역학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장식(2000). 동남아시아 지역성에 대한 인식론적 대비. 동남아시아연구. 제 10호. pp.221~249.
- 배궁찬(2003a). 신정부의 대동남아 정책방향: 동아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_____(2003b). ASEAN + 3 협력과 동아시아 정체성.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 pp.279~311.
- _____(2004).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외교과제 : 지역협력 전략을 중심으로. 8월. pp.3
- 백영서 외 편(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백종국(1999). 동아시아모델 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 외환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3호. pp.96~116.
- 송주명(1996).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주의: 역사적 접근. 지역연구. 5권 4호. pp.133~163.

- 안청시(200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민주주의와 지역협력
에 대한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제 12권 제 2호. pp.19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1). 高麗史.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와다 하루키 외 편(2001)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pp.189.
서울: 오름
- 유스클럽. 미지센터(2004). 2004 국제교류박람회 디렉토리
- 윤철경(1999). 한·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2003). 연령대별 외국청소년정책 비교 및 정책대안.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이요한(2003). 동아시아협력이론의 분석과 적용: ASEAN + 3을 중심
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3권 1호. pp.313~339.
- 임성택(2002). 청소년의 타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증
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병욱(2002). 탈냉전시기 중국과 아세안간의 정치관계연구. 대한정치
학회보.(2002.2.28)
- 정문일 외 편(2000). 서남 이양구회장 10주기 추모 국제학술대회 논문
집.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영순(2001). 극동·동남아시아 3국 역사교과서 상호관련내용 분석:
한국,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34호. pp.37~57.
- 제럴드 탄(1997). 아세안(ASEAN) :경제발전과 경제협력, 권기철·김홍
구 역. pp.17~22. 서울: 전예원
- 조연순(1996). 세계교육 프로그램의 비교분석: 미국, 동남아시아, 한국
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4권 3호. pp.359~383.
- 조흥국(1995). 베트남 민족주의의 두 얼굴. 민족현실, 제 2권. pp.40~42
- _____(1998a). 1910년 이전 태국 화인사회 연구. 민족과 문화, 제7권,
pp.300~301

- _____(1998b). 동남아 역사의 개관. pp.60~62. 서울: 서강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 _____(1999). 근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 접촉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 8권 제 1호, pp.32
- _____(2000a). 동남아 화인의 역사와 정체성. 동남아의 화인사회. pp.14~20. 서울: 전통과 현대
- _____(2000b). 동남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국제이해교육 3. pp.50~51
- _____(2001). 14-17세기 동남아-중국-일본 무역관계. 동남아시아연구, 제 11호, pp.39~40
- _____(2002). 메콩강의 경제적 잠재력과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메콩강과 지역협력. pp.11~12. 부산: 부산 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2003). 인도차이나의 이해: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미션저널 제 39호. pp.62~63
- 진덕규(1999).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근대성의 조우에 대한 하나의 서설. 第12次 韓日・日韓合同學術會議. 세계 속의 동아시아문화. 서울: 財團法人 韓日文化交流基金.
- 최상수(1966)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pp.103~110. 서울: 한월협회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 서울: 한국 청소년개발원
- 한승주(2001). 지구정세 2015: 비정부전문가들과의 미래에 대한 대담. IRI 리뷰. 워싱턴: 국가정보위원회.
- 한월협회(1966).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해외문헌>

- 金永鍵(1943).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東京: 富山房
- 郡司喜一(1938). 徳川時代の日暹國交 pp. 15-16. 東京: 東亞經濟調査局
- 若宮啓文(1996). 일본 정치의 아시아관. 서울: 동아일보사
- Amitav Acharya and Ananda Rajah(1999), Introduction: Reconceptualizing Southeast Asia. In Joel S. Kahn(Ed.),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7 No. 1
- Andreas Ufen(2004). Die ASEAN: Vom Antikommunismus zu umfassender Kooperation in Südostasien. *Südostasien aktuell*, No. 73
- Anthony Reid(1992), The Rise and Fall of Sino-Japanese Shipping. In V. J. H. Houben, H. M. J. Maier and W. van der Molen (Eds.), *in Looking in Odd Mirrors: The Java Sea*. pp. 181 ~186. Leiden: Vakgroep Talen en Culturen van Zuidoost-Azië en Oceanië.
- ASEAN Foundation(2003). *Gazette: Official Newsletter of the ASEAN Foundation*. Vol.1. Indonesia: ASEAN Foundation.
- ASEAN Foundation(2003). *Projects and accomplishments*. Indonesia: ASEAN Foundation.
- ASEAN Foundation(2003). *Projects and accomplishments*. Indonesia: ASEAN Foundation.
- ASEAN Foundation(2004). *Gazette: Official Newsletter of the ASEAN Foundation*. Vol.2. Indonesia: ASEAN Foundation.
- ASEAN Secretariat(2001). *ASEAN Briefing Paper: Culture and Information*. Indonesia : ASEAN Secretariat.
- ASEAN University Network(2002).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3. Issue 2. Thailand: Bangjark Print.
- ASEAN University Network(2003a). *ASEAN Studies Programme Syllabi*. Thailand: Bangjark Print

- ASEAN University Network(2003b).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4. Issue 1. Thailand: Bangjark Print.
- ASEAN University Network(2003c). *International College Stedent Exchange Program 2003:ASEAN and Daejeon University*. Thailand: Bangjark Print.
- ASEAN University Network(2004). *AUN Newsletter Asean: We are one*. Vol.5. Issue 1. Thailand: Bangjark Print.
- Asia-Europe Foundation(2003a). *Annual Report 2002-2003*. Singapore: ASIA-Europe Foundation.
- Asia-Europe Foundation(2003b). *ASEF NEWS: a news letter form ASEF*. Forth Quarter. Singapore: Image Office Systems and Supplies Pte Ltd.
- Asia-Europe Foundation(2003c). *Promoting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s of Asia and Europe*. Singapore: Asia-Europe Foundation.
- Benedict Anderson(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Cho Hung-Guk(1994), *Die politische Geschichte Thailands under der Herrschaft König Narais* pp. 161-164. Seoul: Munduksa.
- Directorate of Youth Affairs(2003), *Indonesian Youth Profile*, pp.7, 13~28
- D. R. SarDesai(1997), *Southeast Asia: Past & Present*. Boulder: Westview
- John F. Embree(1980), Thailand, A Loosely Structured Social System. In D. E. Hans(Ed.), *in Sociology of South-East Asia: Readings on Social Change and Development*, pp.164~165.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 Kuniye Kawamoto(1991), The International Outlook of the Quang

- Nam (Nguyen) Regime as Revealed in Gaiban Tsuusho. *In Ancient Town of Hoi An,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ncient Town of Hoi An*, pp. 115-116.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Lynn Pan(1998), *The Encyclopedia of the Chinese Overseas*. Singapore: Chinese Heritage Center
- National Youth Council(2003). *NYC times*. November. Singapore: National Youth Council.
- National Youth Council(2004a). *NYC times*. February. Singapore: National Youth Council.
- National Youth Council(2004b). *NYC times*. June. Singapore: National Youth Council.
- Sing, Ming(2002), Civil Society in Southeast Asia: Cases of Singapore and Malaysia.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Review and Prospects*.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2003). *Annual Report 2002/2003*. Singapore: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2004). *Singapore*. April-June. Singapore: UIC Printing&Packaging Pte Ltd.
- Wang Gungwu, *ibid.*, 5.
- Youth Challenge(2002). *Youth Challenge 16th Anniversary Commemorative Issue*. Singapore: Youth Challenge.

<국내 사이트>

국제교류정보센터 YOUTH CLIP www.youthclip.org
 국제교육진흥원 www.niied.interedu.go.kr
 국제워크캠프기구 www.1.or.kr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org
 동북아 평화연대 www.wekorean.or.kr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제교류 www.mct.go.kr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 www.mizy.net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유네스코 청소년교류팀 KUCES www.kuces.unesco.or.kr
 자연과 청소년 www.camp114.org
 지구촌 나눔운동 www.globalsharing.org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문광부) www.iye.go.kr
 태평양 아시아협회 www.pas.or.kr
 한국 청소년단체 협의회 www.ncyok.or.kr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www.klafir.or.kr
 한국지방정부 국제화재단 북경대표처 www.korealocal.org.cn
 한중 미래숲 www.futureforest.org

<해외 사이트>

싱가폴 청소년청 (National Youth Council) www.nyc.gov.sg
 싱가포르 국제교류기금 (Singapore International Foundation)
www.sif.org.sg
 아세안 사무국 (ASEAN Secretariat) www.aseansec.org
 아세안 기금 (ASEAN Foundation) www.aseanfoundation.org
 아세안 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www.aun.chula.ac.th

아시아-유럽기금 (Asia Europ Foundation) www.asef.org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교과서운동본부)의 홈페이지 <http://www.japantext.net>
유네스코 방콕 (Unesco Bangkok) www.unescobkk.org
필리핀 정보 기관 www.pia.gov.ph
청소년운동 국민협의회 (People's Association Youth Movement)
www.paym.org.sg
APPAN (Asia-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www.appan.org
ASEFOREP www.asef.org/aseforep
ASEM Education Hub -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AEH-EARN) www.aeh.asef.org
Asia-Europe Classroom www.aec.asef.org
ASPnet www.unesco.org/education/asp/
AUN/SEED-Net JICA www.seed-net.org
Culture-ASEF www.culture-asef.org
President's Challenge 2004 www.pc2004.org.sg
World Heritage Convention www.whc.unesco.org/education
Youth Challenge www.youthchallenge.org.sg
Youth@ASEAN www.aseanyouth.org
www.1999.gov.sg

부 록

- 2003년도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

부
록

■ 2003년도 청소년단체 국제 교류 프로그램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	방한	2003년 한·아세안 미래 지향적 청년교류(초청)사업	2. 10~19	서울, 강원도	185명 (아세안, 한국등)	- 국내 역사 탐방, 문화 교류활동 등
		한·일청소년교류사업(방한)	3. 18~2. 23	서울 등	15여명	
		제14회국제청년관광	8. 18~24	서울, 안면도	25개국 130명	
	파견	제7회한일중학생교류파견	8. 4~13	일본	10명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파견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	4~5월	북경 및 연변 등	청소년 10명 지도자 2명	- 한국 전통문화예술 홍보 및 공연활동 - 방문국 순회도시, 지역 의 문화공간 또는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공연 또는 봉사활동실시 - 근로봉사, 문화교류 활동 전개
대한YWCA연합회	파견	몽골천교봉사활동	8. 15~22	몽골 울람바트로	청소년, 대학생 20명	- 재가복지지원 문화경 동프로그램지원 교호 여름성경학교지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파견	RCY지도자해외연수	7. 26~8. 2	적십자발상지 (스위스등)	18명	
		제13차대학적십자해외봉사	8. 10~25	캄보디아	대학회원 32명, 지도자 3명	
		RCY한·일교류	7. 22~25	일본적십자사 후쿠오카지부	12명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대한청소년문화재단연합	과 권	한·일 역사문화탐방	1차 : 8. 5 ~ 8. 9, 2차 : 8. 7 ~ 8. 11	일본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80명씩	- 한·일 역사문화탐방
		일본의 문화체험	8월중	일본	초·중·고생	- 일본의 역사문화탐방
		지도교사 해외 연수	8월중	중국 청진	30명	- 지도교사 해외 연수 실시
		한·중 청소년 국제 교류	12월중	심양, 집안	청소년, 지도자	- 청주시, 심양시 국제 교류 참가
		일본 문화탐방	12월중	일본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 일본 문화탐방
		뉴질랜드 어학연수	12월중	뉴질랜드	청소년	- 영어권 어학연수 - 뉴질랜드 및 호주 문화탐방
		제3회 한·중 청소년 국제 교류	1. 15 ~ 19	심양 집안	청소년, 지도자	- 청주시, 심양시 국제 교류 참가 - 고구려의 얼을 찾아서
		일본 문화탐방	1차 : 1. 2 ~ 6 2차 : 1. 26 ~ 30 3차 : 1. 28 ~ 2. 1	일본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 일본 문화탐방
		뉴질랜드 어학연수	1월중	뉴질랜드	초, 중, 고생, 지도자	- 영어권 어학연수 - 뉴질랜드 및 호주 문화탐방
		필리핀 어학연수	1월중	필리핀	청소년	- 영어권 어학연수 - 필리핀 문화탐방
	방 한	2003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	11. 21 ~ 26	청주, 서울, 광주, 부여	15 ~ 24세 한일 청소년	- 일본의 청소년 22명 초청 - 우리 청소년 22명 선발 - 한·일 청소년 국제 교류

주 회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방한	한·일프로젝트 "타이무마신"	12월 2주	서울 두어 백제문화권	한일 청소년 24명씩	- 고대 백제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문화교류의 역사적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에 국제적 무의를 존중하게 하고자함
한국걸스카우트연합	파견	가족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문화체험 캠프	1. 13~17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원, 가족 300명	- 싱가포르 초등학교생들과 친선교류 - 해외문화 체험
		동계 국제행사 '태국역사 문화체험'	1. 16~20	태국	대원 120여명	- 명소 및 역사탐방 - 국제교류
		일본 스페이스캠프 '더 넓은 세계로'	1. 22~26	일본	대원	- 일본 주요 명소 견학 - 무주함공체험
		중국속의 한민족 역사탐방	1. 13~17	상해, 소주, 항주 등	대원, 지도자 150명	- 중국 탐방 - 국제 이해 및 교류 기회 제공
		국제활동 - 일본	1. 9~13	일본 일원	대원, 지도자 90명	- 일본탐방 - 백제문화 탐방
		국제활동 - 중국	1. 16~23	중국 산둥성 지역	대원, 지도자 220명	- 중국 산둥성 지역 일대 견학
		태국 문화탐방	1. 16~20	태국 방콕 파타야	대원, 지도자 80명	- 걸스카우트 국제교류 - 국제 지식 및 세계 시민교육
		중국역사탐방	1. 7~10	중국(북경)	대원, 지도자 100명	- 중국문화탐방 - 수련활동

주 회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제2회 국제문화캠프	1. 14~19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원, 지도자 70명	- 외국 문화체험
		제2회 청소년 국제문화탐방 2~4차	1. 19~23 1. 21~25 1. 26~30	일본 오사카 외	회차당 120명	- 국제문화탐방 -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의 명소 및 문물 체험
		중국문화기행	1. 17~20	상해, 항주, 소주 일대	대원, 일반청소년	- 중국탐방 품구공원 / 상해임시정부청사 / 외탄관광 / 서호유람 명은사 / 영산동굴 등
		일본속의 편제문화기행	1. 16~20	일본(오사카, 교토, 큐슈, 아스카)	대원, 지도자 100명	- 일본 탐방 - 편제문화 탐방
		제2회 걸스카우트 가족 해외탐방	1.10~14	중국(북경)	유년대원 및 지도자 50여명	- 국제사회의 이해 - 중국문화의 체험
		특수대 필리핀 국제야영	5.9~ 19	필리핀 다바오	지도자 / 5명 특수대 대원 / 20명	- 국제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싱가포르 문화체험 캠프(지구별)	5.2~ 6 5.7~ 11	싱가폴 외	매차당 200명	- 국제교류, 견학 참가비 : 599,000원
		일본스페이스캠프	7.20~29 총 4회	일본스페이스월드	유소년장대	- 미션캐스팅, 기기훈련, 모델로켓제작, 우주박물관견학등
		일본속의한민족 역사탐방	8.21~26	일본나라,교토,오사카등	150명	- 일본속의 한민족 역사에 대한 재인식 - 국제이해와 실질적인 국제교류
		청소년국제팔등	8.18~20	일본	40명	- 일본문화체험 - 일본속의 한민족 역사탐방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일본국제교류	8.24~28	일본지역-오사카 일본	100명	- 일본지역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
		일본역사문화탐방	8월중	일본교토, 나라 오사카	100명	- 일본속의 한민족 역사탐방
		일본문화탐방	8. 16~21	일본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등	100명	- 일본속의 우리문화 탐방
		아태지역문화탐방(일본)	7. 29~8. 2, 8. 19~23	오사카, 나라, 교토 등	대원, 지도자 260명	-일본문화 탐방
		Julietta Low Seminar	9. 10~18	멕시코 아워카바냐	영리더 1명	- 영리더의 지도력 개발 의사결정, 전략 계획 변화에 대한 관리 등
		특수대 팔리권 국제야영	10. 17~27	팔리권 다바오		- 국제야영을 통해 세계 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기르며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질 함양
		특수대 팔리권 국제야영	10. 17~27	팔리권 다바오	특수대원, 근로청소년, 지도자 24명	- 국제야영을 통해 세계 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을 기르며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질 함양
		충청남도-구마모토현 청소년교류사업	12. 14~18	일본 (구마모토, 후쿠오카, 삿포로, 아소 등)	40명	- 충청남도-구마모토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 일본청소년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한 국제적 의 증진 및 세계시민 의식 함양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일본 나라연맹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11.15~17	일본 나라현	20명	- 나라연맹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제5회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2004.1.5~13	일본	지도자 및 대원 56명	- 한일 걸스카우트 교류를 통한 세계이해 및 우애 증진, 일본 문화 탐방, 한국 문화 소개
		2003 한국·일본의 만남	1.16~19	일본	대원, 지도자	- 일본 유격지 탐방 - 일본 걸스카우트와의 교류
		지구별 해외체험캠프	2004. 1월 중	필리핀,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대원, 지도자	- 해외 문화 탐방 - 각국 걸스카우트 대원과의 교류
		실행위원 해외연수	1.6~15	세계센터 뽕잠 (인도)	실행위원 20명	- 세계센터 뽕잠 견학 - 실행위원 연수
		중국속의 한민족 역사탐방	2004. 1. 6~10	중국	대원, 지도자 150명	- 중국속의 우리 문화 탐방 - 타문화의 문화와 견본 체험
		일본문화탐방 및 우주체험 학습	2004.1. 8~10	일본 스페이스 캠프, 후쿠오카, 삿포로	120명	- 우주캠프 참가 - 후쿠오카, 삿포로 견학
		중국문화탐방	2004. 1.12~16	중국 상해, 항주, 소주, 남경, 무척	150명	- 독립유격지 견학 - 중국역사 탐방
		일본 속의 펙제문화기행	2004. 1.26~30	일본	대원, 지도자 150명	- 일본 문화 탐방을 통한 타문화 이해, 세계 시민의식 고취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민족 역사탐방	2004, 1.26~30	중국	대원, 지도자 80명	- 중국속 우리문화 탐방
		태국국제교류	2004, 1.5~9, 1.12~16	태국	대원, 지도자 150명	- 태국 걸스카우트 방문, 대원과의 교류 - 태국문화체험
		대만국제캠프(수원지구)	12.27~30, 1.5~9	대만	대원, 지도자 130명	- 태국 문화 체험 - 국제사회 이해
		해외역사탐방 (군포, 의왕지구)	1.6~9	일본	대원, 지도자 150명	- 일본 문화, 역사 체험 - 국제사회 이해
		2004 청소년국제문화탐방 및 우주체험학습	1.7~9, 1.13~15, 1.15~17, 1.17~19	일본	대원, 지도자 400명	- 일본문화탐방 - 스페이스월드 우주체험 활동
		중국역사문화탐방	1.13~17	중국 삼해, 함주, 소주	45명	- 중국속의 한국문화 유적지 탐방
		일본역사문화탐방	1.14~17	일본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 토 등	45명	- 일본 속의 한국문화 탐방 - 일본 문화 탐방
		일본 속의 걸스카우트 문화	1.12~15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 토 등	대원, 지도자	- 한일 걸스카우트 문화 교류 - 국제이해와 우의 증진
		태국 문화체험 활동	1.27~31	태국	대원, 지도자	- 태국 청소년단체 방문 - 태국 문화교류 - 국제이해와 우의 증진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제3회 걸스카우트 가족 해외탐방	1. 7~12	태국	대원, 지도자 40명	- 국제사회 이해 - 태국문화 체험 - 미래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방한	일본하기시 교류 활동	3. 28~30	돗산	유·소·연장대 100명	- 돗산지 자매결연 도시 하기시와 국제교류 - 청소년들을 통한 대원들의 국제교류 능력 배양
		일본 북해도 방한	3. 24~30	부산 - 서울 청소 년 회관	일본 가톨릭 스카우트 소년·소녀, 지도자 30명	- 북해도 가톨릭 스카우트 의 경기 방한 행사 - 한국 문화 이해 및 국제우애 증진
		일본연평 대원·지도자 방문	4. 2	연평회관	연장대원 / 2명 지도자 / 1명	- 친선교류
		국제청소년평화캠프	8. 5~9	세계점버리 수련장	10,000명	- 자연친화 및 환경보전 실천 야영생활 - 세계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자질육성
		아태지역 개발 워크숍	9. 22~28	서울여성출라자	아태지역 대표 70명	- 세계연평의 조직과 관리, 단체와 관련된 경제 정책과 지침에 대한 공개 포럼 및 토론회 - 한국의 밤 및 AP 추천 회 증명서수여식
		제4회 세계청소년문화축제	10. 11~13	광실한감시민공원	국내외 청소년 10만명	-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 목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일공동미래 프로젝트	10.22~27	연평/모현야영장	한일결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 32명	- 한국체험 - 야영민박 - 천천의 밤
		한·미 합동대집회	11월	철곡, 경산	150명	- 한·미 대원의 대집회를 통해 이해와 친목 도모의 시간 마련 - 한마당 민속잔치
		한·미 합동 대집회	1월 말	강산초등학교	150명	- 한·미 대원의 대집회를 통해 이해와 친목 도모의 시간 마련 - 한마당 민속잔치
	물 명	한·미 합동집회	12월중		100명	- 양국 프로그램 소개 - 서로의 문화 이해의 시간 마련
		한·미 합동집회	12, 21		한·미 대원, 지도자 100명	- 양국 프로그램 소개 - 서로의 문화 이해의 시간 마련
한국로타리 청소년인터-로 타렉트	파견	청소년교판	3.28~29	일본 2770지구	50명	- 청소년교판단 발한
		청소년교판	3, 29~31	일본2710지구	40	- 국제 청소년 교판단 방일
		청소년교판	3, 27~30	일본2770지구	45	- 국제 청소년 교판단 방일
		Pre-Convention	5, 30~6, 1	호주 브리스베인	5명	- 세계 각국의 로타렉트 대회(참가비 750만원)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일청소년교류교판	7. 31 ~ 8. 4	일본 기후현	41명	- 인터랙트활동 경보교판 및 문화교류
		한일회원자녀교판	7. 31 ~ 8. 3	일본 사가미하다	6명	- 친선교류
		국제청소년교류	7~8월	구마모토	40명	- 국제교류
		가족별 펠스데이	9월중	캐나다 펠스데이 가정	20명	- 캐나다 임양아가족의 펠스데이
		청소년교판	2004. 1. 13 ~ 18	2500지구 (일본)	6명	- 청소년교판(일본지역)
		청소년교판	2004. 1 ~ 3	2770지구 (일본)	100명	- 청소년교판(일본지역)
	과건·방한 물명	청소년교판 국제교류	7. 23 ~ 28	서울/동경	8명	- 국제교류
한국스카우트연맹	과건	청소년교판	2003. 1월중		50명	- 청소년교판
		스카우트 원류탐방	1. 14 ~ 28	영국·스위스	스카우트 지도자 20명	- B.P.경의 발자취를 따라 (영국 길월 야영지, B.P.하우스 등), 스카우트 최초의 야영지인 브라운캐 섬 방문, 영국가정 민박, 스위스 세계센터 스키캠프, 세계사무국 방문 등
		제6회 아·태, 제12회 호주편지	1. 2 ~ 13	호주 캔버라	스카우트 지도자 10명	- 해안활동, 과정활동 참가, 호주견학, 대활동 등
		일본속의 한국역사탐방	1. 13 ~ 17 (1기) 1. 14 ~ 18 (2기)	일본 큐슈	스카우트 18 ~ 0명	- 한국 역사유적지 탐방, 큐슈지역 민속박물관 견학, 친교활동 등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 로 그 램 내 용
		태국 세계점버리 참관단	1. 4~8	태국 사타립	스카우트 120명	- 태국 세계점버리 고 경팔동 및 공연프로 그램 견학
		중국문화탐방	1. 13~18	중국 상해·항주	스카우트 150명	- 항일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 탐방, 상해지역 견학, 친교활동, 대접회 등
		강보고 펄길파라 중국역사 탐방	1. 13~18	중국 대안·제남	스카우트 150명	- 강보고 승전 유적지 탐방, 중국 문화탐방 대접회, 레크리에이션 등
		강보고 펄길파라 중국역사 탐방	1. 4~9	중국 청도	스카우트 80명	- 강보고 승전 역사유적 지 탐방, 친교활동, 대 접 회, 국제교류 등
		지도자 해외연수	5. 2~4	일본 대마도	80명	
		대마도 속의 한국역사 탐방	5. 23~25	일본 대마도	기수별 40명	
		아태지도자 워크숍	5.27~6. 1	일본 동양인재개발원	국내외 지도자 60명	
		지도자 해외연수	5.2~4	일본 대마도	80명	
		대마도 속의 한국역사 탐방	5. 23~25	일본 대마도	기수별 40명	
		로버스카우트해외봉사	8.14~27	스리랑카	12명	
		일본속의한국역사탐방 (강동지구)	8.18~21	일본큐슈, 오사카	200명	
		제5차한·일친선 교류	7.25~8.19	일본도쿄, 후쿠시마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일청소년친선교류	8월중	일본 아오모리현	40명	
		일본속의 한국 역사탐방	8월중	일본 후쿠오카	80명	
		일본속의 한국 역사탐방	7. 28 ~ 8. 2	일본 큐슈, 시코쿠	130명	
		일본속의 한국 역사탐방	8. 19 ~ 22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200명	
		제16회한일합동야영대회	8. 14 ~ 19	일본	20명	
		일본국해도캠프	8월초	일본국해도	30명	
		중국속의 장보고 대사 유적지 탐방	11. 6 ~ 12	중국	20명	
		대마도속의 한국 역사 탐방	11. 14 ~ 16 (1기) 11. 20 ~ 23 (2기)	대마도	각 40여명	
	방한	자매결연국 국제교류활동	1. 3 ~ 6	서울·경기	스카우트 100명	- 친선교류활동, 대검토 민박, 레크리에이션 등
		제12회국제로버무트 (국제 대학스카우트야영대회)	7. 14 ~ 19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	600명	
		APR - PR, IT, Marketing 워크숍	11. 4 ~ 9	동양인재개발원	23개국 지도자 100명	
		한일공동미래 프로젝트	11. 28 ~ 12. 3	경기, 경상도, 전라도	38명 (한국 19명, 일본 19명)	
한국우주정보소년단	파견	동계스페이스캠프	1, 2월	일본, 광	초~고등학생	- 우주정보소년단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일본스페이스캠프	7~8월	일본	단원, 교사	- 각종 우주과학시설 견학 및 일본문화 탐방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국유스호스텔연맹	과견	제4회 한태청소년교류 프로그램	2월중	태국	회원 및 일반인	
		물우청소년 해외견문 넓히기사업(일본)	8월중	일본 일대	15명	7,19
		2003 독서·문화여행	11. 7~12	나라·오사카	회원 5명	- 한·중·일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우호증대 도모
	방한	한일 청소년 친선교류 (초청)	10. 22~28	서울, 중국, 울산 일원	15명	- 친선교류활동 민박 체험활동 -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시설 견학
		한중 청소년 우호교류 (초청)	11. 20~27	서울, 중국, 대구 일원	15명	- 우호교류활동 - 민박체험활동 - 한국 사회 문화, 교육 시설 견학
		일본 청소년 민박활동	10. 21~30	울산지역 민박가정	15명	- 한국 가정의 이해
		중국 청소년 민박활동	10. 20 ~ 11. 28	대구지역 민박가정	20명	- 한국 가정의 이해
		21세기 한일 청소년문화 공동체 수립	12. 16~21	서울, 경기, 부여, 천안 일원	한국, 일본 청소년 및 지도자 45명	- 21세기 아시아의 미래 주역이 될 한·일 청소년들의 리더쉽 함양하고 한·일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적 이질감 극복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국청소년교류진흥회	과 권	한·미 청소년 교류	2003, 1. 21 ~ 28	L.A 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20명	- 주요대학견학 및 사회문화연수
		한·일 청소년 교류 (과권)	2003, 1. 24 ~ 30	동경, 니가다, 교토	청소년 및 지도자 20명	- 교류활동 - 사회문화시설견학
		부모와 함께 중국체험연수	2003, 1. 15 ~ 1.22	상해, 소주, 항주, 계림 중국목경 등	청소년 및 학부모, 지도자 40명	- 유적지견학 - 기관방문 - 교류활동
		한·일청소년친선교류(과권)	7. 28 ~ 8. 4	동경, 오카야마, 야마구찌지역	25명	- 공개세미나 및 본과회 - 사회문화연수 - 민박체험활동
		한·중청소년친선교류(과권)	8. 1 ~ 8	목경, 장준, 연길	25명	- 사회문화연수 - 교육·산업시설견학 및 세미나
		중국문화견탐방	7. 24 ~ 29	목경, 장준, 연길, 백두산	50명	- 문화유적지탐방 - 사회문화연수 - 견학활동
		청소년친선국연수	8. 15 ~ 26	유럽 6개국	35명	- 문화유적지탐방 - 사회문화연수 견학
		한·미 청소년 교류	2004, 1. 12 ~ 19	L.A 지역	청소년, 지도자 20명	- 주요대학견학 및 사회문화연수
		한·일 청소년 교류 (과권)	2004, 1. 22 ~ 28	동경, 니가다, 교토	청소년, 지도자 12명	- 세미나, 견학 교류, 민박활동
		한·중 청소년 교류 (과권)	2004, 1. 7 ~ 13	중국 목경, 장준, 권림	청소년, 지도자 20명	- 교류활동 - 사회문화시설 견학
		부모와 함께 중국체험연수	2004, 1. 5 ~ 10	상해, 소주, 항주, 계림	청소년 및 학부모, 지도자 50명	- 유적지견학, 기관방문, 교류활동
		유럽친선국 연수	2004, 1. 3 ~ 8	독유럽 5개국	30명	- 독유럽의 문화체험, 이해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방한	중국·일본 청소년 민박	2003, 1. 7~2, 28	청주지역 민박가정	40명	- 한국 가정의 이해 - 민박체험활동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7. 16~19	국제 청소년 센터	200명	- 국제교류친선의밤 - 한국전통, 문화체험 - 문화유적지탐방 - 민박체험활동
		한/일 청소년 친선교류 (초청)	10. 23~29	서울, 중국, 울산 일원	15명	
		일본 청소년 민박활동	10. 21 ~ 10. 30	청주지역 민박가정	15명	
		중국 청소년 민박활동	10. 30 ~ 11. 6	울산지역 민박가정	20명	
		한일청소년 테마별 무경나누기	2004, 1. 12~17	국제 청소년 센터	한·일청소년100명	- 테마별 교류행사 (문화, 역사, 체육, 7 경, 리더십)
		중국·일본 청소년 민박	2004, 12~1월	청주지역 민박가정	20명	- 한국 가정의 이해, 민박체험활동
한국청소년연맹	파견	한일대학생교류사업(방일)	7. 2~8	일본 동경	단원, 지도자 12명	- 청년교류 및 합숙세미나 - 폼스태이, 문화 교육시설견학
		호주어학연수	7. 26~	호주	15명	- 어학연수, 폼스태이
		아람단해외연수	8. 12~16, 8. 17~21, 8. 19~23	일본 긴끼	240명	- 일본 긴끼지역 연수
		누리단해외연수	8. 24~28, 8. 25~29	일본 (칸토)	40명	- 일본 칸토지역 연수
		해외연수	8. 22~25	일본 지역	80명	- 일본지역 문화탐방

주 최	형 태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가인원	프로그램 내용
한국청소년연맹		해외연수	7. 29~31, 8. 19~21	일본대마도	135명	- 대마도 역사탐방
		일본해외연수	8. 6~10, 8. 7~11	일본 긴끼, 큐슈	80명	- 단원 및 지도자 일본 긴끼큐슈지역 연수
		해외연수	8. 19~23	일본 긴끼, 큐슈	100명	- 일본 긴끼큐슈지역 연수
		단원중국연수	7. 31~8. 4	삼양, 연길, 백두산, 동경	80명	- 교류회, 학교방문, 문화 유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단원일본연수	8. 5~8	오사카, 나라 등	80명	- 교류회, 학교방문, 문화 유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과견	청소년 일본문화체험	1. 6~1. 10	동경, 오카야마 등	청소년, 지도자 30명	- 일본문화체험 - 한일교류활동
		청소년 일본문화체험	2004. 1. 8~13	동경, 오카야마, 야마구치 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40명	- 일본문화체험 - 한일교류활동
	방한	외국인 민박 교류 활동	10~11월	경주일대	청소년, 지도자 20명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과견	2003. 하계 국제 교류	7월중	일본	대원, 지도자 150명	
		ISCA 하계 국제 교류	7. 8월	캐나다, 영국, 미국	10명	
		제18차 청소년 우리열 해외탐방	8월중	일본	50명	
		제5회 우리열 해외탐방	8. 5~8	일본	40명	
		우리열 해외탐방	7. 21~25, 7. 28~8. 1	일본	각 400명	
		국제교류사업	9. 15~18	일본(오바마)	220	- 일본 오바마 방문 예정
		직원 국제 해양레포츠 답사	11. 5~9	동남아시아	직원 14명	- 동남아 해양관광지 답사, 해양레포츠 답사

【연 구 요 약】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동아시아지역에 내재해 있는 정치, 군사, 역사적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육성을 위해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의 바람직한 방향 및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동아시아지역의 개념 정의 및 동아시아지역 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역사와 현황분석
- 동아시아 교류이념 정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동아시아 청소년교류현황 분석
- 동남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 유럽연합, 북미지역의 청소년 교류사례 분석
- 청소년 교류발전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면접조사/전문가워크숍

II. 연구결과

1.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와 청소년교류이념

1) 동아시아 교류협력관계의 역사적 분석

근대이전의 조선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였으며 중국은 자국우월의식에 기초해 통제, 지배관계를 맺어왔다.

근대 이후 이루어진 중국인들의 동남아시아 이주는 영국의 식민지적 지배를 따른 것이어서 현지사회와 갈등적 관계를 맺었으며 일본 역시 군국주의적 점령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갈등적 관계를 형성해 왔다.

결국 동아시아지역 국가관계는 교류협력적이라기 보다는 지배와 통제, 팽창주의와 점령 등으로 인한 적대적·갈등적 관계가 기축을 이루어 왔다.

2) 동아시아의 청소년교류 이념

첫째, 자국중심주의의 협소한 역사인식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지역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2.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현황

1) 정부간 청소년교류현황

2003년까지 교류인원 수를 분석할 때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국이 50.9%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국이 30.0%로 정부간 청소년교류의 80.9%가 동아시아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현황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자치단체를 분석하면 중국, 일본, 몽골, 대만 등 동북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6%로 가장 많은데 비해 동남아국은 5%로 현저히 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대부분 경제·통상교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적교류 또한 공무원, 전문가 등 성인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교류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3)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단체 청소년 교류현황

청소년단체의 교류사업 건수를 분석할 때, 동북아국가와의 교류사업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사업이다. 국제워크캠프, 해외봉사 등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지역과 가장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 수준이 취약하다. 정부간 교류의 경우, 교류약정을 맺은 국가와 소규모 인원만 교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가고 있지만 청소년 교류사업비중은 대단히 낮다.

3. 외국의 청소년교류 사례분석

1) 아세안(ASEAN) 청소년교류

동남아시아 10개국은 아세안 조직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아

세안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세안 장관급회담을 통해 아세안 청소년 발달을 위한 아젠다를 채택하였다. 아세안 장관급 회담에서는 아세안 청소년의 날을 지정, 기념하면서 ‘아세안 청소년의 상’ 수여라는 활동을 정하여 기념하고 아세안 의식 증진, 시민교육, 고용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제휴와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아세안 청소년교류사업과 공동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기술교육사업, 아세안 청소년상 시상, 도시청소년사업(비행줄이기) 등이며 이 외 아세안연구를 통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아세안의식 증진, 아세안청소년캠프, 아세안지역퀴즈대회 등을 실시한다

2)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유럽연합의 청소년분야 교류사업은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 Youth for Europe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외청소년집단의 교류이다. 유럽청소년자원봉사는 18~25세 청소년이 타국에서 머무르며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으로 유럽연합 청소년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3) 북미지역의 청소년교류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미국무성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에 의해 15~18세 외국청소년들이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6개월이나 1년정도 숙박하며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Ⅲ. 정책제언

1. 동아시아 청소년과의 중장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문화교류법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한다.
2. 동북아 청소년 교류기금을 조성하여 Asian Voluntary Service, 언어학습, 여행, 창안활동, 퀴즈대회 등과 같은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3. 아세안 + 3 동아시아 청소년·교육장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소년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는 제반현안, 외국청소년 전용숙소의 설치, 청소년NGO 네트워크 지원, 교환학생제도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4.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의 20% 이상을 국제교류사업비로 확보하여 이 중 일정부분을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 청소년교류사업에 할애한다.
5. 청소년 국제교류 특성화시설을 지정하고 청소년 여행촌을 개발한다.
6. 동아시아 청소년센터(동아시아청소년연구원)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교류사업 개발, 실행하고 교류인력 양성·연수 등을 실시한다.
7. 동아시아 청소년네트워크, 인권프로그램, 동아시아청소년 중장기 초청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사업을 개발, 지원하여 교류의 질과 효과를 제고한다.